

KSAT ENGLISH · ANATOMY & FORECAST

2027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해부 · 예측 리포트

6월·9월 모의평가 전 문항 해부 × 24개년 기출 경향 데이터
유형별 수능 블라인드 예측 — 검증된 방법론으로

실전 예측판 — 블라인드 방법론(리허설 검증) 기반



70 회

기출 코퍼스 · CORPUS

46 제

문항 해부 · ANATOMY

15 유형

블라인드 예측 · FORECAST

차례

Question Anatomy & Forecast

총론	방법론 · 시즌 개관 · 유형별 예측 총괄 · 기출 통계	3
01	20번 주장	9
02	21번 함축 의미	13
03	22번 요지	17
04	23번 주제	21
05	24번 제목	25
06	26번 내용 일치	29
07	29번 어법	33
08	30번 어휘	37
09	31~34번 빈칸 추론	41
10	35번 무관한 문장	51
11	36~37번 글의 순서	55
12	38~39번 문장 삽입	61
13	40번 요약문	67
14	41~42번 장문 독해 I	71
15	43~45번 장문 독해 II	76
부록	데이터 출처 · 한계 고지	82

해부 대상은 독해 20~45번 중 수능·모평 공통 독해 유형 15종(문항 46제)이에요. 듣기(1~17번)와 목적·심경(18~19번), 도표·실용문(25·27·28번)은 이 리포트의 해부 대상이 아니에요.

HOW TO READ 읽는 법 — 해부 카드 · 통계 카드 · 예측 박스

01 해부 카드 — 시험지 원형 위의 필기 레이어(견본 문장)

Rivers shape the land ①. That slow work carves a valley; yet a flood seems to do it overnight.

① 파랑 강조 + ① = 글의 전개(흐름) 표시 · 번호는 이 노트와 짝

② 노랑 형광 = 정답 근거 문장

③ 빨간 밑줄 = 역접·단서 표시 · 회색 물결 = 함정 유인 구절

✓ 정답 선지 (굵게 + 초록 밑줄) · ↳ 근거

✗ 매력 오답 (빨간 물결) · ↳ 끌리는 이유·틀린 이유·「」 = 소거 선지(회색)

02 통계 카드 — 한 차트 = 한 문장

범례는 카드마다 차트 안에 있어요(그 차트가 쓴 마크만) · 모든 축은 0 기점(절단 시 「축 절단」 배지) · 기간은 학년도 · n은 문항 수

— 헤드라인의 수치는 코드가 계산한 통계 값 · →

행동 한 줄은 수치 없이 「무엇을 할지」만

n=148 n = 문항 수 · 기간은 학년도

참고 · n<30 소표본

— 백분율은 문항 기준 · 정답 번호 분포는 유형 챕터에 실지 않고 총론 끝 「검산용 기록표」에만 · 「미수집 ≠ 없음」은 코퍼스에 없는 번호를 뜻해요

03 예측 박스

—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 9월 모평 당일(채점 전) 시점 정보만으로 쓴 예측이라는 표시 — 9월 채점 결과·수능 정보는 없어요

— 확신도 상·중 — 예측 박스의 근거 강도(총론 보정표에서 등급별 적중률 확인 · 이번 판에 쓰인 등급만 적었어요)

— 이번 실전판엔 백테스트 밴드가 없어요 — 지난 리허설(2026학년도)의 채점 실적은 총론 보정표 카드에 있어요

— P1·P2... = 예측 항목 번호 · 「근거」 = 그 예측을 뒷받침한 기출 통계·신호 · 「수험 전략」 = 예측이 맞을 틀린대 대비

— ★ 난이도(★=쉬움 ~ ★★★★★=최상) · [3점] 배점 · 📄 한 줄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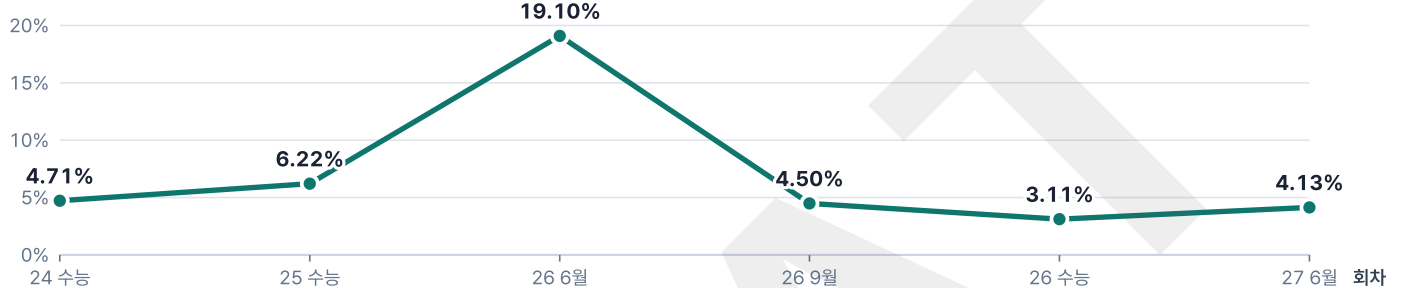
총론 — 어떻게 예측하고, 얼마나 맞았나 *Method & Scoreboard*

01 · GRADE 1 SHARE 라인

회차 기록

기록된 6회 중 1등급 비율은 2026학년도 6월 19.1%가 가장 높은 기록, 2026학년도 수능 3.11%가 가장 낮은 기록이고, 가장 최근 2027학년도 6월은 4.13%예요. (표본 6건 — 참고용)

● 선·점 = 1등급 비율



→ 1등급 비율은 회차마다 크게 흔들려요 — 한 회차의 체감 난이도로 수능을 단정하지 않아요.

n=6 2024학년도 수능~2027학년도 6월 출처 언론 보도(URL 부록) y축 0 기점 참고 · n<30

출처 URL 이 확인된 회차만 실었어요(언론 보도 인용) — 「검증」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 「가장 높은/낮은 기록」은 기록의 관찰이지 검정이 아니예요 — 응시자 수가 없어 통계 검정을 하지 않았어요. · 소표본 배치: n=6 < 30 — 참고용.

작년 3연전 요약

지난 시즌(2026학년도)은 6월 19.1%(절대평가 도입 후 최고 물모평) → 9월 4.5%(급반전) → 수능 3.11%(역대 최저)의 극단 널뛰기였어요. [R10][R11] 수능 당일 입시기관 전망(「9월과 비슷, 1등급 5~6%」)까지 빚나가면서 「9월이 수능의 리허설」이라는 예측 전체 자체가 무너졌죠. [R12] 올해(2027학년도) 6월도 1등급 4.13%로 국어 5.38%·수학 4.83%보다 낮은 「불영어」 — 고난도 기조는 현재진행형이에요. [R9] 오늘 치른 9월 모평은 성적 통지(9.29) 전이라 1등급 비율이 아직 없고, 당일 EBS-입시기관 평가는 「작년 수능·6월보다 쉽게」로 방향이 일치했지만 1등급 수치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어요(당일 평가 — 채점 전, 검증 안 됨). [R2][R6][R8] 당일 체감이 실체점보다 후했던 전력(지난 시즌 수능 「5~6%」→3.11%)이 있어서 「쉬웠다」를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R12][R11] 이 리포트는 지난 시즌 6·9월 해부로 수능을 블라인드 예측하고 실제 수능으로 채점해 실질 적중률 28.6%를 확인한 방법론으로 만든 실전판이에요 — 부분 적중이 많았던 만큼 예측 박스는 난이도 단정이 아니라 방향 지침으로 읽어 주세요.

예측 신호 체계 — 실제 입시가에서 검증된 6가지

S1 난이도 시소 조정론

6월이 극단이면 9월은 역모정, 수능은 그 사이로 수렴한다는 논리예요. 2025학년도 1.47%→10.94%→6.22%가 전형이고, 지난 시즌 19.10%→4.50%→3.11%는 9월→수능 구간이 수렴 대신 강화로 끝나 시소의 후반부가 깨졌어요. 올해도 6월 4.13% 뒤 9월 당일 평가가 「6월·작년 수능보다 상당히 쉽게」라 6월→9월 시소는 또 작동했지만(당일 평가 — 채점 전), 9월→수능 구간은 지난 시즌 예외 때문에 수렴·강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아요. [R14][R13][R10][R11][R9][R5]

S2 1등급 밴드 — 업계 통용 기준

평가원은 6월 채점 뒤 「6월·9월 모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능 난이도를 관리」하겠다고 했고, 「적정 1등급」은 평가원이 공식 수치를 밝힌 적이 없어 입시업계에서 7~8%로 통용돼요. 지난 시즌 수능 3.11%와 올해 6월 4.13%는 어느 기준으로도 미달이라, 밴드는 목표가 아니라 실패 판정선이 됐어요. 그래서 수능이 이 밴드 쪽으로 보정될 압력은 워낙, 「1등급 N%」 수치는 예측하지 않아요. [R9][R6]

S3 9월→수능 연결 규칙 — 리허설론 철회와 상향론

「9월=수능 리허설」은 지난 시즌(9월 4.50%→수능 3.11%)에 무너졌고, 올해 9월 당일엔 「9월모평 성적이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가 공식 총평이 됐어요. 절대평가 9개 시즌의 9월·수능 기록을 표로 놓고 세면 9월 1등급이 6% 미만인 6회 중 수능이 완화된 해가 5회(예외는 2026 단 1회)고, 9월이 7.5%를 넘긴 3회(2019·2023·2025)는 전부 수능이 강화됐으며, 9월과 수능이 $\pm 1.5p$ 이내로 붙은 해는 3회뿐이에요. 올해 9월이 정말 「상당히 쉬웠다」면 역대 패턴은 수능 상향 쪽이고 메가도 「작년 수능·6월 수준 유지 가능성」을 봤지만, 당일 4개 기관+EBS 중 1등급 수치를 낸 곳이 0이라 이 리포트도 수치 단정은 하지 않아요. [R10][R11][R7][R13][R4][R6]

S4 킬러 구간 고정론

고난도 지목이 매 회 같은 자리에 몰려요. 지난 시즌 수능은 EBS가 32·34·37·39번을, 올해 9월은 EBS가 21·33·34·37번, 메가·대성이 33·34·37·39번을 변별 문항으로 꼽아 33/34(빈칸)·37(순서)·39(삽입)가 교집합이에요(9월은 당일 평가 — 채점 전). 단 이걸 「어느 유형이 변별하나」이지 정답 위치 정보가 아니라서, 예측은 유형·함정 계열로만 써요. [R15][R1][R4][R3]

S5 유형 불변 · EBS 간접연계 상수

「작년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은 신유형은 없었다」가 올해 9월에도 재확인돼 지난 시즌 수능·올해 6월·9월 세 회 연속 유형 변화가 없고, EBS 연계도 25문항 55.6%·전 문항 간접연계(주제·소재·요지 유사)로 고정이라 변별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도 같은 구성이 기본 가정이고, 난이도는 유형이 아니라 지문과 선지에서 조절돼요 — 문항 해부가 유형 학습보다 중요한 이유예요. [R1]

S6 오답 선지 매력도 — 「지문 쉬움 / 선지 어려움」 축

올해 9월 당일 대상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쉽고 지문 길지도 길지 않았지만, 빈칸 유형의 오답 매력도가 높게 출제」, 메가는 「33·34번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 정답을 간접적으로」, 종로는 「어휘·문장구조·소재·지문 길이 모두 쉬워졌다」고 봤어요(당일 평가 — 채점 전). 지문 난도를 내려도 선지로 변별하는 기조가 확인된 셈이라, 수능 예측의 합정 계열 서술은 「지문 쉬움/선지 어려움」 축을 기본으로 잡아요 — 표면(어휘·길이)이 쉬워 보여도 정답 선지와 지문의 연결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문항이 변별 자리예요. [R3][R4][R5]

이 리포트의 예측 박스는 위 신호 체계와 24개년 기출 통계만으로, 9월 모평 당일(2026.9.2, 채점 전) 시점 정보만으로 작성됐어요 — 9월 채점 결과·수능 정보는 없어요. 각 챕터의 예측 박스는 같은 방법론의 리허설 검증 실적 위에서 작성됐어요.

숫자로 보는 시험 전체 — 총론 통계 카드 · 한 차트 = 한 문장 · 수치는 전부 코드 계산 · 범례는 카드마다 차트 안에 · 유형별 예측 총괄표는 이 흐름 안에

02 · 3-POINT MAP 타일

번호 × 회차 · 배점 자리

3점 문항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시험에서 수집 문항 기준 회차당 6~7개였고, 가장 자주 3점이 붙은 자리는 34번(34회)·33번(32회)·37·42번(각 28회)이에요.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에요.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3점 횟수
18	2점																								0회
19	2점																								0회
20	2점																								0회
21	2점							3			3	3	3			3	3	3	3			3	3	3	18회
22	2점									3	3	3			3	3	3	3	3	3					0회
23	2점				3				3	3				3	3	3	3	3	3	3		3			13회
24	2점									3												3	3		6회
25	2점															3	3	3							0회
26	2점																								0회
27	2점	3																							1회
28	2점	3	3	3	3	3	3		3																8회
29	2점		3		3			3	3		3		3												13회
30	2점	3		3																					16회
31	2점	3	3	3	3	3	3	3	3	3			3	3											12회
32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17회
33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2회
34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4회
35	2점																								0회
36	2점							3			3										3				3회
37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8회
38	2점			3	3	3					3										3				5회
39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7회
40	2점	3			3																				3회
41	2점																						3		1회
42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8회
43	2점																								0회
44	2점																								0회
45	2점																								0회

3점 문항

2점(수집 문항)

미상(그 회차 미수집)

■ 3점 문항 ■ 2점(수집 문항) □ 미상(그 회차 미수집)

→ 3점은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에요 — 배점을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유형별 풀이 루틴대로 배분해요.

n=265 2015~2027학년도 38회 출처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배점은 문항 원문 DB의 배점 표시 기준이에요 — 38회 전부 배점 정보가 있어요. · 18·19·25·27·28번은 코퍼스 수집 규칙상 부재(2019학년도 이후 배치 기준 — 목적·심경·도표·안내문 자리) — 「미수집」이지 「없음」이 아니에요. 미수집 번호의 3점 여부는 「미상」으로 표시해요(수집 문항 안에서만 판정). · 2015~2018학년도는 구배치라 19·25·27·28번 수집분이 있어요 — 그 자리에도 3점이 찍힐 수 있어요. · 2015학년도 이전은 배점 체계가 달라 넣지 않았어요.

03 · CALIBRATION 표

확신 × 판정

리허설 예측 75개 중 유형 유지류 자명 예측 19개(적중 19개)를 뺀 실질 예측 56개는 적중 16·부분 34·빗나감 6 — 실질 적중률 28.6% 예요. 전체로는 적중 35개(46.7%)이고, 실질 적중은 확신 「상」 17개 중 8개(47.1%), 「중」 39개 중 8개(20.5%)예요.

확신 등급	적중	부분	빗나감	합계	적중률
확신 상	16	9	0	25	64%
확신 중	19	25	6	50	38%
합계	35	34	6	75	46.7%
자명 예측(유형 유지류)	19	0	0	19	100%
실질 예측	16	34	6	56	28.6%
확신 상(실질)	8	9	0	17	47.1%
확신 중(실질)	8	25	6	39	20.5%

→ 확신 「상」이라도 부분 적중이 많아요 — 예측 박스는 방향 지침으로 읽고 난이도 단정은 하지 않아요.

n=75 리허설(2026학년도 6·9월 → 수능) 15유형 × 예측 문장 출처 이 리포트의 예측·백테스트

채점자 = 제작자: 채점은 예측을 만든 제작진이 직접 했어요(외부 채점 아님) — 독립 채점이 아니라 관대할 수 있어요. · 자명 예측 = 「수능에서도 이 번호·이 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식의, 사실상 확정된 사실을 되짚는 예측이에요 — 이번 리허설에서 19건 = 규칙으로 잡은 15건(각 유형의 첫 문장) + 채점자 표시로만 잡은 4건(빈칸 추론·주장·내용 일치·주제)이었고, 자명 예측은 사실상 확정 진술이라 적중률을 부풀려요 — 헤드라인은 이를 뺀 실질 적중률 기준이에요. 채점자가 「자리·유형·배점·평이 난이도 유지」로 표시한 문장도 자명으로 썼어요. · 자명 예측으로 뺀 문장(빈칸 추론): 「수능에서도 31~34번 네 자리는 그대로 빈칸 추론이에요.」 · 자명 예측으로 뺀 문장(빈칸 추론): 「31번 정답은 1~2어 명사(구)이고, 32~34번 셋 중 최소 둘은 6~9어」(후략)

04 · POSITION STABILITY 타입

번호 × 회차

20·31~45번은 26회 중 26회 같은 유형이었어요. 24·26번도 수집된 회차에서는 전부 같은 유형이에요. 유형이 흔들린 자리는 21번(96.2%)·22번(96.2%)·23번(96.2%)·29번(96.2%)·30번(96.2%)이에요.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고정도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20	주장																												100%
21	함축	지																											96%
22	요지	주																											96%
23	주제	제																											96%
24	제목																												100%
26	일치																												100%
29	어법	함																											96%
30	어휘	칭																											96%
31	빈칸																												100%
32	빈칸																												100%
33	빈칸																												100%
34	빈칸																												100%
35	무관																												100%
36	순서																												100%
37	순서																												100%
38	삽입																												100%
39	삽입																												100%
40	요약																												100%
41	장문																												100%
42	장문																												100%
43	장문																												100%
44	장문																												100%
45	장문																												100%

최빈 유형과 같음 다른 유형(표기) 미수집

지=요지 · 주=주제 · 제=제목 · 함=함축 · 칭=지칭

→ 번호 자리는 사실상 고정이에요 — 유형별 풀이 루틴을 번호에 붙여 두면 시험장에서 판단 비용이 줄어요.

n=596 2019~2027학년도 26회 출처 기출 코퍼스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18·19·25·27·28번은 코퍼스 수집 규칙상 부재(2019학년도 이후 배치 기준 — 목적·심경·도표·안내문 자리) — 「미수집」이지 「없음」이 아니에요. · 고정도 = 그 번호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나온 회차 수 ÷ 그 번호가 수집된 회차 수예요(행마다 수집된 회차 수가 달라 n 도 행마다 달라요). · 2019학년도 6월은 21~23·29~30번 배치가 한 칸 어긋난 구배치예요(그 회차만 요지·주제·제목이 한 칸 앞, 29번 함축 의미·30번 지칭). · 원자료의 유형 라벨을 발문 기준으로 바로잡은 문항 1건: 2019학년도 6월 30번 함축의미→지칭.

05 · ANSWER BALANCE 스펀지티플

회차 × 번호 · 검산용

2019학년도 이후 26회 시험에서 정답 번호 ①~⑤는 회차당 각각 2~7개(번호당 평균 4.6개)였어요. 회차당 수집 문항은 평균 22.9개예요 — 18·19·25·27·28번은 미수집이예요.



→ 회차마다 번호가 고르게 맞춰져요 — 번호 분포로 답을 정하는 발상은 근거가 없어요.

n=596 2019~2027학년도 26회 출처 기출 코퍼스 y축 0 기점 미수집 ≠ 없음

18·19·25·27·28번은 코퍼스 수집 규칙상 부재(2019학년도 이후 배치 기준 — 목적·심경·도표·안내문 자리) — 「미수집」이지 「없음」이 아니예요. · 장문 41~45번은 문항별로 따로 켜어요. · 번호로 고르기 근거로 쓰는 카드가 아니예요 — 회차마다 ①~⑤가 고르게 맞춰진다는 사실만 보여줘요(「고르게 뿌린다」 단정은 하지 않아요). · 번호당 기대치는 회차당 수집 문항 수 ÷ 5 = 4.6개예요. 무작위 배분이면 회차별 번호당 정답 개수는 1~8개 안에 거의 다 들어와요(기대치 ± 2×표준편차) — 실제로 이 범위 밖은 0건이예요.

유형별 예측 총괄 — 이 방법론은 2026학년도 리허설(6·9월→수능 블라인드)에서 예측 75건 적중 35 · 부분 34 · 빗나감 6로 검증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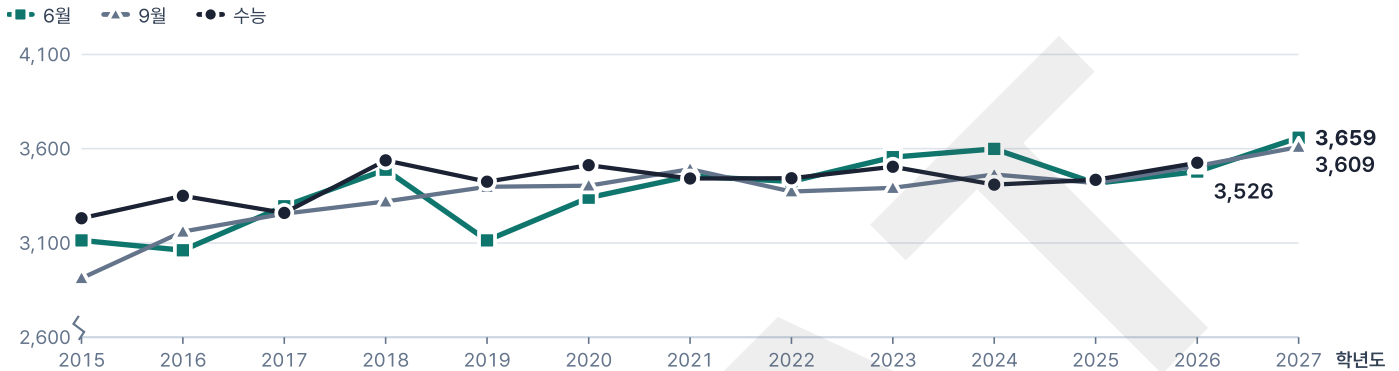
번호	유형	대표 예측	확신
20번	주장	수능 20번도 「필자가 주장하는 바」 발문의 주장 유형 그대로예요 — 신유형이나 자리 이동은 없어요.	중
21번	함축 의미	수능에서도 21번은 함축 의미 자리로 유지되고, 배점은 6월·9월처럼 3점이 붙는 쪽을 기본으로 봐요.	중
22번	요지	수능 22번도 요지 유형으로 유지돼요 — 자리 이탈은 구배치 예외 1회를 빼면 없었어요.	중
23번	주제	수능 23번도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에 영어 명사구 선지 다섯 개인 주제 유형 그대로이고 2점 자리예요.	중
24번	제목	수능 24번도 제목 유형이고 자리 이동·신유형은 없어요.	중
26번	내용 일치	수능 26번도 내용 일치 유형·2점 자리 그대로예요 — 자리 이동이나 신유형이 끼어들 여지는 사실상 없어요.	상
29번	어법	수능 29번도 「어법상 틀린 것」 어법 유형 그대로예요 — 자리 이동이나 신유형은 없어요.	중
30번	어휘	수능 30번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 유형이고, 3점 자리로 유지돼요.	중
31~34번	빈칸 추론	수능에서도 31~34번은 빈칸 추론 네 문항 그대로이고, 3점은 33·34번 두 자리에 붙어요.	중
35번	무관한 문장	수능 35번도 무관한 문장 유형·2점 자리 그대로예요.	중
36~37번	글의 순서	수능에서도 36·37번은 글의 순서 두 문항이고, 3점은 37번 한 자리에 붙어요.	중
38~39번	문장 삽입	수능에서도 38·39번은 문장 삽입 두 문항으로 유지되고, 3점은 39번 한 자리에 붙어요.	중
40번	요약문	수능 40번도 요약문 한 문장·빈칸 (A)(B) 형식 그대로이고, 배점은 2점이에요.	중
41~42번	장문 독해 I	수능에서도 41·42번은 한 지문에 제목(41)과 밑줄 어휘 오류(42)가 붙는 세트로 유지되고, 3점은 세트 안 한 문항에 붙어요.	중
43~45번	장문 독해 II	수능 43~45번도 한 서사 지문에 순서(43)·지칭(44)·내용 불일치(45)를 묶는 장문 세트 그대로이고, 세 문항 모두 2점이에요.	상

06 · READING LOAD 라인

학년도 추이

2027학년도 9월 독해 지문(20지문 수집 회차 기준)은 합계 3609어예요 — 독해 45분 기준 분당 80어를 읽어야 해요. 같은 기준 2016학년도 9월(3160어)보다 449어 많아요.

축 절단 · 2,600~



→ 독해의 분당 어수 예산을 알고 있어야 해요 — 시간이 밀리는 유형을 미리 정해 두고 배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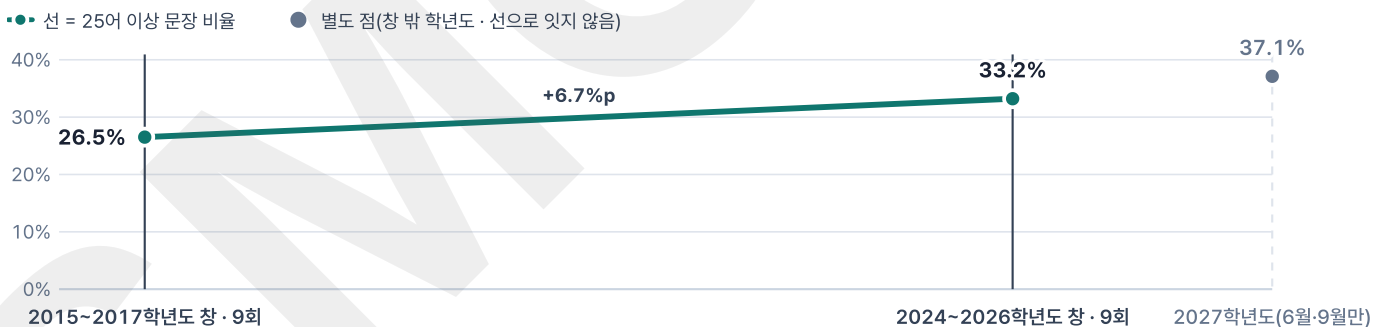
n=32 2015~2027학년도 38회 중 정본 32회 출처 기출 코퍼스 축 절단(2,600~) 미수집 ≠ 없음

18·19·25·27·28번은 코퍼스 수집 규칙상 부재(2019학년도 이후 배치 기준 — 목적·심경·도표·안내문 자리) — 「미수집」이지 「없음」이 아니예요. 합계는 수집된 20지문의 본문 단어 수를 더한 값이에요(미수집 5문항 제외, 선지 단어 수는 넣지 않아요). · 2015~2018학년도는 구배치라 19·25·27·28번 수집분이 있어요 — 합계는 그 회차에 실제 수집된 지문으로 썼어요. · 정본은 지문 20개가 모두 수집된 회차(n=32)예요. 지문이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 수집 회차 6회(2015학년도 9월(19지문)·2016학년도 6월(19지문)·2017학년도 9월(19지문)·2018학년도 6월(21지문)·2019학년도 6월(18지문))은 점선으로 따로 그리고 헤드라인·n에서 뺐어요. · 분당 어수 = 합계 ÷ 45분(독해 45분 가정).

07 · SENTENCE COMPLEXITY 슬로프

기간 변화

25어 이상 문장 비율은 2015~2017학년도 창(9회) 26.5%(314/1187)에서 2024~2026학년도 창(9회) 33.2%(394/1185)로 늘었고, 차이(z=3.6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2027학년도(6월·9월만)은 37.1%(101/272)로 따로 적어요. 문장당 평균 어수는 창 기준 19.8어→21.9어예요.



→ 긴 문장 비율이 늘고 있어요 — 문장 하나를 주어·동사 단위로 끊어 읽는 훈련이 독해 시간을 지켜요.

n=678 2015~2027학년도 출처 기출 코퍼스 y축 0 기점

카드의 n=678은 지문 수예요. 헤드라인 비율의 분모 1187·1185·272은 문장 수(창별 합산)예요 — 지문 수가 아니예요. · 장문(41~45번)을 뺐 지문 중 문장이 3개 이상인 지문만 썼어요. 문장은 마침표·물음표·느낌표 뒤에 대문자(또는 따옴표·괄호)로 새 문장이 시작하는 자리에서 나눴어요. · 학년도 = 수능·6월·9월 합산. 「25어 이상」 = 한 문장의 어수 ≥ 25(25 포함). · 앞·뒤 비교는 한 회차가 아니라 세 학년도 묶음(창)끼리 했어요 — 2015~2017학년도 창(9회) vs 2024~2026학년도 창(9회). 한 회차만 골라 비교할 때 생기는 끝점 효과를 빼기 위해서예요. 창 밖 학년도(2027학년도(6월·9월만))는 회차가 모자라 따로 점으로 표기했어요.

ANSWER-KEY RECORD

검산용 정답 번호 기록표

기록이지 근거가 아니에요

유형 챗터에서 뺀 정답 번호 분포를 한 곳에 모았어요 — 채점 뒤 답을 밀려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검산용이지, 어느 번호가 많았는지는 다음 시험의 정답과 아무 관계가 없고 문제를 풀 때의 판단 근거로 쓰지 않아요. 수치는 코드가 기출 코퍼스에서 직접 센 값이고, 회색 행은 구포맷 참고 기록이에요.

㉠~㉡ 정답 번호 건수

유형	기록 구간	n	㉠	㉡	㉢	㉣	㉤
내용 일치 26번	정답 번호(2015학년도~)	42	0	6	9	13	14
내용 일치 26번	정답 번호(2020학년도~)	23	0	4	8	3	8
어휘 30번	정답 번호(2015학년도~)	40	1	5	3	16	15
어휘 30번	정답 번호(2020학년도~)	23	0	1	2	11	9
무관한 문장 35번	정답 번호(2015학년도~)	40	0	3	16	21	0
무관한 문장 35번	2015~19학년도	17	0	3	7	7	0
무관한 문장 35번	2020학년도 이후	23	0	0	9	14	0
무관한 문장 35번	2014학년도까지(구포맷 참고)	29	0	5	10	13	1
문장 삽입 38~39번	2015~19학년도	29	1	3	8	9	8
문장 삽입 38~39번	2020학년도 이후	46	0	5	12	15	14
문장 삽입 38~39번	38번(2019학년도~)	26	1	3	5	9	8
문장 삽입 38~39번	39번(2019학년도~)	26	0	2	9	7	8
장문 독해 I 41~42번	41번 제목 정답(2015학년도~)	38	14	8	9	1	6
장문 독해 I 41~42번	42번 빈칸 정답(2015~18학년도)	12	8	2	0	1	1
장문 독해 I 41~42번	42번 어휘 정답(2019학년도~)	26	0	3	6	7	10
장문 독해 II 43~45번	44번 지칭 정답	38	2	10	9	5	12
장문 독해 II 43~45번	45번 내용일치 정답	38	0	8	9	12	9

글의 순서 정답 배열 건수 — 배열 자체가 선지이므로 번호 분포와 같은 성격의 기록이에요

유형	기록 구간	n	A-B-C	A-C-B	B-A-C	B-C-A	C-A-B	C-B-A
글의 순서 36~37번	2015~19학년도	29	0	1	12	5	6	5
글의 순서 36~37번	2020학년도 이후	46	0	2	10	8	11	15

유형	기록 구간	n	B-C-D	B-D-C	C-B-D	C-D-B	D-B-C	D-C-B
장문 독해 II 43번	43번 4단락(2015~19학년도)	15	0	0	6	3	2	4
장문 독해 II 43번	43번 4단락(2020학년도 이후)	23	0	0	4	7	3	9
장문 독해 II 43~45번	43번 순서 정답 패턴	38	0	0	10	10	5	13

n = 문항(세트) 수(구배치 2015~2018학년도엔 같은 유형 문항이 둘인 회차가 있어 n 이 회차 수를 넘을 수 있어요) · 기간은 학년도 · 「미수집 ≠ 없음」

01 주장 20번

Writer's Claim · 1 item

필자가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당위(~해야 한다)를 고르는 문항이에요. 독해 28문항의 첫 자리라 워밍업 성격이 강하고, 지문의 배경·통념이 아니라 「필자가 하라고 한 것」만 남기는 훈련을 묻는 자리예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은 지문의 당위 표지(must-essential-not sufficient-if ~ understand) 문장을 한국어로 압축한 선지이고, 오답은 지문 핵심어나 낱말을 재활용하되 대상·수단·방향을 비틀어 놓은 선지로 설계돼요.

DNA 02 자리·분량 DNA

- 20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주장 유형이었어요 — 자리는 사실상 고정이에요 **총론 카드 04**
- 주장 유형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34.3%(12/35)로 무작위 기대 20%보다 높았지만 유형 특성으로만 참고하고,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경우는 11.4%(4/35)였어요 **카드 01**
- 최근 평균 141어로 독해 세트에서 짧은 축이고, 2027학년도는 131어(6월)·140어(9월)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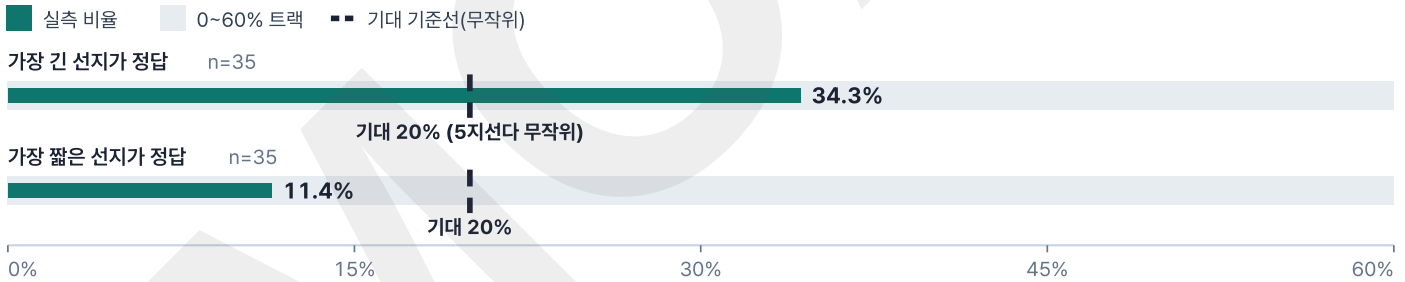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주장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오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MYTH CHECK **기준선 막대**

기대치 대조

주장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34.3%(12/35)**로 무작위 기대 **20%**보다 높고, 차이($z=2.11$, $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 다만 유형 특성으로만 참고해요.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11.4%(4/35)**예요.



→ 이 유형은 긴 선지가 정답인 경우가 잦지만(n=35) 유형 특성으로만 참고하세요 — 논지·방향으로 판단해요.

n=35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02 · SLOT MAP **타일 x2**

총론 카드 발췌 · 이 캡터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0번은 **26회 중 26회** 주장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20번 0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에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총론 카드 04 발췌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고정도
20	주장																										100%	

최빈 유형과 같음

다른 유형(표기)

미수집

3점 자리 · 2015학년도~ · 총론 카드 02 발췌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3점 횟수			
20	2점																																			0회				
3점 문항		2점(수집 문항)			미상(그 외차 미수집)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26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6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난이도 ★=쉬움 ~ ★★★★★=최상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도자는 활동을 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참여자가 활동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글이에요.

Instructors of physical activities often focus more on the activities themselves^① than on the participants who perform them^②. People may believe that training our bodies is unrelated to training our minds. However, participants' minds determine their attitudes and level of effort toward physical development. In usual practice, instructors may just tell their participants to exercise regularly, warm up before exercising, or use a particular strategy.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for instructors^③ to expect participants to blindly follow their directions in physical activities. Instructors must raise participants' awareness^④ of how these activities enhance their physical performance. For example, an instructor could explicitly explain how warming up before exercising improves their performances. If participant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se activities, it enables them to gradually take fuller ownership of their own development.

- ① 통념 — 지도자 눈이 활동에만 가 있어요
 ② 여기서 ㉠ '개인 맞춤'으로 새기 쉬워요
 ③ 두 번째 역접 — 지시만으론 부족하대요
 ④ must 문장이 곧 정답 ㉠이에요

- ✕ ① 체육 교육은 학습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이론보다 실습을 강조해야 한다.
 ↳ 지문은 지시대로 따르게 하는 것(blindly follow)이 불충분하다며 원리 이해를 요구해요 — 실습 우선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 ② 체육 활동은 참여자의 적성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development'가 '개발'로 옮겨져 눈에 걸리지만, 적성 발굴은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 ✓ ③ 체육 지도자는 참여자가 체육 활동의 원리를 알고 훈련하도록 도와야 한다.
 ↳ 'Instructors must raise participants' awareness'와 'If participants understand the principles'를 한 문장으로 합친 선지예요.
- ④ 체육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gradually'에서 '단계적'을 연상시키지만, 편의·계획은 지문의 논점이 아니에요.
- ✕ ⑤ 체육 수업은 각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 첫 문장의 '활동보다 참여자'를 '개인 맞춤 활동'으로 비약한 선지예요 — 필자가 요구한 건 맞춤이 아니라 원리 인식이에요.

설계 의도 통념(몸 훈련≠마음 훈련) → However → 관행(지시만) → However → must 문장의 2단 역접 구조예요. 두 번째 However 뒤만 정확히 읽는지, must 문장을 '원리 이해'로 환언할 수 있는지를 봐요.

합정 포인트 오답 두 개가 지문 소재(체육·참여자)를 그대로 쓰면서 방향을 바꿔요 — 실습 우선은 반대 방향, 개인 맞춤은 첫 문장의 비약이에요. '필자가 하라고 한 것'만 남기면 걸러져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20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 ① **매력 오답** — 지문은 지시대로 따르게 하는 것(blindly follow)이 불충분하다며 원리 이해를 요구해요 — 실습 우선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 ② **소거** — 'development'가 '개발'로 옮겨져 눈에 걸리지만, 적성 발굴은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 ✓ ③ **정답** — 'Instructors must raise participants' awareness'와 'If participants understand the principles'를 한 문장으로 합친 선지예요.
- ④ **소거** — 'gradually'에서 '단계적'을 연상시키지만, 편의·계획은 지문의 논점이 아니에요.
- ✕ ⑤ **매력 오답** — 첫 문장의 '활동보다 참여자'를 '개인 맞춤 활동'으로 비약한 선지예요 — 필자가 요구한 건 맞춤이 아니라 원리 인식이에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술 변화의 시대에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니 이를 강화하고 우선시해야 한다는 글이에요.

Current social changes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demand a fundamental rethinking^① in our approach to education. In particular, lifelong learning is no longer optional; it is essential^②. We must recognize that the rapidly evolving socioeconomic ecology requires individuals to engage in constant upskilling and self-transformation. If we can enhance lifelong learning initiatives, we will not only promote personal growth and well-being but also sustain national productivi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Furthermore, our efforts will support social integr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to connect and move on together. Investing in lifelong education^③ thus is not simply an extra expense; we must consider it a necessity for survival and success as we encount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years ahead. By prioritizing lifelong education^④, we will be able to navigate this changing world with confidence and a sense of fulfillment.

- ① 첫 문장부터 demand — 당위로 문을 열어요
 ② essential 한 방 — 정답 ①의 뿌리예요
 ③ ① '투자 인식' 유인 — 여긴 비유예요
 ④ 끝도 우선시하라 — 당위가 겹겹이에요

✓ 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lifelong learning is no longer optional; it is essential'과 'enhance lifelong learning initiatives'를 '변화 대응+강화'로 옮겼어요.

- ②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 '미래 사회'는 'changes in the years ahead'와 달리만 융합 교육은 지문에 없어요.

✗ ③ 경제 교육을 강화하여 투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 'Investing in lifelong education'의 investing을 '투자 교육'으로 바꿔 읽게 해요 — 지문의 투자는 비유이지 교육 내용이 아니에요.

- ④ 기술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습득을 장려해야 한다.

↳ 'technological advancements'는 변화의 원인이지만 목표가 아니고, 특정 분야 한정된 upskilling의 폭넓은 취지와 어긋나요.

✗ ⑤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핵심어 '평생교육'과 'social integration'을 공유하지만 기관 설립이라는 수단은 지문에 없어요 — 핵심어 공유형 오답이에요.

설계 의도 첫 문장부터 demand로 당위를 열고 must-essential-necessity를 겹쳐 놓아 주장 문장 찾기는 쉬워요. 대신 핵심어 '평생교육'을 오답에도 심어, 수단(기관 설립)까지 지문과 맞는지 확인하는지를 봐요.

합정 포인트 핵심어 공유형과 어휘 재활용형이 하나씩이에요. '평생교육'이 보이는 선지가 둘이라 키워드만 맞추면 갈리고, '무엇을 하라'까지 대조해야 끝나요.

6월→9월 소재가 체육 지도(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회 정책)으로 옮겨갔고 어수는 131→140어예요. 당위 표지가 6월 must 1회에서 9월 must 2회 +essential-necessity로 겹쳐져 정답 문장 찾기가 더 직접적이에요. 대신 정답 핵심어를 오답에도 심는 핵심어 공유형이 등장해 '무엇을 하라'까지 대조해야 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배경·통념 → 전환 → 당위」 구조를 지켰지만 당위의 노출 강도가 달라요. 6월은 must 문장이 한 번뿐이고 정답 선지가 그것을 「원리를 알고 훈련하도록 도와야」로 바꿔 써서 한 단계 환언이 필요했어요 — 6월 20번은 이의신청 대상 12문항 목록에 들었지만 「이상 없음」으로 끝났어요. 9월은 must-essential-necessity가 겹겹이 나오고 정답 선지가 핵심어 '평생교육'을 그대로 써서 도출이 직접적이에요. 대신 오답이 그 핵심어를 공유하며(기관 설립) 수단을 바꿔 붙고, 지문 낱말 하나(investing)를 다른 뜻으로 옮긴 선지가 따라와요. 출제진은 20번을 변별 지렛대로 쓰지 않고 「소재 일치 선지에 끌리는 습관」을 걸러내는 품질 관리 자리로 유지하고 있어요 — 9월 대성 총평의 「대의 파악(18~24) 쉬움」과도 맞아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20번도 「필자가 주장하는 바」 발문의 주장 유형 그대로예요 — 신유형이나 자리 이동은 없어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20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주장이었고, 9월 출제본부도 「기존 문항 유형과 배점 체계를 그대로 유지」라고 밝혔어요.

P2 정답 근거는 전환(However-In particular) 뒤에 오는 명시적 당위 표지(must-essential-not sufficient) 문장에 집중되고, 첫 문장의 통념은 근거가 아니예요.

근거 6월 실물은 두 번째 However 뒤 'Instructors must raise ~', 9월 실물은 'it is essential'·'we must consider it a necessity'가 정답 문장이었어요.

P3 매력 오답은 정답 핵심어를 그대로 쓰되 수단·대상을 바꾼 「핵심어 공유형」과, 지문 낱말 하나를 다른 뜻으로 옮긴 「어휘 재활용형」이 각 1개씩 나와요.

근거 6월 실물의 「이론보다 실습」(방향 반전)·「개인 맞춤」(첫 문장 비약), 9월 실물의 「평생교육 기관 설립」·「투자 인식」이 이 두 계열이었어요.

P4 소재는 교육 계열(6월 체육 지도·9월 평생교육)이 두 번 연속이라 수능은 다른 인문·사회 소재로 옮길 공산이 크고, 어수는 130~140어대를 유지해요.

근거 6월 131어·9월 140어였고, 9월 출제본부는 내용 영역을 인문/사회/자연/예술/문학 균형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어요.

수험 전략 지문이 130~140어라 1분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예요. 첫 문장의 통념·배경 서술에 밑줄을 긋지 말고 However·must-essential 같은 전환·당위 표지가 나오는 문장에만 표시한 뒤 선지와 1:1로 대조해요. 6월처럼 지문 첫 문장(참여자 중심)을 비약한 오답, 9월처럼 정답 핵심어(평생교육)를 공유하는 오답이 함께 나올 수 있으니 「필자가 하라고 한 것」과 「필자가 언급만 한 것」을 구분해요.

02 함축 의미

21번

Implied Meaning · 1 item

밑줄 친 비유·관용 표현이 그 글의 논지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고르는 문항이에요. 글자 뜻이 아니라 글 전체의 주장으로 되돌려 번역하는 게 과업이라, 대의 파악 구간(18~24번)에서 유일하게 변별 문항으로 거듭 지목되는 자리예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은 밑줄 친 비유를 논지의 언어로 풀어 쓴 영어 선지예요. 오답은 두 계열이에요 — 지문의 다른 문장 어휘를 그대로 가져와 방향(지지/포기)이나 층위(과정/결과)를 비튼 재할용형, 그리고 밑줄 친 관용적 뜻(포기하다·비추다)만 옮긴 직역형이에요.

DNA 02 자리·분량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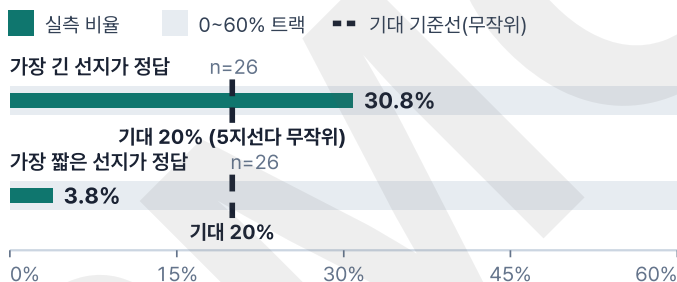
- 21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96.2%)가 함축 의미였어요 — 예외 1회는 2019학년도 6월의 한 어긋난 구배치예요 **총론 카드 04**
-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30.8%(8/26)로 무작위 기대 20%와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 선지 길이는 근거가 아니예요 (표본 26건 — 참고) **카드 01**
- 정답 선지는 지문 단어를 30.2%, 오답 선지는 28.8% 재사용해요 — 차이 1.4%p로 '차이 없음'이라 지문 단어가 보이는지로는 못 갈라요 (표본 26건 — 참고) **카드 02**

STATISTICS 숫자로 보는 함축 의미

01 · MYTH CHECK **기준선 막대**

기대치 대조

함축 의미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30.8%(8/26)**로 무작위 기대 **20%**와 견줘 차이($z=1.37, p=0.1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3.8%(1/26)**예요. (표본 26건 — 참고용)



→ 선지 길이와 정답은 차이 없음이에요 — 길이는 보지 말고 지문 논지와 방향으로 판단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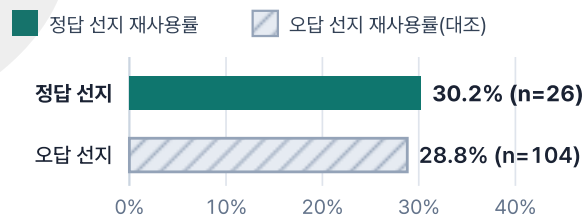
n=26 2019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참고 · n<30**

02 · VOCABULARY REUSE **쌍 가로 막대**

정답 vs 오답

함축 의미 정답 선지(26건)는 지문 단어를 **30.2%** 재사용하고, 오답 선지(104건)는 **28.8%** 재사용해요 — 차이 **1.4%p**로 '차이 없음'이에요. 지문 단어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방향(긍정/부정·범위)으로 갈라야 해요. (표본 26건 — 참고용)



→ 지문 단어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정답도 오답도 아니예요 — 겹치는 단어보다 방향(긍정·부정)과 범위가 지문과 같은지를 확인해요.

n=26 2019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참고 · n<30**

03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함축 의미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26건 중앙값 164어**(가운데 절반 **157.3~174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26 이 유형 지문 26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참고 · n<30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21 밑줄 친 the gho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의식은 인간만의 것이라는 오랜 믿음을 이제 놓아줄 때가 됐다는 동물 의식 연구사 이야기예요.

In fact, scientists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is so recent^① that the internet is older. In 1976 a zoologist named Donald Griffin published *The Question of Animal Awareness*, a book arguing that animal cognition ought to be taken seriously. He and a colleague had been responsible in 1944 for discovering that bats navigate by echolocation. Now, after a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he became convinced they had inner worlds^②. They had flexible behavior, he said, or the ability to change their behavior as external circumstances changed, a hallmark of true intelligence. He'd watched bats develop clever techniques for finding food; they could clearly make decisions on the fly, and exhibited many of the same problem-solving abilities as humans did^③. Animal thought and reason ought to be seriously studied, he argued. After all, despite the flourishing of neuroscience, no one had yet found any part of the brain unique to humans^④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is hallowed "consciousness." Wasn't it time to give up the ghost?

- ① 동물에게 의식을 준 건 인터넷보다 최근이래요
- ② 여기서 그리핀이 박쥐의 내면 세계를 확신해요
- ③ 여기에 끌리면 ㉠·㉡로 새로 — 우열·동일함 얘기가 아니에요
- ④ ghost의 정체가 여기예요 — 인간에게만 있다는 의식이에요

- ① the claim that animal consciousness should be studied
↳ 'studied'를 지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연구 측구는 그리핀 자신의 주장이라 '포기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 방향이 정반대예요.
- ✓ ② the belief that consciousness is a quality exclusive to humans
↳ 'give up the ghost'의 ghost는 직전 문장의 'unique to humans'한 의식이에요. 인간 전유물이라는 믿음을 이제 버리자는 뜻이에요.
- ✗ ③ the illusion that animals possess truly conscious inner worlds
↳ 'inner worlds'가 지문 축자예요. 그런데 지문은 박쥐에게 내면 세계가 있다고 확신했으니 '착각'이라 부르는 순간 뒤집혀요.
- ✗ ④ the idea that human cognition is superior to that of animals
↳ 논지를 대강 잡은 학생이 고르는 근접 오답이에요. 지문은 '인간이 더 낫다'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있다'는 전제를 문제 삼아요 — 범위가 어긋나요.
- ⑤ the concept that humans and animals are essentially alike
↳ 박쥐가 인간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는 대목에서 연상돼요. 하지만 이걸 버릴 개념이 아니라 그리핀이 지지한 쪽이에요.

설계 의도 밑줄이 마지막 문장의 수사적문문에 있고, 근거는 바로 앞 문장의 'unique to humans'예요. 관용구 give up the ghost를 글자 뜻(포기)과 문맥 뜻(인간 고유 의식)으로 겹쳐 놓아 직역을 걸러내는 설계예요.

합정 포인트 ㉠④가 강해요. ㉡은 'inner worlds' 축자 재활용이지만 방향이 뒤집혔고, ㉢은 '인간만의 것(exclusive)'을 '인간이 더 낫다(superior)'로 바꾼 범위 이탈이에요. 강사 집계 오답률 66.2%(집계 기관 비공개)였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21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소거 — 'studied'를 지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연구 측구는 그리핀 자신의 주장이라 '포기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 방향이 정반대예요.
- ✓ ② 정답 — 'give up the ghost'의 ghost는 직전 문장의 'unique to humans'한 의식이에요. 인간 전유물이라는 믿음을 이제 버리자는 뜻이에요.
- ✗ ③ 매력 오답 — 'inner worlds'가 지문 축자예요. 그런데 지문은 박쥐에게 내면 세계가 있다고 확신했으니 '착각'이라 부르는 순간 뒤집혀요.
- ✗ ④ 매력 오답 — 논지를 대강 잡은 학생이 고르는 근접 오답이에요.
- ⑤ 소거 — 박쥐가 인간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는 대목에서 연상돼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1 밑줄 친 holding a mirror up to societ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자동완성 제안은 수백만 검색이 남긴 공통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알고리즘 이야기예요.

Social media companies are working to keep you on site or attempting to deliver results useful to you. You can see this personalization reflected in the results of search engines ^①, which try to maximize relevance: searching for “bakery” in New York should return different results than searching in Paris. Features like the little predictive-text cues of autocomplete also look to maximize relevance by suggesting refinements: typing in “cats” might prompt the user with “cats movie” or “cats that don’t shed.” Autocomplete suggestions offer a look into the algorithm’s understanding of accumulated user behavior ^② — an immensely important part of how key social media algorithms work. The outputs are personalized, but the data sets are massive, and the platforms are mining for similarities across vast quantities of user information ^③. If a whole lot of users near you or similar to you complete the search that you’ve begun with specific words, the autocomplete algorithm takes that into account and may be more likely to suggest them to you. Since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data related to millions of searches, autocomplete is, in a sense, holding a mirror up to society.

- ① 출발은 개인화 — 뉴욕과 파리의 결과가 달라져요
 ② 자동완성은 쌓인 사용자 행동을 들여다보는 창이에요
 ③ 거울의 정체 — 사용자들의 공통점을 캐내는 일이에요

- ① manipulating search results in favor of the socially influential
 ↳ 'socially'가 밑줄친 society와 겹쳐요. 하지만 지문의 목표는 관련성 극대화이지, 영향력 있는 쪽으로 결과를 조작한다는 말은 없어요.
- ✓ ② revealing commonalities in users and their shared interests
 ↳ 'mining for similarities'와 '주변·유사 사용자가 완성한 검색을 반영'을 합치면 사용자들의 공통점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 ③ censoring personal data utilizing social media algorithms
 ↳ 'social media algorithms'를 지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검열이라는 개념은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 ✗ ④ collecting information useful for building user networks
 ↳ 'user information'·'accumulated user behavior'가 축자로 겹쳐 안전해 보여요. 하지만 거울은 비추는 것이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 ✗ ⑤ examining apparently random data to find regularity
 ↳ 'similarities'를 regularity로 바꿔 놓아 가장 강해요. 다만 지문의 데이터는 무작위가 아니라 축적된 실제 행동이라 전제가 어긋나요.

설계 의도 밑줄 친 두 문장(유사성 채굴·유사 사용자 반영)을 하나로 묶어야 답이 나와요. 거울이라는 관용적 비유를 '사회의 공통 관심'으로 환산시키되, 데이터 처리 과정(㉔)과 그 결과(㉕)를 구분하는 설계예요.

함정 포인트 ㉔㉕가 지문 어휘 재활용형이에요. ㉔는 '유사성 찾기'라는 과정을, 밑줄친 '사회를 비추다'는 결과를 말해요 — 과정과 결과의 층위 차이가 정답을 갈라요.

6월→9월 168어→189어로 늘고 소재가 과학사(동물·의식)에서 기술·사회(검색 알고리즘)로 옮겨갔어요. 6월은 '무엇을 버리나'를 물어 방향 반전형 오답을 깔았다면, 9월은 과정·결과 층위를 비튼 재활용형 둘로 좁혔어요. 두 회차 모두 3점이고, 9월은 EBS가 당일 변별 문항으로 지목했어요(채점 전).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밑줄친 마지막 문장에 두고, 그 문장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근거를 바로 앞 1~2문장에 심었어요. 밑줄친 둘 다 영어 관용구(give up the ghost·hold a mirror up to)를 빌려 와 지문 맥락으로 재의미화한 것이라, 관용적 뜻만 옮긴 직역으로는 선지가 안 잡혀요. 오답 설계는 한 원칙이에요 — 지문 어휘를 그대로 재활용하되 6월은 방향(지시→포기)을, 9월은 층위(과정→결과)를 비틀었어요. 기출 통계 카드의 '지문 단어 재사용률 차이 없음'이 실물에서 그대로 확인돼요. 정답 선지도 6월 'consciousness', 9월 'users'처럼 지문 단어를 썼거든요. 6월은 강사 집계 오답률 66.2%(집계 기관 비공개), 9월은 EBS 당일 변별 지목(채점 전)으로, 21번이 대의 구간의 변별 자리라는 점이 두 회차 연속 확인됐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에서도 21번은 함축 의미 자리로 유지되고, 배점은 6월·9월처럼 3점이 붙는 쪽을 기본으로 봐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21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 함축 의미였고, 2027학년도 6월·9월 모두 21번이 3점이었어요.

P2 밑줄은 마지막 문장에 놓고, 정답 근거는 밑줄 문장이 아니라 바로 앞 1~2문장에 있어요.

근거 6월 실물은 직전 문장의 'unique to humans', 9월 실물은 앞 두 문장의 'mining for similarities'·'users similar to you'가 근거였어요.

P3 밑줄은 영어 관용구를 지문 맥락으로 재의미화한 비유라, 관용적 뜻만 옮긴 직역 선지로는 풀리지 않아요.

근거 6월 give up the ghost(포기하다), 9월 hold a mirror up to(비추다) 모두 글자 뜻이 아니라 앞 문장의 논지로 환산해야 했어요.

P4 매력 오답은 지문 어휘를 그대로 재활용하되 방향(지지/포기)이나 층위(과정/결과)를 비튼 선지 1~2개예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의 재사용률은 정답 30.2%·오답 28.8%로 차이 없음이고, 6월·9월 실물의 강한 오답도 전부 지문 어휘 재활용형이었어요.

P5 선지 5개는 같은 문법 틀로 통일되고 길이 차는 4어 이내라, 길이로는 정답이 걸리지 않아요.

근거 6월은 「the N that ~」 명사구 5개(8~11어), 9월은 동명사구 5개(7~9어)였고, 카드의 최장 선지 정답률 30.8%는 기대 20%와 구분되지 않아요.

수험 전략 21번은 대의 구간에서 유일하게 3점·변별 문항으로 거듭 지목되는 자리예요. 밑줄 문장부터 읽지 말고 바로 앞 1~2문장에서 「필자가 실제로 주장한 명제」를 한 줄로 적은 뒤, 그 명제와 방향·층위가 같은 선지만 남기세요. 지문 단어가 보이는 선지를 반사적으로 고르지 말고, 관용구는 글자 뜻을 버리세요.

03 요지

22번

Main Idea · 1 item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핵심 명제를 한국어 평서문 선지에서 고르는 문항이에요. 20번(주장)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묻는다면 22번은 '~이다'라는 사실·일반화 명제를 물어요. 대의 파악 구간(18~24번)의 한가운데 자리예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은 지문 후반의 결론·일반화 문장을 한국어 명제로 옮긴 선지예요 — 그 문장이 보도 인용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답은 지문 낱말을 재활용하되 세부 수단·수치를 요지로 격상하거나, 정답 명제에서 원인 변수를 빼거나 인과를 뒤집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선지 길이는 단서가 아니예요 **카드 01**

DNA 02 자리·분량 DNA

- 22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가 요지였고, 예외는 2019학년도 6월 구배치의 주제 1회뿐이에요 — 고정도 96.2%예요 **총론 카드 04**
- 요지 36문항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16.7%(6/36)로 무작위 기대 20%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요 — 선지 길이는 단서가 아니예요 **카드 01**
- 3점이 가장 자주 붙은 자리는 34번(34회)·33번(32회)·37·42번(각 28회)이고 22번은 그 목록에 없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는 아니예요 **총론 카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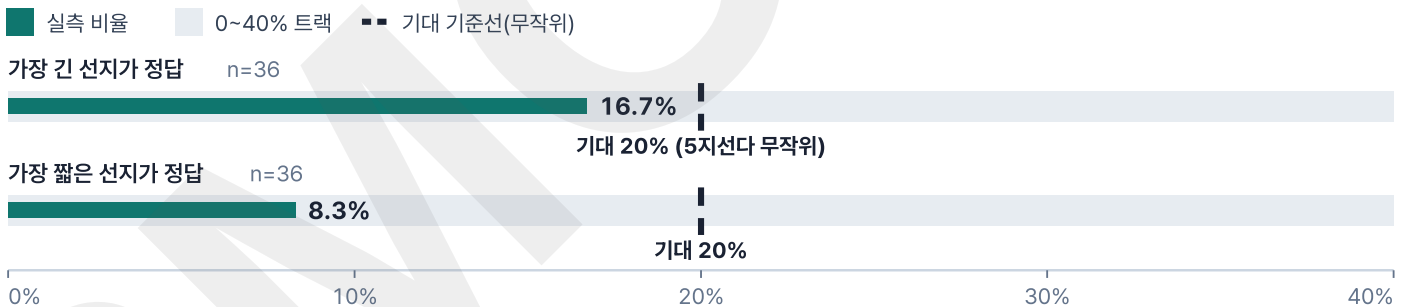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요지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구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MYTH CHECK **기준선 막대**

기대치 대조

요지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16.7%(6/36)**로 무작위 기대 **20%**와 견줘 차이($z=-0.5$, $p=0.6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8.3%(3/36)**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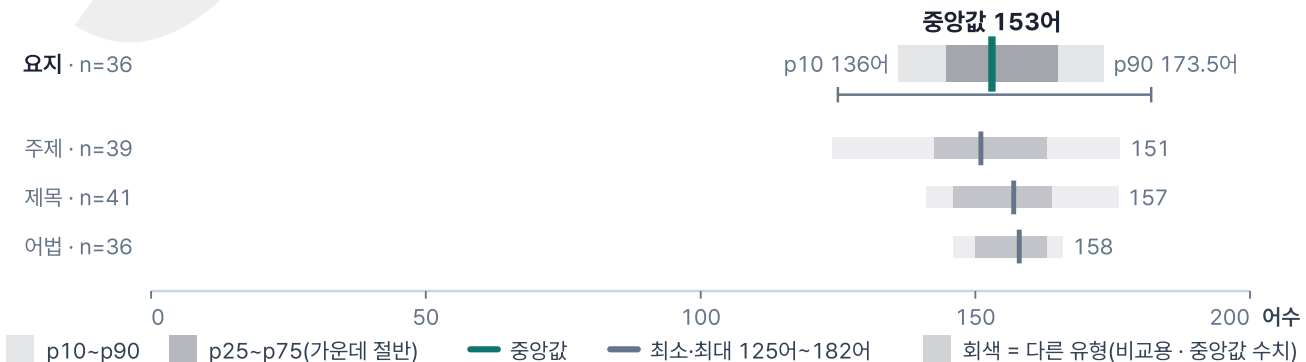
→ 선지 길이와 정답은 차이 없음이에요 — 길이는 보지 말고 지문 논지와 방향으로 판단해요.

n=36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02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요지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36건** 중앙값 **153어**(가운데 절반 **144.8~165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균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36 이 유형 지문 36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성난 얼굴의 자동차가 소비자 감정에 맞아 잘 팔린다는 것을 보도 인용으로 엮은 마케팅 글이에요.

Car manufacturers know people form emotional attachments to automobile 'faces' and use the fact to guide their design and marketing efforts^①. "In today's hyper-competitive car market, designers are focusing on faces as part of a broader effort to design cars that appeal to buyers — tapping psychologists, anthropologists and other experts in human behavior^②, and even monitoring the brain waves of focus-group participants,"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in a 2006 article entitled 'Why Cars Got Angry.' Automotive research shows "70% of drivers identify and judge vehicles by the headlights and grille," the article reported. In the first years of the twenty-first century^③, the trend was toward angrier, scarier vehicles' faces. The article hypothesized that these faces help drivers feel safer in heavier traffic amidst more oversize SUVs. Reflecting our tumultuous times, the 'scary look' shows no sign of slowing in the new millennium. "Buoyant sales of cars with styling which suggests power or bad temper seem to confirm that customers are happy with this look^④," an international automotive site reported in 2017.

- ① 도입 — 차 얼굴에 붙는 감정을 디자인에 새겨어요
- ② ㉠의 미끼예요 — 수단 나열이지 글의 결론이 아니예요
- ③ 전환 — 21세기 트렌드는 '성난 얼굴'로 가요
- ④ 인용 속 문장이지만 이 한 줄이 곧 요지예요

✓ ①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성난 외관의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 지문 중반 'trend was toward angrier, scarier faces'와 끝 인용 'customers are happy with this look'을 하나로 합친 명제예요.

✗ ② 자동차 판매 증가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 WSJ 인용의 '심리학자·인류학자 동원, 뇌파 측정'을 요지로 격상한 선지예요. 학문적 접근은 수단 설명이지 글의 결론이 아니예요.

✗ ③ 구매자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차를 선택한다.

↳ 첫 문장 'emotional attachments'를 재활용했지만 '이성 vs 감정' 대립은 지문에 없어요. 소비자 심리는 배경이지 명제가 아니예요.

• ④ 자동차의 전면 디자인을 개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 '전면 디자인'만 겹치고 개조 서비스는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 ⑤ 안전감을 원하는 운전자들은 거친 모습의 SUV 차량을 선호하지 않는다.

↳ 지문은 성난 얼굴이 SUV 사이에서 안전감을 준다고 했으니 방향이 정반대예요. 낱말은 겹치지만 바로 걸려져요.

설계 의도 요지가 필자 목소리가 아니라 보도 인용 두 곳(2006년 WSJ·2017년 자동차 매체)에 나뉘어 실려요. '남의 말'로 흘리지 않고 인용 속 명제를 재구성하는지, 70% 같은 세부 수치에 붙잡히지 않는지를 봐요.

함정 포인트 ㉠이 지문 낱말 재활용형이에요. ㉠은 인용 속 '수단'을, ㉡은 첫 문장 '감정'을 결론으로 격상해요. 세부가 아니라 글 전체를 덮는 명제인지로 갈라야 해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앉는 자리가 학습 참여와 기억을 좌우한다는 것을 좌석 바꾸기 실험으로 보여 주는 글이에요.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sit in the front row learn and retain more ^① than others in the audience, partially because those in the front row are more eager to learn, and they show more attention to the speaker in order to avoid being called on. Those in the middle sections are the next most attentive and ask the most questions, as the middle section is considered a safe area, surrounded by others. The side areas and back are the least responsive and attentive. In one experiment we conducted, we placed name cards ^② on participants' seats so they could not take their usual positions. We intentionally sat enthusiastic people to the sides and rear ^③ of the room, and well-known back-row hermits sat in the front. We found that this strategy not only increased the participation and recall of the normally negative participants who sat up front, it also decreased the participation and recall of the usually positive participants ^④ who had been sent to the back.

* hermit: 은둔자

- ① 관찰 — 앞줄일수록 더 배우고 더 기억해요
- ② 반전 — 이름표로 앉는 자리를 강제로 바꿔 봤어요
- ③ 성향과 반대로 앉혔어요 — ①의 인과는 뒤집힌 거예요
- ④ 양방향으로 바뀌었죠 — 원인 변수는 오직 '자리'예요

- ✗ ①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좌석 배정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 좌석 배정 소재를 재활용했지만 실험은 성향과 반대로 앉혀 자리 효과를 증명했어요. '성향 고려'는 인과를 뒤집은 선지이고 업무도 지문에 없어요.
- ✓ ㉔ 앉은 위치가 학습 참여와 배운 내용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
↳ 실험 결론 'increased ... recall of ... who sat up front / decreased ... who had been sent to the back'을 한 줄로 옮긴 명제예요.
- ③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생산적인 토론에 필수적이다.
↳ '참여'만 겹쳐요. 토론은 지문에 없고, 참여는 결과 변수이지 요지의 주어가 아니에요.
- ④ 자유로운 질의응답은 강연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 중간 줄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세부에서 연상하게 하지만 강연 분위기 논의는 없어요.
- ✗ ㉔ 수업 집중도와 기억력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 앞줄이 더 집중하고 더 기억한다는 첫 문장의 한 조각이에요. 그러나 원인 변수인 '앉은 위치'가 빠져 요지가 못 돼요.

설계 의도 연구 결과(위치별 태도) → 자리 강제 실험 → 결과의 3단 구조로, 실험 결론 문장이 곧 요지예요. 상관관계 조각(㉔)과 인과 역전(①)을 정답 끝에 두어 명제의 주어·술어를 둘 다 대조하는지를 봐요.

함정 포인트 ㉔가 정답과 소재축(집중·기억)을 공유해 가장 가까워요. 실험이 조작한 변수는 '자리'이므로 그 변수가 빠진 명제는 요지가 아니에요. ①은 성향과 자리의 인과를 뒤집었어요.

6월→9월 소재가 소비 심리·자동차 디자인(보도 인용)에서 교육 심리·좌석 위치(자체 실험)로 옮겨갔고, 어수는 173→165로 짧아졌어요. 근거 위치는 인용 두 곳에 분산된 6월과 달리 9월은 실험 결론 문장 하나에 모였고, 오답은 세부 격상형에서 변수 누락·인과 역전형으로 정답에 더 바짝 붙었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22번의 정답은 지문 후반에서 '~이다'로 일반화되는 명제였고, 20번 같은 당위 표지는 없었어요. 출제진은 이 자리에서 난이도를 만들지 않아요 — 6월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상위 10문항에도, 9월 당일 고난도 지목(21·33·34·37·39번)에도 22번은 없었고, 대성은 9월 대의 파악(18~24번)을 '쉬움'으로 평했어요(당일 평가, 채점 전). 대신 두 회차가 공통으로 실험한 건 '근거의 형태'예요. 6월은 요지를 보도 인용 두 곳에 나눠 실어 인용을 필자의 명제로 읽는지 물었고, 9월은 실험 결론 한 문장에 모으되 그 명제에서 변수를 뺀 선지(상관관계)와 인과를 뒤집은 선지(성향 배정)를 끝에 붙여 주어·술어 대조를 요구했어요. 오답은 언제나 지문 낱말을 재활용하고, 선지 길이는 기출 통계에서도 단서가 아니었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22번도 요지 유형으로 유지돼요 — 자리 이탈은 구배치 예외 1회를 빼면 없었어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22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 요지였고, 예외는 2019학년도 6월 구배치 1회뿐이에요.**P2 정답 근거는 지문 후반의 결론·일반화 문장이예요 — 6월처럼 보도 인용 안에 실려도 필자의 명제로 읽어야 해요.****근거** 6월 실물은 'trend was toward angrier faces'와 끝 인용 'customers are happy', 9월 실물은 끝 문장 'not only increased ... also decreased'가 근거였어요.**P3 매력 오답은 지문 낱말을 재활용해 세부 수단을 요지로 격상하거나, 정답 명제에서 원인 변수를 빼거나 인과를 뒤집는 근접형이 1~2개 나와요.****근거** 6월은 전문가 동원(수단 격상)·감정 애착(대립 창작), 9월은 집중·기억 상관(위치 변수 누락)·성향 배정(인과 역전)이 그 계열이었어요.**P4 소재는 일상 현상을 연구·실험·보도로 뒷받침하는 사회과학 계열이고, 어수는 160어 안팎이에요.****근거** 6월 실물은 WSJ 보도와 자동차 매체 인용(173어), 9월 실물은 연구 결과와 자체 실험(165어)이었고, 최근 기출 평균은 160어예요.**P5 난도는 평이(★2 안팎)를 유지하되, 정답과 소재·핵심어를 공유하는 근접형 오답이 최소 2개 들어가요.****근거** 6월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상위 10문항과 9월 당일 고난도 지목(21·33·34·37·39번)에 22번은 없었고, 9월 총평은 「매력적인 오답으로 난이도 조절」이었어요.

수험 전략 22번은 1분 안에 처리하는 구간이에요. 지문 후반의 결론·일반화 문장을 찾아 명제를 한 줄로 적고, 선지는 그 명제와 주어(원인 변수)·술어가 둘 다 맞는지로만 거르세요. 인용문 안의 명제도 필자의 요지일 수 있으니 '남의 말'로 흘리지 마세요. 세부 수치·수단·상관관계 한 조각만 담은 선지가 근접 오답이고, 선지 길이는 보지 마세요. 올해는 6월이 어려웠고 9월은 당일 평가로 쉬웠던 만큼 난도 진폭이 큰 시즌이라, 22번이 쉬울 거라는 기대만으로 속도를 과신하면 안 돼요.

04 주제

23번

Topic · 1 item

지문 전체가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영어 명사구 선지 다섯 개 중에서 고르는 문항이에요. 요지(22번)가 필자의 판단 방향을 묻는다면 주제(23번)는 그 판단이 걸쳐 있는 범위를 묻고, 제목(24번)과 달리 비유 없이 평서 명사구로 진술돼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은 지문의 두 축(대조의 양쪽·통념과 진실)을 한 명사구에 다 담고, 오답은 지문 어휘를 그대로 가져오되 한쪽 절반으로 범위를 좁히거나 필자가 부정한 통념 쪽으로 방향을 돌려 설계돼요.

DNA 02 자리·분량 DNA

— 23번 자리는 2019~2027학년도 26회 중 25회(96.2%)가 주제였고, 예외 1회는 2019학년도 6월 구배치에서 제목이 한 칸 앞으로 온 경우예요

총론 카드 04

— 정답이 단독으로 가장 긴 선지인 경우는 39문항 중 7건(17.9%)으로 무작위 기대 20%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요 — 길이로는 못 걸려요

카드 01

— 정답 선지는 지문 단어를 47.6% 재사용하고 오답 선지는 39.7% 재사용해요 — 지문 단어가 보인다는 것만으로 정답을 가르면 안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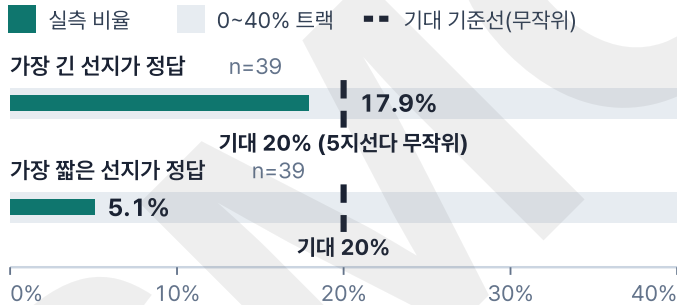
카드 02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주제

01 · MYTH CHECK [기준선 막대]

기대치 대조

주제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17.9%(7/39)**로 무작위 기대 **20%**와 견줘 차이($z=-0.32$, $p=0.7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5.1%(2/39)**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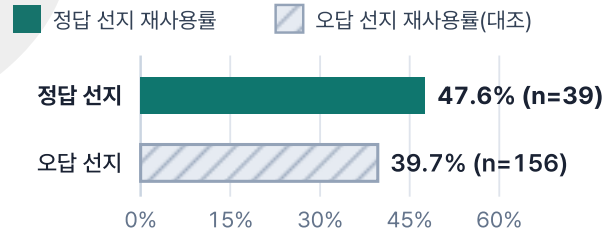
→ 선지 길이와 정답은 차이 없음이에요 — 길이는 보지 말고 지문 논지와 방향으로 판단해요.

n=39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02 · VOCABULARY REUSE [쌍 가로 막대]

정답 vs 오답

주제 정답 선지(39건)는 지문 단어를 **47.6%** 재사용하고, 오답 선지(156건)는 **39.7%** 재사용해요 — 차이는 **7.9%p**예요. 지문 단어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방향(긍정/부정·범위)으로 갈라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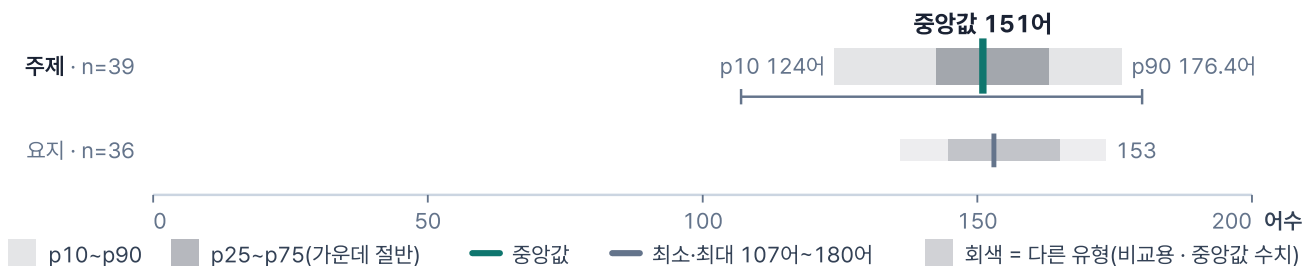
→ 지문 단어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정답도 오답도 아니예요 — 겹치는 단어보다 방향(긍정·부정)과 범위가 지문과 같은지를 확인해요.

n=39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03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주제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39건** 중앙값 **151어**(가운데 절반 **142.5~163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39 이 유형 지문 39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물의 몸집이 수명을 정하고, 수명이 '본능이나 학습이나' 생존 방식을 가르친다는 대조 설명문이에요.

A telescoping of time correlates with size. Small animals' reflexes must be quicker in order to control much smaller limbs and respond to rapid locomotor feedback. Further, decision making must be streamlined in small species^① because their high metabolic rates and minimal energy reserves offer few choices in food-searching activities, defending against predators, or mating behaviors. And, perhaps most important, a short lifetime offers little time for learning from experience. As a result, being short-lived puts a premium on the effectiveness of preprogrammed behavior patterns^② that require little in the way of environmental fine-tuning. Large animals, in comparison, can get by with rather slower reflexes, can afford to vary their mating and food-searching behaviors in an effort to better optimize their behaviors, and may have a considerable opportunity to learn by observation and trial and error^③. Being longer-lived puts a greater premium on learning and memory^④, and less on automatic preprogrammed behaviors. In addition, living a long time or having the capacity to travel for long distances is more likely to expose an animal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environment.

- ① 소형은 반사도 결정도 수명도 다 짧아요
- ② ㉠은 이 소형 쪽 절반만 보고 만든 함정이에요
- ③ 대형은 여유가 있어 배우며 살아요
- ④ 양쪽을 잇는 변수는 몸집 — 그래서 ㉠예요

- ① chances of survival for animals with different time perceptions
↳ 첫 문장 'telescoping of time'을 「시간 지각」으로 읽으면 끌려요. 지문의 시간은 지각이 아니라 수명의 길이예요.
- ✓ ② **significance of animal size in life spans and survival skills**
↳ 몸집(size)→수명(lifetime)→생존 기술(반사·결정·학습)의 사슬을 한 구에 다 담은 유일한 선지예요. 첫 문장의 size-time 축 그대로예요.
- ③ benefits of energy reserves in animals' environmental adaptation
↳ 'minimal energy reserves'는 소형 동물의 제약을 말한 한 구절이에요. 에너지 비축의 이점은 지문 어디에도 없어요.
- ✗ ④ limits of animals'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body size
↳ size-decision making이 지문 어휘 그대로라 끌려요. 하지만 「제한」은 소형 쪽 절반이고, 대형은 오히려 행동을 다양화할 여유가 있어요.
- ✗ ⑤ influences of predetermined behavior patterns on animal survival
↳ 'preprogrammed behavior patterns'를 바꿔 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소형 동물 절반만 덮고, 글의 변수인 몸집이 빠졌어요.

설계 의도 소형과 대형을 'in comparison'으로 맞세운 대조 구조에서, 정답만이 대조의 양쪽을 아우르는 변수(몸집·수명)를 담도록 설계했어요 — 한쪽 절반만 읽고 고르면 걸리게 만든 문항이에요.

함정 포인트 오답 ㉠②③④가 지문 단어를 정답보다 더 많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정답 ㉠은 survival skills·life spans처럼 지문에 없는 말로 바꿔 말해 어휘 일치로 고르면 놓쳐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도파민은 '쾌락 분자'가 아니라 기대·동기·가능성을 여는 분자라는 통념 반박형 설명문이에요.

Popular culture loves to label dopamine as the “pleasure molecule^①,” yet science reveals a richer, more nuanced reality. Dopamine’s true role is found not simply in the thrill of reward, but in the dance of anticipation^②, striving, and imagining what could be. The rush of motivation that energizes you at the start of a new day, the focus that allows you to solve complex problems, and the curiosity that fuels ambition are all orchestrated by dopamine. Dopamine doesn’t give contentment; it delivers possibility^③. It sets the stage for new challenges, frames future goals as attainable, and propels you to ask “What if?” about new opportunities, relationships, or aspirations. The anticipation of a meaningful conversation, the excitement for a fresh project, and even just the temptation of a delicious meal are all sparked by dopamine’s drive for future reward. Critically, dopamine rewards the process, not just the finished result^④. It’s what sharpens focus and fills ordinary moments with potential.

* strive: 노력하다

- ① ㉠은 yet 앞의 통념이에요 — 이미 부정당했죠
- ② 보상의 짜릿함이 아니라 기대·분투예요
- ③ 정답 ㉠은 딱 이 재정의 문장의 바꿔 쓰기예요
- ④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보상해요

- ① limitation of dopamine as a chemical reaction orchestrator
↳ 'orchestrated by dopamine'를 되살리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지문은 도파민의 역할을 넓히지 '한계'를 말하지 않아요.
- × ② impact of dopamine on sparking intense pleasure
↳ 'pleasure molecule'·'sparked'가 그대로 보여 가장 끌려요. 하지만 이걸 yet 앞에서 필자가 부정한 통념이에요.
- × ③ usefulness of dopamine in improving cognitive skills
↳ 'focus that allows you to solve complex problems'·'sharpens focus'를 잡으면 끌려요. 집중은 여러 예 중 하나일 뿐이에요.
- ④ importance of rewards in sustaining motivation
↳ 'rewards'가 겹치지만 주어가 도파민에서 보상으로 바뀌었어요. 지문은 결과 보상보다 과정을 강조해요.
- ✓ ⑤ force of dopamine as a facilitator of realizing possibilities
↳ 'delivers possibility'·'propels you to ask What if?'를 한 구로 옮긴 선지예요. 통념 반박 뒤 재정의 문장 그대로예요.

설계 의도 통념(쾌락 분자)→yet→재정의(가능성) 구조에서, 부정된 통념을 되살린 선지와 예시 하나를 전체로 키운 선지를 나란히 놓아 '역접 뒤 문장을 읽었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이에요.

함정 포인트 함정이 두 계열이에요. 통념 재활용(㉠)은 지문 어휘를 그대로 써서 방향으로, 예시 부분 확대(㉠)은 지문의 한 예(집중)를 전체로 키워 범위로 걸려요. 정답은 재정의 문장의 바꿔 쓰기예요.

6월→9월 구조가 대조(소형 vs 대형)에서 통념 반박(쾌락→가능성)으로 바뀌었고 어수는 180→158로 짧아졌어요. 함정도 '절반만 덮는 범위 축소형'에서 '부정된 통념 재활용형'으로 옮겨 갔어요. 정답은 6월엔 지문에 없는 말로 바꿔 쓴 구였는데 9월엔 재정의 문장의 핵심어(possibility)를 그대로 품은 구라, 핵심어 일치가 정답 쪽으로 돌아왔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23번은 '지문 어휘가 보이는 선지'를 고르는 습관을 걸러내는 자리로 썼어요. 6월은 대조의 한쪽 절반(소형 동물·사전 프로그램 행동)만 담은 선지를, 9월은 역접 앞에서 부정한 통념(쾌락 분자)을 되살린 선지를 매력 오답으로 세웠고, 두 경우 다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정답보다 지문 단어를 더 그대로 써요. 정답은 한결같이 지문의 '축' 문장 — 6월 첫 문장의 size-time 상관, 9월 yet 뒤의 delivers possibility — 를 다른 말로 옮긴 명사구였어요. 난이도는 두 번 다 ★2로 평이했고, 9월 당일 대성 총평(채점 전)도 대의 파악(18~24번)은 쉬웠다고 했어요. 출제진이 이 자리에서 실험한 건 지문 난도가 아니라 '범위'와 '방향' 두 축의 함정 배치예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23번도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에 영어 명사구 선지 다섯 개인 주제 유형 그대로이고 2점 자리예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 기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 주제였고, 2027학년도 6월·9월의 3점 자리는 21·30·33·34·37·39·42번으로 23번은 두 번 다 2점이었어요.

P2 지문은 140~180어대 설명문이고, 정답 근거는 첫 문장(화제 제시)이나 역접 뒤 재정의 문장 한 곳에 놓여요.

근거 기출 통계 기준 최근 5개 학년도 23번은 143~180어였어요. 6월은 첫 문장 'correlates with size', 9월은 yet 뒤 'delivers possibility'가 근거였어요.

P3 매력 오답은 두 계열이에요 — 지문의 한쪽 절반만 덮는 범위 축소형과, 필자가 역접 앞에서 부정한 통념을 되살린 방향 반전형이에요.

근거 6월은 소형 동물 쪽 절반만 담은 선지가, 9월은 「쾌락 분자」 통념을 되살린 선지가 매력 오답이었고, 둘 다 지문 어휘를 그대로 썼어요.

P4 정답 선지는 지문 핵심 문장을 바꿔 쓴 「추상명사 of 핵심어 ...」 명사구로, 지문에 없는 단어를 한두 개 품어요.

근거 6월 정답의 survival skills-life spans, 9월 정답의 facilitator-realizing은 지문에 없는 말이에요. 기출 통계 카드로도 정답의 지문 어휘 재사용률은 47.6%예요.

P5 수능 당일 EBS·입시기관의 고난도 지목에 23번은 들지 않아요 — 변별은 21·33·34·37·39 구간에 맡겨요.

근거 6월 고난도 지목(33·34·36·37·31)과 9월 지목(21·33·34·37·39, 당일 평가·채점 전)에 23번은 없었고, 6월 강사 집계 오답률 상위 10개에도 없었어요.

수험 전략 첫 문장과 역접(yet-however-in comparison) 뒤 문장에 먼저 밑줄을 긋고, 선지는 「지문의 양쪽을 다 덮는가」「필자가 부정한 쪽이 아닌가」 두 질문으로 거르세요. 지문 단어가 그대로 보이는 선지일수록 범위를 다시 재세요 — 어휘 일치는 근거가 아니예요. 독해 예산상 오래 볼들 자리가 아니니 두 질문이 끝나면 넘기세요.

05 제목

24번

Title · 1 item

지문 전체를 표제 한 줄로 압축하는 문항이에요. 주제(23번)와 과업은 같지만 정답이 콜론·대구·비유로 포장돼 해독이 한 겹 더 붙고, 지문의 전환 축 양끝을 모두 담은 선지만 정답이 돼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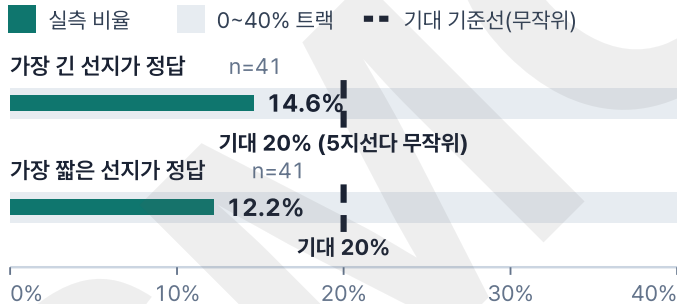
정답은 지문의 전환 축(전엔 A였는데 이제 B)을 명사구로 압축한 선지고, 앞부분이 축·뒷부분이 범주를 말해요. 오답은 지문 어휘를 쓰되 방향을 뒤집거나(Reduced-Failure), 인접 소재로 미끄러뜨리거나(Anti-aging Industry), How-Do 실용·의문 프레임으로 장르를 바꿔요. 정답이 오답보다 지문 단어를 더 재사용하는 유형(50.5% vs 39.6%)이라 단어 겹침이 아니라 방향과 범위로 갈라야 해요.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제목

01 · MYTH CHECK [기준선 막대]

기대치 대조

제목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14.6%(6/41)**로 무작위 기대 **20%**와 견줘 차이($z=-0.86$, $p=0.3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12.2%(5/41)**예요.



→ 선지 길이와 정답은 차이 없음이에요 — 길이는 보지 말고 지문 논지와 방향으로 판단해요.

n=41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DNA 02 자리·분량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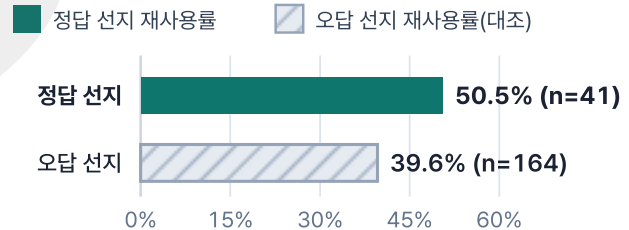
- 24번은 2019학년도 이후 수집된 25회 중 25회 제목이었어요 — 고정도 100%예요 [총론 카드 04]
- 제목 정답 선지(41건)는 지문 단어를 50.5%, 오답 선지(164건)는 39.6% 재사용해요 — 차이 10.9%p로 정답이 오히려 지문 단어를 더 쓰는 유형이에요 [카드 02]
- 24번에 3점이 붙은 건 2015학년도 이후 3점 265건 중 6건이고, 2027학년도 6월·9월의 3점 자리(수집 문항 기준 21·30·33·34·37·39·42번)에 24번은 없었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총론 카드 02]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2 · VOCABULARY REUSE [쌍 가로 막대]

정답 vs 오답

제목 정답 선지(41건)는 지문 단어를 **50.5%** 재사용하고, 오답 선지(164건)는 **39.6%** 재사용해요 — 차이는 **10.9%p**예요. 지문 단어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방향(긍정·부정·범위)으로 갈라야 해요.



→ 지문 단어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정답도 오답도 아니예요 — 겹치는 단어보다 방향(긍정·부정)과 범위가 지문과 같은지를 확인해요.

n=41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03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제목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41건 중앙값 157어**(가운데 절반 **146~164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41 이 유형 지문 41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950년대를 경계로 관광업이 따로 놀던 개별 사업에서 서로 얹힌 통합 사업으로 바뀐 과정을 그리는 글이에요.

Before the 1950s^①, tourism was very much an industry which was fragmented; hotels, transport operators, travel agents, and tour operators all **tended to work independently of each other**. Hotels were largely in the business of selling bed nights. Airlines and railways were in the business of selling seats. Travel agents, of course, were selling travel and holidays, but in each case they tended to operate very much as individual businesses. From the mid-1950s onwards^②, particularly in the UK, **the growth of tour operators^③ began to change the nature of the industry from essentially individual business activities to more integrated activities^④**. Hotels, for example, were beginning to see customers as wanting a range of services rather than simply buying accommodation. So hotels began to develop shopping arcades and later to offer secretarial centres to try to increase the spend of guests within the hotel complex. Transport operators, particularly in the airline business, saw the sale of transport services as being integral to a much wider need. Airlines offered insurance and accommodation booking for travellers.

- ① 전엔 A — 업계가 조각조각 따로 놀던 시절이에요
 ② 이제 B — 여기가 전환점, 제목은 양끝을 다 담아요
 ③ 성장이에요 — ㉠ Reduced 는 방향이 정반대죠
 ④ Separate to Combined 가 통째로 이 한 줄이에요

- ①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Collapsing Tour Resources
 ↳ Collapsing-Bright and Dark Sides 모두 지문에 없어요. 지문은 자원 붕괴가 아니라 사업 방식의 통합을 다루고, 명암을 나누지도 않아요.
- ✓ ② **Separate to Combined: Changes in the Tourism Business**
 ↳ fragmented-independently(전)에서 integrated(후)로 가는 전환의 양끝을 Separate to Combined 로 압축하고, 뒤에 범주(관광업의 변화)를 붙인 유일한 선지예요.
- ✗ ③ **Reduced Roles of Tour Operators in the Tourism Industry**
 ↳ tour operators 가 지문 단어라 끌려요. 그런데 지문에선 이들의 '성장'이 통합을 이끌었으니 Reduced 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 ✗ ④ **Integration's Failure: Not Meeting Customers' Various Needs**
 ↳ integrated-customers-range of services 를 그대로 썼지만 Failure 가 뒤집혔어요. 지문은 통합이 고객의 폭넓은 요구에 맞춘 대응이라고 서술해요.
- ⑤ New Challenges Facing Service Providers in Modern Tourism
 ↳ Service-Tourism 이 지문 단어라 그럴듯하지만 지문은 1950년대 이후의 역사 서술이고 도전·과제(Challenges)는 어디에도 없어요. Modern 도 시점이 어긋나요.

설계 의도 시간 표시(Before the 1950s / From the mid-1950s onwards) 앞뒤를 모두 담아야 정답이 되게 짰어요. 지문 어휘를 쓰되 방향을 뒤집은 선지 둘 (Reduced-Failure)로 단어 겹침 습관을 걸러내는 2점 문항이에요.

함정 포인트 오답 넷이 전부 지문 어휘(Tour Operators-Integration-Customers-Service)를 그대로나 변형으로 써요. 판별은 겹침이 아니라 Reduced-Failure 처럼 지문 방향과 반대인 한 단어에서 나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이의 경계'가 느슨해지며 노화를 둘러싼 통념이 약해지던 흐름을 그리는 글이에요.

The new views about and questions being asked about aging^① could be detected across society. “Something strange is happening in America,” wrote Marj Jackson Levin for the St. Louis Post-Dispatch in 1988, finding that what she called “the former boundaries of age” were being expanded or relaxed in many arenas. Whether it was fortysomething baseball players, midlife women having babies, or the oldest president in the nation’s history, it did indeed appear that the preconceptions surrounding aging were weakening^②. As baby boomers entered midlife, the idea of oldness was being pushed back, and the expectations for what people should or should not be doing at a particular age broadened. Turning fifty had only recently been commonly viewed as the unofficial turning of the corner into one’s senior years, for example, but now that number did not automatically mean^③ one could not start a new career or family. In a good number of cases, at least, age was becoming less significant^④, a clear victory for those lobbying for a less age-centric society.

- ① 첫 문장이 축이예요 — 주어가 나이를 보는 시각이죠
- ② 사례 셋으로 통념이 약해진다고 받쳐요
- ③ recently ... but now — 전후 대조가 여기 다 있어요
- ④ 마지막 줄이 결론 — 나이의 의미가 줄어든 거예요

✓ ① Fading Boundaries: Evolving Views of Aging

↳ boundaries of age...expanded or relaxed 를 Fading Boundaries 로, new views about aging 을 Evolving Views 로 옮겨 두 축을 앞뒤에 담았어요.

✗ ② Forever Young! The Rise of the Anti-aging Industry

↳ Anti-aging 이 소재와 겹쳐 끌려요. 그러나 지문은 나이를 보는 사회의 시각 변화지, 젊음을 파는 산업(Industry)이나 상품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 ③ How Multiple Perspectives Narrow Generation Gaps

↳ Perspectives 가 views 와 겹칠 뿐, 세대 사이의 간극(Generation Gaps)이라는 대립 구도는 지문에 없어요.

· ④ Older and Wiser: What the Elderly Can Teach Us

↳ 노인의 지혜(Wiser-Teach)는 지문에 없어요. 지문은 노인 예찬이 아니라 나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줄어드는 현상을 다뤄요.

✗ ⑤ Do Modern Lifestyles Really Slow Aging?

↳ 'the idea of oldness was being pushed back' 를 노화 자체가 늦춰진 것으로 읽으면 걸려요. 밀린 건 생물학적 노화가 아니라 '늙음'이라는 관념이예요.

설계 의도 1988년 신문 인용으로 변화를 열고 사례 셋으로 받친 뒤 마지막 문장(age less significant)에서 결론을 확인하는 구조예요. 사회 인식의 변화를 생물학적 노화(Anti-aging·Slow Aging)로 미끄러뜨린 선지 둘이 함정인 2점 문항이예요.

함정 포인트 정답의 Fading·Evolving 은 지문에 없는 재서술어고, 함정 둘은 지문 단어 aging 을 그대로 써요. views·boundaries·expectations 처럼 '인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지문의 축임을 잡아야 해요.

6월→9월 소재는 산업사(관광업 통합)에서 사회 인식사(노화의 경계)로 옮겨졌지만 어수(173→171)·2점 배점·시간 축 전환 구조·두 부분 정답은 그대로예요. 오답 설계만 방향 뒤집기(Reduced·Failure)에서 소재 미끄러뜨리기(Anti-aging Industry·Slow Aging)로 바뀌었고, 9월엔 How·Do 의문 프레임 선지 둘이 새로 끼었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지문이 시간 축 하나로 굴러가요(6월 Before the 1950s→From the mid-1950s, 9월 had only recently→but now). 정답은 두 번 다 앞에 전환 축(Separate to Combined·Fading Boundaries), 뒤에 범주(Tourism Business·Views of Aging)를 놓은 6~8어 선지였고 지문 단어를 셋씩 남겼어요. 출제진은 24번을 변별 축으로 쓰지 않았어요 — 두 회차 모두 고난도 지목이 없었고 6월 이의신청 12문항에도 없었어요. 매력 오답은 6월엔 지문 어휘를 그대로 쓰되 방향을 뒤집은 선지(Reduced·Failure), 9월엔 사회 인식을 생물학적 노화로 미끄러뜨린 선지(Anti-aging Industry·Slow Aging)로 종류를 바꿨어요. 2026학년도 9월·수능에서 3점·메가 기준 정답률 42%·28%까지 올렸던 손잡이를 2027학년도엔 2점·평이로 되돌렸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24번도 제목 유형이고 자리 이동·신유형은 없어요.

근거 2019학년도 이후 수집 25회 중 25회 제목이에요(기출 통계 카드). 9월 출제본부도 「기존 문항 유형과 배점 체계 그대로」라고 밝혔어요(외부 리서치).

P2 지문은 「과거엔 A였는데 이제 B」 시간 축 전환형 사회·문화사 서술문이고, 어수는 150~180어대예요.

근거 6월 173어(1950년대 전후 관광업)·9월 171어(1988년 기사 인용, 노화 인식)가 모두 이 구조였어요(실물 문항). 9월 출제본부는 내용 영역 균형을 공언했어요(외부 리서치).

P3 매력 오답은 지문 어휘를 그대로 쓰되 방향을 뒤집은 선지와 인접 소재로 범위를 넓힌 선지가 각각 1개 이상이고, How-Why-Do 실용·의문 프레임 선지는 오답이에요.

근거 6월 Reduced-Failure, 9월 Anti-aging Industry-Slow Aging 선지가 이 계열이고(실물), 오답 재사용률도 39.6%예요(기출 통계 카드). 9월 총평도 「매력적 오답으로 변별」이에요(당일 평가).

P4 24번은 2점·변별 축 밖으로 남아요 — 2026학년도 수능처럼 3점 준킬러로 쓰는 실험은 2027학년도 6월·9월에서 이미 접었어요.

근거 6월·9월 모두 어느 기관도 24번을 고난도로 지목하지 않았고 6월 이의신청 12문항에도 없었어요(외부 리서치). 대성 9월 총평은 「대의(18~24) 쉬움」이에요(당일 평가).

수험 전략 24번은 지문 어휘 겹침으로 고르면 걸려요. 지문에서 시간 표지(Before / From ~ onwards, had recently / but now)를 찾아 「전엔 A, 이제 B」 한 줄로 적고, 앞부분이 그 전환을·뒷부분이 범주를 맞추는 선지만 남기세요. Reduced-Failure 같은 방향 뒤집기와 Industry-Slow 같은 소재 확장은 지문 문장에 대조해 지우고, 선지 길이나 콜론 같은 형태는 근거로 쓰지 마세요. 2026학년도 수능처럼 24번에 3점이 붙고 정답에 지문에 없는 조어가 들어가 이의신청 쟁점이 된 회차가 있으니, 평이하다고 방심하진 마세요.

06 내용 일치

26번

Factual Detail · 1 item

인물 전기 지문의 연도·사건·인물 정보를 다섯 선지와 한 값씩 대조해 지문과 어긋난 하나를 찾는 문항이에요. 추론이 아니라 검색·대조의 정확도와 속도를 재는 자리예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오답 넷은 원문 한 문장의 축자 번역이고, 정답 하나만 지문에 있는 연도·사건을 이웃 값과 바꿔 만들어요 — 없는 사실을 지어내진 않아요. 6월·9월 실물 모두 선지 다섯 개가 지문 등장 순서를 따라요.

DNA 02 자리·분량 DNA

- 26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수집된 25회 중 25회(100%) 내용 일치였어요 — 20·31~45번과 함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고정 자리예요 **총론 카드 04**
- 3점 자리 지도(2015학년도 이후 38회·3점 265문항)에 26번 행은 없어요 — 2027학년도 6월·9월의 3점 7자리 (21·30·33·34·37·39·42번)에도 26번은 없는 2점 자리예요 **총론 카드 02**
- 2027학년도 9월 독해 20지문 합계는 3609어(분당 80어)였고 그중 26번은 143어, 6월은 150어예요 — 2023학년도 6월 이후 26번 지문은 122~158어 사이, 최근 평균 142어예요 **총론 카드 06**

STATISTICS 숫자로 보는 내용 일치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봐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SLOT MAP **타일 x2**

총론 카드 발췌 · 이 챕터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번은 25회 중 25회 내용일치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26번 0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 총론 카드 04 발췌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고정도			
26	일치																										100%				
최빈 유형과 같음		☒																								다른 유형(표기)		☐		미수집	

3점 자리 · 2015학년도 ~ · 총론 카드 02 발췌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3점 횟수		
26	2점																																						0회			
		3점 문항			2점(수집 문항)			미상(그 회차 미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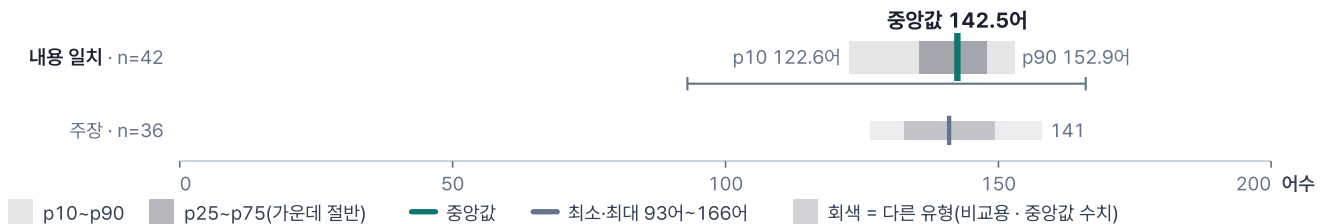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25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5회(26회 중 미수집 1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02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내용 일치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42건 중앙값 142.5어(가운데 절반 135.5~147.8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42 이 유형 지문 42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26 Paul Gric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언어철학자 Paul Grice의 출생·학업·복무·논문·이직·취미를 시간 순으로 옳는 150어 인물 전기문이에요.

Paul Grice was a famous philosopher of language whose work was very influential in many areas of linguistics. Born in 1913 in Birmingham^①, England, he was the son of Herbert Grice, a businessman and musician. As an undergraduate, he earned high honors from Corpus Christi College. After finishing graduate school, he was appointed as a lecturer at Oxford in the field of philosophy. During World War II, however, he served in the British military for about five years. One of his greatest contributions was to the stud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His article "Meaning" was written in 1948^②, but he did not have it published until 1957^③. This article was foundational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1967, he left Oxford^④ to take a job at UC Berkeley and retired from there in 1979. In addition to being a great scholar, he was excellent at cricket and chess.

- ① 출생·가족부터예요 — 선지 ㉠이 바로 이 문장이예요
- ② ㉠이 훗쳐간 연도가 여기예요 — 붙은 동사는 written이에요
- ③ 출판은 1957년 — not ~ until, 여기가 정답의 급소예요
- ④ 1967 이직→1979 퇴직 — 선지 ㉡가 이 한 문장이예요

- ✗ ㉠ 사업가이자 음악가인 Herbert Grice의 아들로 태어났다.
↳ 'the son of Herbert Grice, a businessman and musician'의 직역이에요. 직업 둘을 함께 대조해야 해서 눈이 머물지만 값은 모두 같아요.
- ㉡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영국 군대에서 약 5년간 복무하였다.
↳ 'served in the British military for about five years'와 기간·주체가 그대로예요. 역접 however는 선지에 실리지 않았어요.
- ✓ ㉢ 1948년에 "Meaning"이라는 논문을 출판했다.
↳ 지문은 1948년에 '썼고(written)' 출판은 1957년까지 미뤘어요. 연도는 지문에 있지만 붙은 사건이 달라요 — 집필을 출판으로 바꿨어요.
- ✗ ㉣ UC Berkeley에서 1979년에 퇴직했다.
↳ 'In 1967, he left Oxford ... retired from there in 1979' — 연도 둘이 든 문장이라 ㉡과 같은 구조로 보이지만 1979년 퇴직은 지문 그대로예요.
- ㉤ 크리켓과 체스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 마지막 문장 'he was excellent at cricket and chess'의 직역이에요.

설계 의도 한 문장에 연도 둘(1948·1957)과 but-not ~ until을 넣고 선지에는 앞 연도만 실려, '연도가 지문에 있으면 일치'라는 습관을 걸러요. 연도 확인에서 멈추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설계예요.

합정 포인트 ㉢의 1948년은 지문에 실제로 있는 연도예요. 숫자가 맞아도 그 숫자에 붙은 동사(written/published)까지 같은지 봐야 해요. ㉡가 같은 '두 연도 문장' 구조라 대조군 역할을 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26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 ㉠ 매력 오답 — 'the son of Herbert Grice, a businessman and musician'의 직역이에요. 직업 둘을 함께 대조해야 해서 눈이 머물지만 값은 모두 같아요.
- ㉡ 소거 — 'served in the British military for about five years'와 기간·주체가 그대로예요. 역접 however는 선지에 실리지 않았어요.
- ✓ ㉢ 정답 — 지문은 1948년에 '썼고(written)' 출판은 1957년까지 미뤘어요.
- ✗ ㉣ 매력 오답 — 'In 1967, he left Oxford ... retired from there in 1979' — 연도 둘이 든 문장이라 ㉡과 같은 구조로 보이지만 1979년 퇴직은 지문 그대로예요.
- ㉤ 소거 — 마지막 문장 'he was excellent at cricket and chess'의 직역이에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6 Chuck Jone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애니메이션 감독 Chuck Jones의 출생·유년기·경력·캐릭터·회사·수상·말년을 훑는 143어 인물 전기문이에요.

Chuck Jones was an influential director and artist whose work shaped animated films and cartoon production. He was born in Spokane, Washington, in 1912, though he grew up in Los Angeles. As a child, Jones had many opportunities to draw^①. He used the leftover pencils and paper that his father brought him from work. Jones began his career in animation in 1930 and was quickly promoted. In the 1940s, he created famous characters^② such as Wile E. Coyote and the Road Runner. He directed the famous cartoon film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which is still enjoyed by many people today. Jones started his own company, Chuck Jones Enterprises, in 1970^③. For his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animation, he received an Honorary Academy Award in 1996^④. Late in his life, he established a non-profit organization supporting art education and other creative skills.

- ① 유년기부터 시간 순 — 선지도 이 순서를 따라가요
 ② 1930 입문→1940년대 캐릭터→감독→회사 순이에요
 ③ ㉠가 끝나다 붙인 1970은 회사 설립 연도예요
 ④ 수상은 1996년 — ㉡의 연도가 여기서 어긋나요

- ①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릴 기회가 많았다.
↳ 'As a child, Jones had many opportunities to draw'의 직역이에요. 뒤따르는 연필·종이 일화가 이를 받쳐요.
- ② Wile E. Coyote와 같은 유명한 캐릭터를 만들었다.
↳ 'created famous characters such as Wile E. Coyote and the Road Runner'에서 하나만 옮겼지만 값은 같아요.
- ✗ ③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즐기는 만화 영화를 감독했다.
↳ 영화 제목 없이 관계절 'which is still enjoyed by many people today'만 옮겼어요. 제목을 찾다 못 찾으면 불일치로 오판하기 쉬워요.
- ✓ ㉠ 애니메이션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1970년에 상을 받았다.
↳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지문 그대로예요. 연도만 앞 문장의 회사 설립 연도 1970을 가져왔어요 — 수상은 1996년이에요.
- ✗ ㉡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를 설립했다.
↳ 'established a non-profit organization supporting art education'의 직역이에요. 'Late in his life' 등 세부가 빠졌지만 값은 같아요.

설계 의도 이웃한 두 문장(1970년 회사 설립·1996년 수상)에서 연도만 교차했어요. 선지의 사건 서술은 정확하니 사건만 확인한 사람은 통과시키고, 연도까지 대조한 사람만 걸러내는 설계예요.

함정 포인트 ㉠은 '공로로 상을 받았다'가 맞아 앞부분에서 안심하기 쉬워요. 연도가 든 선지는 그 연도가 같은 문장에서 왔는지 봐야 해요. ㉠㉡는 제목·시점을 뺀 재진술이라 생략을 불일치로 오판하면 안 돼요.

6월→9월 소재가 언어철학자(Grice)에서 애니메이션 감독(Jones)으로 옮겨 인문→예술로 바뀌었고 어수는 150→143어로 줄었어요. 조작 방식은 '같은 연도에 사건 바꾸기(집필→출판)'에서 '같은 사건에 이웃 연도 붙이기(1996→1970)'로 뒤집혔지만, 오답 넷이 축자 번역이고 선지가 지문 순서를 따르는 뼈대는 그대로예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조작은 정답 하나에만 걸었고 오답 넷은 지문 한 문장의 축자 번역이에요. 조작 재료는 둘 다 '연도'였어요 — 6월은 1948·1957이 든 한 문장에서 연도는 두고 사건(집필→출판)을 바꿨고, 9월은 이웃한 두 문장(1970 설립·1996 수상)에서 사건은 두고 연도를 바꿨어요. 정답 근거가 늘 연도 곁에 있고, 선지가 지문 등장 순서를 따르며, 평가 문장(influential-foundational)은 선지가 되지 않은 점도 같아요. 1등급 4.13%의 6월과 당일 평가(채점 전) 「상당히 쉽게」의 9월 사이 난이도 차가 큰데도 26번 설계는 그대로였고, 6월 이의신청 12문항과 강사 집계 오답률 상위 10개 문항에도 26번은 없었어요. 출제진은 이 자리에서 변별을 만들지 않고 정확한 대조 습관만 확인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상

P1 수능 26번도 내용 일치 유형·2점 자리 그대로예요 — 자리 이동이나 신유형이 끼어들 여지는 사실상 없어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26번은 2019학년도 이후 수집 25회 전부 내용 일치였고 3점 기록이 없어요. 9월 출제본부도 「기존 유형·배점 그대로」라고 밝혔어요.**P2** 지문은 130~160어 안팎의 인물 전기형이고, 정답 근거는 연도가 든 문장이나 인접 문장 쌍에 있어요.**근거** 6월 150어(철학자)·9월 143어(감독) 모두 전기문이었고, 근거는 1948·1957이 든 한 문장, 1970·1996이 든 인접 두 문장이었어요.**P3** 정답 선지는 지문에 있는 연도·사건의 짝을 어긋나게 만든 재조합이에요 — 지문 밖의 사실을 새로 지어 넣지는 않아요.**근거** 6월은 1948년 집필을 출판으로 바꿨고, 9월은 1996년 수상에 앞 문장의 1970년을 붙였어요 — 두 실물 다 지문 밖 사실은 없었어요.**P4** 오답 넷은 지문 문장의 축자 번역이고 선지는 지문 등장 순서를 따라요 — 세부 생략·부분 열거는 불일치가 아니예요.**근거** 6월·9월 실물 모두 오답 넷이 축자 번역·지문 순서였고, 9월 실물의 제목·시점을 뺀 재진술도 값이 같아 일치했어요.**P5** 소재는 인문·예술·과학을 오가는 인물 전기이고, 26번은 6월·9월처럼 EBS 간접연계 읽기 번호 안에 들 가능성이 커요.**근거** 6월 연계 읽기 번호 19·24~29, 9월 21·25~29·31에 26번이 모두 들었고, 9월 출제본부는 인문·사회·자연·예술·문학 균형을 밝혔어요.**수험 전략** 선지가 지문 순서를 따르니 첫 선지부터 지문을 한 번만 훑으며 차례로 대조하세요. 연도가 든 선지는 그 연도에 붙은 동사와 문장이 같은 자리에서 왔는지까지 확인하고, 제목·시점이 빠진 재진술은 값이 같으면 일치로 넘기세요. 난이도는 단정하지 않아요 — 여기서 아낀 시간이 뒤 구간 몫이에요.

07 어법

29번

Grammar · 1 item

밑줄 친 다섯 곳 중 어법상 틀린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에요. 독해 28문항 중 유일하게 글의 내용이 아니라 문장 구조만으로 판정이 끝나는 자리라, 시간을 아껴 뒤 구간에 넘겨야 하는 문항이에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은 관계사·정동사 vs 준동사·수일치처럼 밑줄 밖의 선행사·주어 핵을 세어아 판정되는 축에 놓이고, 미끼는 형용사 vs 부사·대명사·분사·to-v/v-ing 처럼 밑줄 안에서 판정이 끝나는 축에 깔려요. 미끼 넷은 정답과 다른 축으로 분산돼요 **카드 01**

DNA 02 자리·분량 DNA

- 29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 어법(96.2%)이에요 — 흔들린 1회는 구배치 회차(2019학년도 6월, 함축 의미)예요 **총론 카드 04**
- 킬러 어법 51건의 정답 포인트는 b 관계사 15건·a 정동사 vs 준동사 14건이 최다예요. a는 밑줄에 나오면 82.4%(14/17) 정답이고, f 형용사 vs 부사는 0%(0/23)예요 (표본 17·23건 — 참고) **카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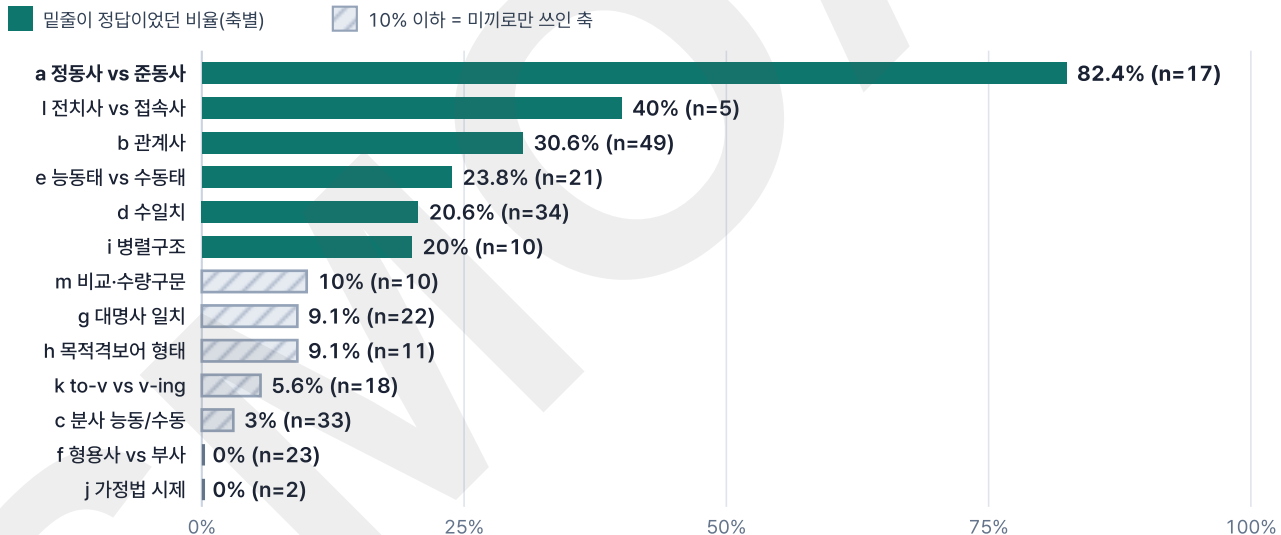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어법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ANSWER AXIS **가로막대**

킬러 코드별 정답 비율

킬러 어법 51건의 정답 포인트는 b 관계사 15건·a 정동사 vs 준동사 14건이 최다예요. a 정동사 vs 준동사는 밑줄에 나오면 82.4%(14/17) 정답이고, f 형용사 vs 부사는 0%(0/23)예요. (표본 17·23건 — 참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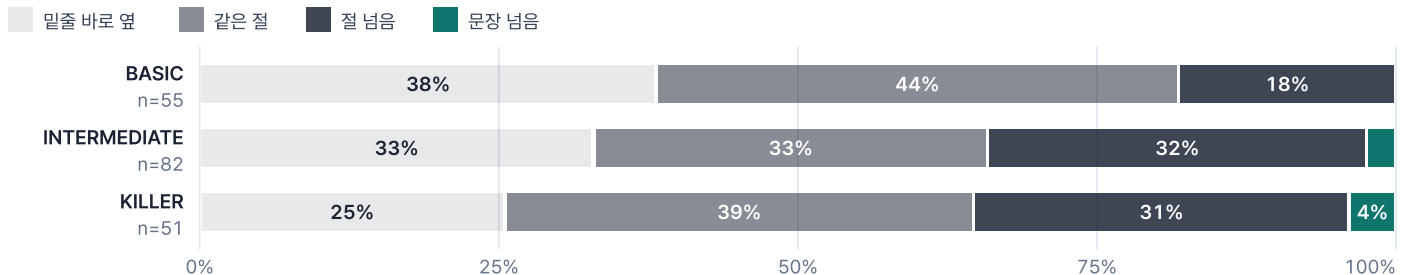
→ 정답이 자주 놓이는 축과 미끼로만 쓰이는 축이 갈려요 — 밑줄마다 어떤 축인지 먼저 이름 붙이고 판정 단서를 찾아요.

n=51 기출 어법 해부 188건 중 킬러(고3 모평·수능) 51건 출처 자체 해부 자료(자체 판정) x축 0 기점

02 · CUE DISTANCE **100% 스택**

난이도층 비교

킬러 어법은 판정 단서가 절 밖(cross-clause-cross-sentence)에 있는 비율이 35.3%(18/51)이고, 기본은 18.2%(10/55)예요.



→ 킬러 문항은 판정 단서가 절 밖에 있어요 — 밑줄 안만 보지 말고 절 경계 너머의 주어·동사를 확인해요.

n=188 기출 어법 해부 188건(기본 55·중급 82·킬러 51) 출처 자체 해부 자료(자체 판정) 백분율은 문항 기준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

유럽 의복사로 패션의 문화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선행사 뒤에 잘못 놓인 관계대명사 what 을 찾는 문항이에요.

Fashion is always deeply cultural, and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can be seen in the evolution of European clothing.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Ages, clothing tended to be simple ^① and was ① frequently made of rough wool or animal furs. With advances in cloth making, however, fashion began moving toward styles ^② ② what were more elaborate and form-fitting. In the Renaissance and Elizabethan eras ^③, styles became even more refined. The clothes that wealthy people were wearing ^④ became increasingly fancier, with a particular emphasis being placed on smaller waists. The connection between clothing and social status was so pronounced that laws were enacted ③ to limit the wearing of certain luxury items. ④ Allowed only for higher social classes, luxurious styles and decorations such as feathers, silk, or velvet were used as a means of demonstrating one's standing in society. This was further reinforced as upperclass styles came to be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cultural ceremonies so that ⑤ their wearers' roles could be identified clearly.

- ① 중세 초 — 거친 모직·모피의 소박한 옷에서 출발해요
- ② 선행사 styles 가 바로 왼쪽에 있어요 — 여기서 판정 끝이에요
- ③ 르네상스로 넘어가며 부유층 옷이 화려해져요
- ④ 밑줄 없는 옳은 that — 출제진이 깔아둔 대조군이에요

- ① frequently
↳ was made 라는 수동태 동사구 사이에서 동사를 꾸미는 자리라 부사 frequently 가 맞아요. 형용사로 바꿀 명사가 없어요.
- ✓ ② what
↳ 바로 앞에 선행사 styles 가 있고 뒤 절은 주어가 빈 불완전한 절이에요. 선행사를 품는 what 은 못 쓰고 that/which 여야 해요.
- ③ to limit
↳ laws were enacted 뒤에서 '제한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예요. 앞의 수동태와 무관하게 정문이에요.
- ✗ ④ Allowed
↳ 주어 luxurious styles and decorations 가 '허용되는' 쪽이라 수동 분사구문이 맞아요. 주어가 콤마 뒤 멀리 있어 Allowing 으로 고치고 싶어요.
- ✗ ⑤ their
↳ their 는 upperclass styles 를 받아 '그 스타일의 착용자'를 뜻해요. 소유격이 겹쳐 어색해 보이지만 복수 지시가 정확해요.

설계 의도 정답 what 은 선행사 styles 바로 옆에 있어 단서 거리가 가장 짧은 기본형이에요. 대신 두 문장 뒤 The clothes that wealthy people were wearing 에 밑줄 없는 옳은 that 을 심어 대조군을 줬어요.

함정 포인트 미끼 넷이 형·부, to부정사, 분사, 대명사 — 킬러에서 정답으로 거의 안 쓰이는 축이에요. ④는 주어가 콤마 뒤로 밀려 있고 ⑤는 소유격이 겹쳐 눈에 걸리지만 둘 다 정문이에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29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소거 — was made 라는 수동태 동사구 사이에서 동사를 꾸미는 자리라 부사 frequently 가 맞아요.
- ✓ ② 정답 — 바로 앞에 선행사 styles 가 있고 뒤 절은 주어가 빈 불완전한 절이에요.
- ③ 소거 — laws were enacted 뒤에서 '제한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예요. 앞의 수동태와 무관하게 정문이에요.
- ✗ ④ 매력 오답 — 주어 luxurious styles and decorations 가 '허용되는' 쪽이라 수동 분사구문이 맞아요.
- ✗ ⑤ 매력 오답 — their 는 upperclass styles 를 받아 '그 스타일의 착용자'를 뜻해요. 소유격이 겹쳐 어색해 보이지만 복수 지시가 정확해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

리더의 공감 능력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명사 주어 뒤 복수형으로 잘못 놓인 본동사 enable 을 찾는 문항이에요.

Leaders come in all shapes and sizes, but successful leaders tend to have one thing in common ①: the ability to share someone else's feelings, known as empathy. While empathy forms in everyone to some degree, effective leaders know how to develop this emotional guidance system ① to connect with others' feelings and perspectives. However, empathy in leaders is more than ② simply being kind to employees, clients, and customers. Empathetic people seem more approachable, focusing on the words of others. Listening to the needs of employees ③ enable leaders to clearly identify what makes them feel heard ④. Utilized in this way, empathy can be considered a crucial part of ④ maintaining employee satisfaction. Leaders who are unable to surround themselves with competent employees will not be successful. Indeed, a leader's failure to empathize with talented workers is one of the main situations ⑤ that could lead them to leave an organization. In this case, the organization must spend precious time and money to find suitable replacements for them.

- ① 성공한 리더의 공통점 = 공감, 여기서 출발해요
- ② 주어 핵은 동명사 Listening — 단수라 enables 여야 해요
- ③ 밑줄 없는 옳은 what — 6월 정답 축의 정문 버전이에요
- ④ 공감이 직원 만족을 지키는 핵심으로 올라서요

- ① to connect
↳ know how to develop this system 뒤에서 '연결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to부정사예요. 앞의 how to develop 과 짝을 이룬 정문이에요.
- ② simply
↳ more than 뒤 동명사 being 을 꾸미는 자리라 부사 simply 가 맞아요. than 뒤라고 형용사 simple 을 떠올리면 안 돼요.
- ✓ ③ enable
↳ 주어의 핵은 동명사 Listening 이라 단수 취급이에요. 바로 앞 복수 employees 는 to 의 목적어일 뿐이라 enables 여야 해요.
- ④ maintaining
↳ 전치사 of 의 목적어 자리라 동명사 maintaining 이 맞아요. 앞 밑줄 to connect 와 견줘 to maintain 으로 바꿀 자리가 아니에요.
- ✗ ⑤ that
↳ 선행사 situations 뒤 절이 주어가 빈 불완전한 절이라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 맞아요. situations 에 in which/where 를 기대하면 걸려요.

설계 의도 동명사 주어와 밑줄 사이에 복수 명사 employees 를 바짝 붙여 근접 명사 착시를 만들었어요. 같은 문장 끝의 what makes them feel heard 는 밑줄 없는 옳은 what — 6월 정답 축의 정문 버전이에요.

함정 포인트 ⑤ that 이 유일한 관계사 밑줄이라 6월처럼 관계사부터 뒤지면 시간을 태워요. 정답은 형태가 아니라 '주어가 무엇인가'를 세는 수일치라 주어 핵을 짚어야 끝나요.

6월→9월 정답 축이 관계사(what)에서 수일치(enable)로 옮겨갔고, 6월 정답이던 what 은 9월엔 밑줄 없는 정문(what makes them feel heard)으로 돌아왔어요. 미끼는 형·부·to부정사 축을 유지한 채 관계사 that 이 새로 들어갔고, 어수는 162→163으로 같아요. 소재는 유럽 의복사에서 리더의 공감으로 바뀌었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정답을 밑줄 바로 옆-같은 절 안에서 판정이 끝나는 자리에 뒀어요 — 6월은 선행사 styles 바로 뒤의 what, 9월은 동명사 주어 Listening 과 본동사 enable 의 수일치예요. 자체 해부 자료(자체 판정) 기준 킬러 정답 상위 3축(관계사·정동사 vs 준동사·수일치) 안에서만 정답을 골랐고, 미끼는 형용사 vs 부사·분사·대명사·to-v/v-ing 처럼 정답 비율이 낮은 축에 깔았어요. 미끼 넷은 두 번 다 정답과 다른 축(축 분산)이었고, 9월은 6월 정답 축(관계사)을 미끼 that 으로 되돌려 '전 회차 정답 축부터 뒤지는' 습관을 겨냥했어요. 밑줄 없는 대조군(6월 that, 9월 what)을 심는 정오 쌍둥이 배치도 반복됐어요. 9월 당일 평가(채점 전)에서 메가·대성이 29번을 수일치 평이로 꼽았듯, 29번은 변별 자리가 아니라 축 이름 붙이기와 주어 찾기를 검사하는 기본기 문항으로 운용됐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29번도 「어법상 틀린 것」 어법 유형 그대로예요 — 자리 이동이나 신유형은 없어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29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5회 어법이고, 6월·9월 모두 공식 총평에서 「신유형 없음」이 공언됐어요.**P2** 정답은 관계사·정동사 vs 준동사·수일치 세 축 중 하나에 놓고, 형용사 vs 부사·대명사·분사는 미끼로만 쓰여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 킬러 51건 정답이 관계사 15·정동사 vs 준동사 14·수일치 7건이고, 형용사 vs 부사는 미끼 23건에 정답 0건이에요.**P3** 판정 단서는 밑줄 왼쪽 같은 절 안의 주어 핵·선행사에 있어요 — 절 밖을 봐야 하는 장치는 셋 중 하나꼴이라 기본은 아니예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킬러 단서는 밑줄 바로 옆 13건·같은 절 20건으로 51건 중 33건이고, 6월 what·9월 enable 도 같은 절 안이었어요.**P4** 미끼 넷은 모두 정답과 다른 축이고, 형용사 vs 부사 밑줄이 하나 들어가되 정답은 아니예요.**근거** 6월 frequently·9월 simply 로 형·부 미끼가 두 회차 연속이었고, 자체 해부 자료에서 형·부는 킬러 정답 0건(0/23)인 미끼 전용축이에요.**P5** 난이도는 ★2~3 평이로 변별 구간엔 들지 않고, 지문은 160어 안팎의 인문·사회 설명문이에요.**근거** 6월·9월 실물은 162·163어였고, 9월 당일 평가(채점 전)에서 메가·대성이 29번을 수일치 평이로 꼽았으며 고난도 지목에 29번은 없었어요.

수험 전략 밑줄마다 축 이름(형·부, 대명사, 분사, to-v/v-ing, 관계사, 수일치, 정동사)을 먼저 붙이고, 형·부·대명사·분사는 빠르게 소거하세요. 관계사는 선행사 유무와 뒤 절의 빈자리, 수일치는 밑줄 왼쪽 주어의 핵(동명사·단수 명사)을 짚어요. 바로 앞 복수 명사(employees)나 콤마 뒤로 밀린 주어(luxurious styles)에 끌려 판정을 뒤집는 게 두 회차의 함정이었어요.

08 어휘 30번

Vocabulary in Context · 1 item

지문에 밑줄 친 다섯 낱말 중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에요. 낱말 뜻을 아는지가 아니라 그 낱말이 글이 가는 방향과 같은 쪽을 가리키는지를 물어요 — 6월·9월 모두 3점 자리였어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 낱말은 글의 결론과 정면충돌하는 반의어를 원래 자리에 끼워 넣어 만들고(thick $\leftrightarrow$ thin, shorten $\leftrightarrow$ prolong), 나머지 넷은 글의 대비 축(대사 vs 노래-춤, 즉시 제거 vs 장기 균형) 안에 정확히 들어맞는 낱말로 채워요. 어감이 부정적이거나 통념에 어긋나는 낱말을 일부러 오답 자리에 두기도 해요.

DNA 02 자리·분량 DNA

- 30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96.2%가 어휘 자리였어요 — 흔들린 1회는 2019학년도 6월 구배치(그 회차만 30번이 지칭)라 사실상 고정이에요 **총론 카드 04**
- 30번에 3점이 붙은 회차는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16회이고, 2023학년도 수능부터 2027학년도 9월까지지는 회차마다 3점이었어요 — 카드 캡션대로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에요 **총론 카드 02**
- 어휘 지문은 2023학년도 6월 이후 156~186어 사이였고 최근 평균은 175어예요 — 6월 183어·9월 174어 모두 그 띠 안이라 길이로는 특이점이 없어요 (기출 통계)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어휘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SLOT MAP

타일 ×2

총론 카드 발췌 · 이 chapter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30번은 26회 중 25회 어휘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30번 16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 총론 카드 04 발췌



3점 자리 · 2015학년도~ · 총론 카드 02 발췌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26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6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02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어휘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40건 중앙값 169어(가운데 절반 159.3~177.3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40 이 유형 지문 40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희곡·뮤지컬 대본은 형식 탓에 읽기 어렵고, 노래·춤을 빼면 남는 대사(book)는 얇다는 글이에요.

Classical works by playwrights such as Shakespeare or Euripides or even American musical song lyrics contain unconventional and unrealistic methods of communicating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and take a bit more skill and patience to understand^①. The reader must be mindful not to let the poetic form or archaic word usage get in the way of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story, but instead see the form itself as a^② ① revealing stylistic technique. Scripts with complex language or unfamiliar styles may require several additional readings in order for the nuance to become ② clear. Musical theater pieces are particularly difficult to visualize when reading because of the diminished emphasis on dialogue and a^③ ③ significant emphasis on song and dance. For example, when the music and lyrics are removed from a musical theater script^④, what is left is the dialogue, known as the book or libretto, and it can be very ④ thick. There is an emphasis on dance, movement, or action in musical theater that can be ⑤ time-consuming when actually performed on stage, but can take very little space when typed into a play script.

* archaic: 고어(古語)체의

- ① 고전 대본은 읽기가 어렵다 — 글은 여기서 출발해요
- ② 역접이에요 — 형식은 걸림돌이 아니라 기법, ①은 제자리
- ③ ④ 판정의 앞 단서 — 대사 비중은 줄었다고 못 박아요
- ④ 음악·가사를 빼면 남는 건 대사, 그래서 얇아야 해요

- ✗ ① revealing
↳ 앞 절 get in the way의 부정 어감이 남아 어색해 보여요. 하지만 but instead가 방향을 뒤집어 형식을 기법으로 보라는 자리라 적절해요.
- ② clear
↳ 여러 번 읽어야 뉘앙스가 '분명해진다'는 흐름 그대로예요. 판단 단서가 같은 문장 안에 있어 걸릴 이유가 없어요.
- ✗ ③ significant
↳ diminished와 나란히 놓여 대구가 깨진 듯 보여요. 그러나 대사↓·노래춤↑의 대비가 곧 이 글의 축이라 정확히 제자리예요.
- ✓ ④ thick
↳ 대사 비중이 작다(diminished)는 앞 문장의 예시라 남는 대본은 얇아야 해요. 뒤 문장 very little space도 같은 방향 — thin의 반의어 치환이에요.
- ⑤ time-consuming
↳ 무대에서선 오래 걸리지만 지면에선 짧다는 but 대비가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④가 틀렸다는 걸 확인해 주는 문장이예요.

설계 의도 정답을 'the book'이라는 전문어 바로 뒤에 두어 '책→두껍다' 연상을 유도하고, 판정 단서는 앞 문장(diminished dialogue)과 뒤 문장(very little space) 양쪽에 깔았어요 — 한 문장만 보면 못 푸는 설계예요.

함정 포인트 ①③이 역접·대구 자리에 놓인 낱말이에요. 부정 어감(get in the way-diminished)이 옆에 있다고 지우면 걸려요. 6월 이의신청 12문항에 30번이 들었지만 「이상 없음」이었어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허브 정원의 해충은 즉시 없애지 말고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두라는 글이에요.

There is good news about pests and medicinal herbs: Most herbs either repel pests or attract beneficial insects^① that help keep pest populations in check. So the more herbs you grow, the more you will attract pollinators and “good” bugs that like to eat the more ① destructive pests, which will lead to a more successful garden! When it comes to managing pests in the garden,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you are ② altering the ecosystem of an area that existed on its own^② before you planted anything into it. So the first couple years in a new garden can feel like wave after wave of pests are ③ overtaking your plants. This is normal^④. The goal of a long-term healthy garden is to work with the environment you are trying to cultivate to ④ allow the plants, pollinators, and even the annoying pests to balance out. Immediately attempting to remove a new pest entirely from your garden will only further these initial imbalances and^⑤ ⑤ shorten the process of helping your garden grow better on its own.

* repel: 쫓아버리다 ** pollinator: 꽃가루 매개자

- ① 허브가 해충을 쫓고 익충을 부른다 — 좋은 소식부터예요
- ② 정원 만들기는 원래 생태계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 ③ 해충 파도는 정상이라요 — ⑤은 어감만 보고 지우면 걸려요
- ④ ⑤ 판정 근거 — only further imbalances는 나쁜 결과 자리예요

- ① destructive
↳ 익충이 '더 파괴적인' 해충을 잡아먹는다는 첫 단락의 좋은 소식 안에 있어요. 문맥 단서가 같은 절에 있어 흔들릴 여지가 없어요.
- ② altering
↳ 정원을 만드는 행위가 기존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전제예요.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뒤의 불균형 서술이 이 낱말을 받쳐요.
- ✗ ③ overtaking
↳ '좋은 소식' 뒤에 해충이 식물을 '덮친다'니 어긋나 보여요. 그러나 생태계를 바꿨으니 초기 몇 해의 해충 파도는 정상(This is normal)이라는 흐름이에요.
- ✗ ④ allow
↳ 해충까지 '허용'하러니 상식과 부딪혀 가장 끌려요. 하지만 even the annoying pests와 balance out이 이 글의 반통념 주장 자리임을 알려줘요.
- ✓ ⑤ shorten
↳ 즉시 박멸은 'only further these initial imbalances' — 나쁜 결과의 자리예요. 자립 과정을 '단축'하면 좋은 결과라 충돌하고, prolong의 반의어 치환이에요.

설계 의도 글의 주장(해충도 두라)이 통념과 반대라 주장 자리의 낱말(allow)이 틀려 보이게 만들고, 정답은 마지막 문장에서 only-further imbalances로 못 박았어요 — 통념이 아니라 글의 방향을 따르는지 재는 설계예요.

함정 포인트 ④가 통념 역행 함정, ⑤이 어감 함정이에요. 낱말이 부정적이거나 상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면 걸리고, 각 밑줄 문장이 주장·근거·경고 중 어느 자리인지 먼저 표시해야 해요.

6월→9월 소재가 예술(대본 읽기)에서 원예(해충 관리)로, 어수는 183→174어로 옮겨갔어요. 정답 자리는 다섯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왔고 밑줄 품사는 형용사 다섯에서 동사 넷으로 바뀌었어요. 함정 축은 전문어 연상(book→thick)에서 통념 역행(allow pests)으로 이동해, 어휘는 쉬워졌지만 논지 추적은 그대로 요구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의 설계가 같아요. 밑줄 다섯 중 넷은 글의 대비 축(대사 vs 노래·춤, 즉시 제거 vs 장기 균형) 안에 정확히 끼워 넣어 순서와 대응만 맞추면 통과하게 만들고, 정답 하나는 결론부 문장에 한 단어 반의어를 심어요 — 6월 thick(↔thin), 9월 shorten(↔prolong). 부정 어감이나 통념에 어긋나는 낱말(get in the way 뒤의 revealing, 해충을 두라는 allow)은 일부러 오답 자리에 놓아 뜻만 보고 지우는 습관을 걸러내고요. 둘 다 3점이지만 6월 강사 집계 오답률 상위 10문항과 9월 당일 고난도 지목(21·33·34·37·39, 채점 전) 어디에도 30번은 없었어요 — 30번은 어휘력 시험이 아니라 논지 방향 추적 시험이고, 출제진은 변별보다 3점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자리로 써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30번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 유형이고, 3점 자리로 유지돼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30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96.2%가 어휘 자리였고, 3점은 2023학년도 수능부터 9월까지 회차마다 붙었어요.**P2** 정답 밑줄은 글이 결론을 못 박는 마지막 두 문장 안에 놓이고, 판정 단서는 같은 문장이나 바로 앞뒤 문장에 있어요.**근거** 6월 thick은 여섯 문장 중 다섯째(앞 diminished dialogue·뒤 very little space), 9월 shorten은 마지막 문장(같은 문장 only further imbalances)이었어요.**P3** 매력 오답은 글이 뒤집는 통념 쪽 낱말이거나 역접·양보 바로 뒤에 놓인 낱말이에요 — 어감만으로 지우면 걸려요.**근거** 6월 revealing(get in the way 뒤 but instead)·9월 allow(해충도 두라는 반통념 주장 자리)가 함정이었고, 6월 30번은 이의신청까지 갔지만 이상 없었어요.**P4** 정답은 한 단어이고 원래 낱말의 반의어를 같은 자리에 끼운 치환이라 문법·언어는 멀쩡해요 — 형태로는 못 걸려요.**근거** 6월 thick(↔thin)·9월 shorten(↔prolong) 둘 다 한 단어 반의어 치환이었고, 밑줄 문장 자체는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웠어요.**P5** 소재는 두 축을 대비하는 실용 설명문, 어수는 2023학년도 이후 띠(156~186어) 안, 난이도는 ★3 이하로 변별 지렛대가 아니에요.**근거** 6월 대본 읽기 183어·9월 정원 해충 174어였고, 9월 당일 고난도 지목(21·33·34·37·39, 채점 전)에 30번은 없었어요.

수험 전략 밑줄 낱말만 따로 떼어 보면 안 풀려요. 첫 두 문장에서 글이 편드는 쪽을 잡고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 결론을 못 박은 뒤, 각 밑줄이 그 방향과 같은 쪽인지 앞뒤 절과 대조하세요. 어감이 부정적이거나(altering-overtaking) 상식과 다른 낱말(allow)은 그 문장이 주장·근거·경고 중 어느 자리인지 먼저 표시하고, 후보 낱말에 반의어를 넣어 문장이 더 매끄러워지는지 검산하세요.

09 빈칸 추론

31~34번

Blank-filling Inference · 4 items

지문의 논지가 가장 응축된 한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문장 전체를 근거로 그 자리를 복원하는 문항이에요. 31번은 낱말 하나, 32~34번은 구·절을 고르고, 3점이 가장 자주 붙는 자리(33·34번)를 품은 독해의 변별 구간이에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은 앞뒤 문장의 비유·예시를 환원한 어구이고, 오답은 지문 어휘를 재활용하되 방향을 뒤집거나(반대·극단) 지문이 문제로 지목한 쪽을 해법처럼 내놓는 선지로 설계돼요. 선지 길이와 지문 단어 겹침은 정답 신호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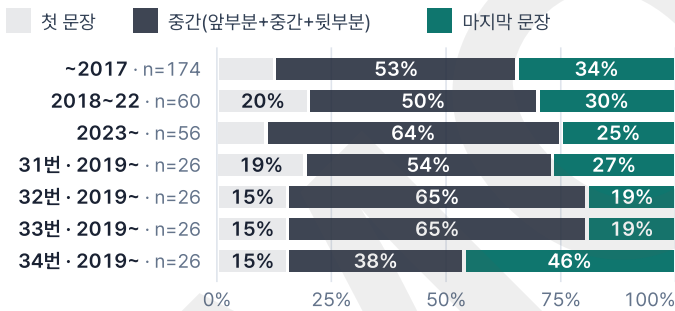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빈칸 추론

01 · POSITION

100% 스택

기간 · 번호별 분포

2023학년도 이후 빈칸 자리는 첫 문장 10.7%(6/56)·중간 64.3%(36/56)·마지막 문장 25%(14/56)였어요. 마지막 문장 빈칸은 2017학년도까지 34.5%(60/174)와 견줘 차이($z=-1.32$, $p\approx 0.1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자리는 답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정하는 정보예요.



→ 빈칸 위치는 답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정해요 — 첫 문장 빈칸이면 끝까지 읽고 재진술 문장을 찾은 뒤 돌아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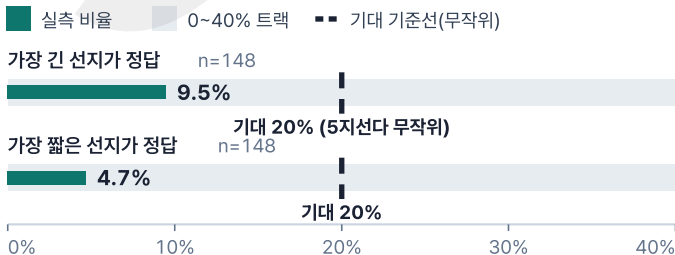
n=290 2004~2027학년도 9월까지(번호별은 2019학년도~) 출처 기출 코퍼스 백분율은 문항 기준

03 · MYTH CHECK

기준선 막대

기대치 대조

빈칸 추론에서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9.5%(14/148)로 무작위 기대 20%보다 낮고, 차이($z=-3.2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가장 짧은 선지가 정답인 비율은 4.7%(7/148)예요.



→ 선지 길이는 정답 신호가 아니에요 — 길이 대신 지문 논지와 방향이 맞는지만 확인해요.

n=148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DNA 02 자리·분량 DNA

- 31~34번 네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모두 빈칸 추론이었어요 — 자리 이동은 한 번도 없었어요 **총론 카드 04**
- 2023학년도 이후 빈칸 자리는 첫 문장 10.7%·중간 64.3%·마지막 문장 25%예요 — 자리는 답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정하는 정보예요 **카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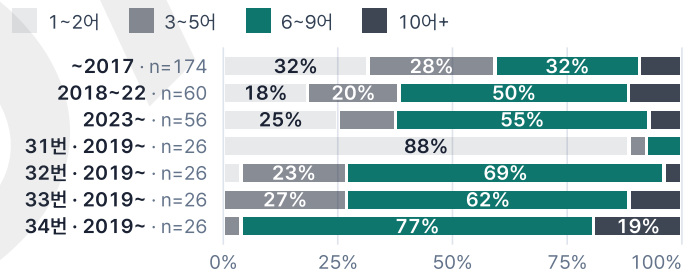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2 · LENGTH

100% 스택

기간 · 번호별 분포

2023학년도 이후 빈칸 정답구는 6~9어가 55.4%(31/56)로 가장 많고, 1~2어는 25%(14/56)예요. 번호별 중앙값은 31번 10어(최대 8어)·32번 6어(최대 10어)·33번 6.5어(최대 12어)·34번 8어(최대 12어)예요 — 어수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 정답구는 대개 절 길이예요 — 선지를 구 단위로 끊어 빈칸 자리에 통째로 넣어 읽어요. 어수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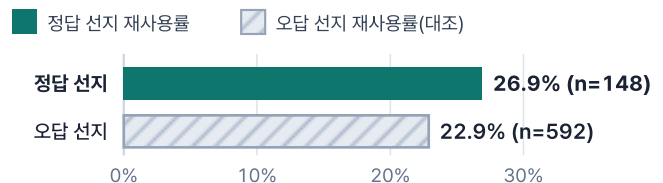
n=290 2004~2027학년도 9월까지(번호별은 2019학년도~) 출처 기출 코퍼스 백분율은 문항 기준

04 · VOCABULARY REUSE

쌍 가로 막대

정답구 제거본 · 자체 계산

빈칸 추론 정답 선지(148건)는 지문 단어를 26.9% 재사용하고, 오답 선지(592건)는 22.9% 재사용해요 — 차이 4%p로 「차이 없음」이에요. 지문 단어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방향(긍정/부정·범위)으로 갈라야 해요. 정답구를 지문에서 지운 뒤 계산한 값이에요.



→ 지문 단어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정답도 오답도 아니에요 — 겹치는 단어보다 방향(긍정·부정)과 범위가 지문과 같은지를 확인해요.

n=148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보존(preservation)과 보전(conservation)의 차이 — 보전은 변화를 인정하되 관리해 바라는 상태를 늘린다는 글이에요.

Ever since the early Enlightenment,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have been closely related. Taken as near synonyms, their meaning is to maintain an object^① or system insofar as possible in its present state, to protect it from change, usually for contemplation, research, display, and perhaps for use. Conservationists who distinguish their activities from preservation^② emphasize conservation's restorative aspects^③ — restoring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for example, or a painting, or a dinosaur, or an ecosystem. Conservationists acknowledge change but try to manage it^④ in order to prolong a _____ state. Preservationists (who may nonetheless call themselves conservationists) think of themselves more as protectors. They sometimes criticize conservationists for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 on yield or harvest or use, rather than interfering as minimally as possible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or system, as they would do. Preservationists would, for example, prefer to keep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as found" in a deteriorated state, for study, rather than to restore or repair it for display or use.

- ① 출발은 동의어 — 둘 다 '현 상태 유지'예요
 ② 여기서 두 진영이 갈려요 — 구분 선언이에요
 ③ 복원이 핵심 — 빈칸의 성질을 정하는 근거예요
 ④ 변화를 인정하고 관리해요 — 주어가 보전론자예요

✓ ① desired

↳ 복원·산출·이용을 우선하는 보전론자는 변화를 '원하는 상태'로 관리해요. 직전 문장의 restorative aspects가 근거예요.

· ② unstable

↳ '관리해 연장한다(manage it in order to prolong)'는 동사와 정면 충돌해요. 불안정한 상태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 ③ isolated

↳ 'protect it from change'에서 격리를 연상시키지만, 그건 보존 쪽 정의이고 상태의 성질을 말하는 말도 아니예요.

✗ ④ natural

↳ ecosystem·dinosaur 예시가 '자연 상태'를 부르지만, 보전론자는 복원·이용을 우선하지 자연 그대로를 두지 않아요.

✗ ⑤ delicate

↳ 마지막 문장의 deteriorated state에서 연상돼요. 그건 보존론자가 '그대로 두는' 상태이지 보전론자가 연장하는 상태가 아니예요.

설계 의도 동의어로 시작한 두 개념을 뒤에서 갈라놓고, 빈칸을 '보전' 쪽 정의의 문장 중간에 뒀어요. 낱말 하나지만 두 진영의 태도 차이를 정리해야 풀리는 개념 대비형이에요.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80.3%였어요.

합정 포인트 ④⑥가 지문 소재(생태계·노후 상태)를 재활용해요. 빈칸 문장의 주어가 Conservationists라는 것을 놓치면 보존론자의 태도로 답을 고르게 돼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1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정답** — 복원·산출·이용을 우선하는 보전론자는 변화를 '원하는 상태'로 관리해요. 직전 문장의 restorative aspects가 근거예요.

· ② **소거** — '관리해 연장한다(manage it in order to prolong)'는 동사와 정면 충돌해요. 불안정한 상태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 ③ **소거** — 'protect it from change'에서 격리를 연상시키지만, 그건 보존 쪽 정의이고 상태의 성질을 말하는 말도 아니예요.

✗ ④ **매력 오답** — ecosystem·dinosaur 예시가 '자연 상태'를 부르지만, 보전론자는 복원·이용을 우선하지 자연 그대로를 두지 않아요.

✗ ⑤ **매력 오답** — 마지막 문장의 deteriorated state에서 연상돼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말보다 비언어 행동이 더 많은 뜻을 전하니, 대면 토론에서 속마음을 감추기는 어렵다는 글이에요.

Speakers don't always put everything that's important to them into words^①. Very often you can understand a speaker's meaning by observing their nonverbal behaviors such as a change in a vocal tone or volume, eye contact,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 nonverbal behavior^②, effective listeners verbally confirm their interpretations of someone's nonverbal communication. A question as simple as "Do your nods indicate a yes vote?" can make sure that everyone is on the same wavelength. If, as nonverbal research indicates, more than half of a speaker's meaning is conveyed nonverbally^③, we are missing a lot of important information if we fail to "listen" to nonverbal behavior. Even Freud suggested that "he that has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may convince himself that no mortal can keep a secret. If his lips are silent, he chatters with his fingertips; betrayal oozes out of him at every pore." No wonder it is difficult for most people to^④ _____ in a face-to-face group discussion.

- ① 출발 — 화자는 말로 다 하지 않아요
 ② ㉠ 유인 — 해석의 어려움은 듣는 쪽 얘기예요
 ③ 의미의 절반 이상이 비언어로 새 나가요
 ④ No wonder = 바로 앞 인용의 귀결이에요

- ① pretend to pay attention to others
↳ 'listen' to nonverbal behavior에서 주의를 연상시키지만, 지문은 감추기의 어려움을 말하지 시늉을 말하지 않아요.
- ✓ ② conceal what they mean and feel
↳ 직전 프로이트 인용 'no mortal can keep a secret'의 환언이에요. 빈칸 앞 No wonder가 결론 표지예요.
- ✗ ③ interpret one's nonverbal behavior
↳ 앞의 'easy to misinterpret'을 기억하면 '해석이 어렵다'로 읽혀요. 그러나 빈칸 문장의 주체는 듣는 쪽이 아니라 감추려는 쪽이에요.
- ④ maintain the nonverbal communication
↳ 지문 어휘를 그대로 붙였지만 '유지하기 어렵다'는 명제는 어디에도 없어요.
- ✗ ⑤ encounter a chance to understand others
↳ 이해할 기회는 지문상 오히려 넘쳐요(의미의 절반이 비언어). 방향이 반대인 매력 오답이에요.

설계 의도 마지막 문장 빈칸에 결론을 두고, 근거를 바로 앞 인용문에 뒀어요. 앞부분의 '오해하기 쉽다'가 결론과 어긋나 보이게 배치해 주제(말하는 쪽/듣는 쪽)를 구별하는지 봐요.

합정 포인트 ㉠이 앞부분 misinterpret과 짝을 이뤄 강력해요. 빈칸 앞 'No wonder'는 직전 인용문의 귀결이라는 뜻이니 인용문과 대조해야 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2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소거 — 'listen' to nonverbal behavior에서 주의를 연상시키지만, 지문은 감추기의 어려움을 말하지 시늉을 말하지 않아요.
- ✓ ② 정답 — 직전 프로이트 인용 'no mortal can keep a secret'의 환언이에요. 빈칸 앞 No wonder가 결론 표지예요.
- ✗ ③ 매력 오답 — 앞의 'easy to misinterpret'을 기억하면 '해석이 어렵다'로 읽혀요. 그러나 빈칸 문장의 주체는 듣는 쪽이 아니라 감추려는 쪽이에요.
- ④ 소거 — 지문 어휘를 그대로 붙였지만 '유지하기 어렵다'는 명제는 어디에도 없어요.
- ✗ ⑤ 매력 오답 — 이해할 기회는 지문상 오히려 넘쳐요(의미의 절반이 비언어).

내 메모 — 내가 골린 오답과 그 이유

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감정이 지각을 왜곡해, 작은 유사성만으로도 기대하던 대상을 봤다고 오인하게 된다는 글이에요.

Imagination continues to function when perception is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s, in cases of emotion, disease, and sleep. Emotions dispose one to see the world in a distorted way^①. A coward's perceptual disposition is affected by his disposition to experience fear. A lover's expectations are affected by desire^②. In such cases, a small similarity between a perceived object and the thing one expects to see^③ can lead to the misidentification of the perceived object as that thing. The coward sees the enemy, while the lover sees the object of desire everywhere. The more affected one is, _____.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normally functions by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④, emotions dispose one to discern objects inaccurately. The greater the emotional investment,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 ① 대전제 — 감정이 지각을 왜곡해요
 ② 겁쟁이와 연인 — 기대가 지각을 밀어요
 ③ 작은 유사성으로도 오인 — 정답의 원문이에요
 ④ ①③ 유인 — 어휘만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 ✗ ① the more chances one gets to find differences
 ↳ 뒤 문장의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에서 differences를 가져왔지만, 감정은 차이 발견을 막는 쪽이라 방향이 반대예요.
- ✓ ② the less similarity is required for the thing to appear
 ↳ 'a small similarity ... can lead to the misidentification'의 환언이에요. 감정이 클수록 더 작은 유사성으로도 오인이 일어나요.
- ✗ ③ the sooner the perceived similarity fades away
 ↳ similarity를 재 활용해 끌리지만, 유사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덜 필요해지는' 거예요. 어휘는 같고 논리가 달라요.
- ④ the more easily one can sense the world the way it is
 ↳ 'distorted way'와 정반대예요. 감정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해요.
- ⑤ the less slowly different emotions are released
 ↳ 감정의 '방출 속도'는 지문에 없어요. 비교급 형태만 흉내 낸 선지예요.

설계 의도 비교급 구문(The more ..., the less ...)으로 빈칸을 만들고 근거를 빈칸 두 문장 앞에 뒀어요. 'the less ... is required'라는 부정 방향을 읽는지가 관건이에요. 136어로 8문항 중 가장 짧아요.

함정 포인트 ①③이 similarity-differences를 재 활용해요. 마지막 문장 'the more biased'와 같은 방향(오인이 쉬워짐)인지로 갈라야 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3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 ① 매력 오답 — 뒤 문장의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에서 differences를 가져왔지만, 감정은 차이 발견을 막는 쪽이라 방향이 반대예요.
- ✓ ② 정답 — 'a small similarity ... can lead to the misidentification'의 환언이에요. 감정이 클수록 더 작은 유사성으로도 오인이 일어나요.
- ✗ ③ 매력 오답 — similarity를 재 활용해 끌리지만, 유사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덜 필요해지는' 거예요.
- ④ 소거 — 'distorted way'와 정반대예요. 감정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해요.
- ⑤ 소거 — 감정의 '방출 속도'는 지문에 없어요. 비교급 형태만 흉내 낸 선지예요.

내 메모 — 내가 골린 오답과 그 이유

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미술품 가치는 변하니, 수집가의 구매는 미술의 미래 방향을 예측한다는 확신의 표명이라는 글이에요.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is uppermost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whether he buys for himself or as the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①, or it is acquiring nothing (beyond, that is, an object of personal enjoyment in the same class as a cat or a souvenir). In signing his check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② as a significant point attained by art as a whole. History, however, is open to anything and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has — at best —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day consensus.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③,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In the last analysis,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is the collector's own act^④. Through it he courageously affirms not only his aesthetic judgment, from whatever source it be derived, but the conviction that _____.

- ① 구매 = 미술사 한 조각 — ㉠ 유인이기도 해요
 ② 미래에 남는다는 믿음 — 정답의 원문이에요
 ③ ㉡ unshakable 은 여기와 정면 충돌이에요
 ④ 결국 수집가 본인의 결단이에요

✓ ①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의 환언이에요. 합의가 뒤집힐 걸 알면서도 미래에 거는 게 courageously의 뜻이에요.

· ② the artist behind the work is reliable

↳ 작가는 지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 ③ the art work tells the story of his time

↳ 'a piece of art history'에서 역사·시대를 연상시켜요. 그러나 지문은 과거·현재가 아니라 미래(future presence)를 보고 있어요.

· ④ his choice will lead to immediate profits

↳ market이 도입부에 있지만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로 시장을 넘어선 가치를 말해요. 즉각 이익은 반대 방향이에요.

✗ ⑤ the originality of the work is unshakable

↳ 'conviction'과 어울려 보이지만, 지문은 어떤 평가도 '현재 합의'일 뿐 뒤집힌다고 해요. unshakable은 정면 충돌이에요.

설계 의도 마지막 문장 빈칸의 근거를 세 문장 앞(future presence)에 두고, 정답을 'predict where art is going'이라는 비직관적 표현으로 바꿨어요. 강사 집계 (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82.4%로 6월 최고였어요.

합정 포인트 ㉡가 '확신'이라는 낱말 곁에 맞아 강력해요. 'History is open to anything'·'all but certain to be displaced'와 양립하는지로 걸러야 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4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정답** —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of the work'의 환언이에요. 합의가 뒤집힐 걸 알면서도 미래에 거는 게 courageously의 뜻이에요.

· ② **소거** — 작가는 지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 ③ **매력 오답** — 'a piece of art history'에서 역사·시대를 연상시켜요. 그러나 지문은 과거·현재가 아니라 미래(future presence)를 보고 있어요.

· ④ **소거** — market이 도입부에 있지만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로 시장을 넘어선 가치를 말해요. 즉각 이익은 반대 방향이에요.

✗ ⑤ **매력 오답** — 'conviction'과 어울려 보이지만, 지문은 어떤 평가도 '현재 합의'일 뿐 뒤집힌다고 해요. unshakable은 정면 충돌이에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발표 불안은 집단에서 배제되면 생존이 위태롭던 진화의 흔적이니, 소속이 곧 생존이었다는 글이에요.

What stresses you out more than anything? Perhaps it's speaking in front of others. For many, this is so stressful it even has a name: glossophobia^①. The explanation for why it's uncomfortable to have everyone's eyes on you is probably that, for almost all of our evolution, it's been extremely important not to be excluded from the group. To prepare for what might happen if you are evaluated and socially shamed — and thus alienated from the group — your brain fires up the stress system and your heart begins to beat harder. Our natural sensitivity to being evaluated by other people^② is another example of our brain not being adapted to the modern world^③. If we give a bad presentation at work, we are unlikely to lose our job and thus risk starving to death. But in the world we long ago evolved for, exclusion from the group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④. _____ was not merely a matter of safety but also of survival. You simply couldn't make it on your own.

* starve: 굶주리다

- ① 발표 공포 — 이름까지 붙은 흔한 증상이에요
- ② 유인 — 개인 심리로 새면 틀려요
- ③ 현대에 안 맞는 뇌 — 진화의 흔적이에요
- ④ 배제 = 생사 → 그 반대말이 빈칸에 들어가요

✓ ① Belonging

직전 문장 'exclusion from the group ... life and death'의 반대말이자, 다음 문장 'couldn't make it on your own'의 요약이에요.

✗ ② Confidence

발표 불안이라는 도입 소재에서 자신감을 연상하게 돼요. 그러나 빈칸 문장은 집단과 생존을 말하지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 ③ Endurance

survival과 결이 비슷해 보이지만, 지문은 버티기가 아니라 집단에 속하기를 말해요.

· ④ Learning

학습은 지문에 없어요.

✗ ⑤ Competition

'진화·생존'에서 경쟁을 떠올리는 통념형 오답이에요. 지문은 정반대로 혼자선 못 산다고 해요.

설계 의도 1어 명사 빈칸을 결론 직전 문장에 두고, 근거를 바로 앞뒤 두 문장에 붙여 봤어요. 친숙한 소재(발표 불안·진화)로 9월 세트의 진입 문항 역할이에요.

함정 포인트 ⑤가 진화 소재의 통념(생존=경쟁)을 찌르고, ②가 도입부 소재를 재활용해요. 'not merely safety but survival'과 앞 문장 exclusion을 잇는지가 관건이에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1번 선지 판정 되짚기

9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정답 — 직전 문장 'exclusion from the group ... life and death'의 반대말이자, 다음 문장 'couldn't make it on your own'의 요약이에요.

✗ ② 매력 오답 — 발표 불안이라는 도입 소재에서 자신감을 연상하게 돼요.

· ③ 소거 — survival과 결이 비슷해 보이지만, 지문은 버티기가 아니라 집단에 속하기를 말해요.

· ④ 소거 — 학습은 지문에 없어요.

✗ ⑤ 매력 오답 — '진화·생존'에서 경쟁을 떠올리는 통념형 오답이에요. 지문은 정반대로 혼자선 못 산다고 해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감각계는 예상 밖 자극에 민감해서, 자극을 예측하는 어른은 아이보다 간지럼을 덜 즐긴다는 글이에요.

Not only are our sensory systems organized to detect change, but **they are most tuned to stimuli that are unexpected and surprising**. When you move your body and produce tactile sensations, **these stimuli are less noticeable to you than are sensations produced by another individual** ①. The sensations of your own legs touching one another ② when you cross your legs, for example, are generally less noticeable than a similar touch on your leg would be if someone sitting next to you brushed their leg against yours. Likewise, **your reaction to your cat jumping onto your lap** ③ is likely to be much greater if you have your eyes closed when it happens. This differential response to surprising tactile stimuli appears to be a defense mechanism that has adaptive significance ④. It is probably also the reason why being tickled by someone else is more effective at producing an emotional reaction than trying to tickle yourself. Our enjoyment of being tickled generally diminishes as we age. This is likely due to the fact that adults are _____, and hence are more difficult to surprise, than are children.

* tactile: 촉각의 ** tickle: 간질이다

- ① 내가 만든 자극은 덜 느껴져요 — 정답의 뿌리예요
- ② 예시 1 — 예측되는 접촉은 맛있게요
- ③ 예시 2 — 못 볼 때 반응이 커져요
- ④ 유인 — adapt 재활용, 방향은 반대예요

- ① more cautious of acting immediately
↳ 행동의 신중함은 지문에 없어요.
- × ② less sensitive to others' reactions
↳ sensory-sensations에서 sensitive가 끌리고 '남'도 등장해요. 그러나 지문은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극의 예측 여부를 말해요.
- ③ stronger in their ability to focus
↳ 집중력은 지문에 없어요. 'more difficult to surprise'와도 이어지지 않아요.
- × ④ slower in adapting to changes
↳ detect change-adaptive를 재활용했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적응이 느리면 오히려 더 잘 놀라야 해요.
- ✓ ⑤ better at anticipating stimuli
↳ 빈칸 뒤 'hence are more difficult to surprise'의 원인이예요. 스스로 만든 자극이 덜 느껴진다는 첫 예시가 근거예요.

설계 의도 마지막 문장 빈칸을 'hence' 앞 원인 자리에 두고, 근거를 지문 첫머리(예상 밖 자극에 조율)와 예시에 끌어 댔어요. 184어로 8문항 중 가장 길어요.

합정 포인트 ②④가 지문 어휘(sensitive-adapt)를 재활용해요. 빈칸 뒤 'hence ... difficult to surprise'와 인과가 맞는 선지만 살아남아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2번 선지 판정 되짚기

9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소거 — 행동의 신중함은 지문에 없어요.
- × ② 매력 오답 — sensory-sensations에서 sensitive가 끌리고 '남'도 등장해요. 그러나 지문은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극의 예측 여부를 말해요.
- ③ 소거 — 집중력은 지문에 없어요.
- × ④ 매력 오답 — detect change-adaptive를 재활용했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 ✓ ⑤ 정답 — 빈칸 뒤 'hence are more difficult to surprise'의 원인이예요. 스스로 만든 자극이 덜 느껴진다는 첫 예시가 근거예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그림과 달리 언어는 풍경을 하나씩 묘사할 수밖에 없는데, 발자크는 묘사를 움직이는 몸에 묶어 해결했다는 글이에요.

While a picture transports the spectator almost instantly into a landscape, language can only describe it detail by detail^①, bringing it slowly into the reader's mind. How can a literary work capture the feel of a place in both its atmosphere and its topography without losing the reader in a descriptive forest? One solution, proposed by Balzac, is to _____. Balzac's novels open with detailed portrayals of the setting^②, but the descriptions never threaten the reader's sense of orientation because they trace a precise path through the fictional world^③. When the novel describes a house, the narrator inspects the building in a systematic manner, approaching it from the street, examining the garden and the front, entering through the main door, and walking from room to room, as would a real estate agent or a prospective resident. The reader ends up with a precise notion of the layout^④ of the building, all the way down to the floor plan.

* topography: 지형

- ① 언어는 순차적 — 그림과 출발이 달라요
- ② ㉠ 유인 — detail 재 활용, 해법은 '경로'예요
- ③ 정확한 경로 — 정답 비유의 뿌리예요
- ④ 결과 — 독자는 평면도까지 얻어요

- ① flood the reader's mind with abstract images
↳ 'descriptive forest'가 바로 문제 상황이에요. 해법 자리에 문제를 넣은 반대 방향이에요.
- ✗ ② present small objects in detail
↳ detailed portrayals-detail by detail에서 어휘가 겹쳐요. 그러나 세부 묘사는 이미 있는 조건이고, 해법은 '경로'예요.
- ✓ ③ tie description to a moving body
↳ 'trace a precise path'-'walking from room to room, as would a real estate agent'의 비유적 환언이에요. 움직이는 몸 = 걸어 다니는 서술자예요.
- ④ distance readers from a scene
↳ 지문은 독자를 공간 안으로 데려가요(precise notion of the layout). 방향이 반대예요.
- ⑤ portray a landscape from upward angles
↳ landscape를 재 활용했지만 '위에서 보는 각도'는 지문에 없고, 경로 따라 걷기와 무관해요.

설계 의도 빈칸을 세 번째 문장에 두고 근거를 전부 뒤에 뒀어요. 정답은 'moving body'라는 비유라 지문 표현과 직접 겹치지 않아요 — 당일 평가(채점 전)에서도 정답-지문 연결이 간접적이라고 지목됐어요.

합정 포인트 ㉠가 detail 어휘 재 활용으로 강력해요. 질문 문장(without losing the reader in a descriptive forest)이 세부 묘사를 문제로 규정했다는 걸 봐야 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33번 선지 판정 되짚기

9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소거 — 'descriptive forest'가 바로 문제 상황이에요. 해법 자리에 문제를 넣은 반대 방향이에요.
- ✗ ② 매력 오답 — detailed portrayals-detail by detail에서 어휘가 겹쳐요.
- ✓ ③ 정답 — 'trace a precise path'-'walking from room to room, as would a real estate agent'의 비유적 환언이에요. 움직이는 몸 = 걸어 다니는 서술자예요.
- ④ 소거 — 지문은 독자를 공간 안으로 데려가요(precise notion of the layout).
- ⑤ 소거 — landscape를 재 활용했지만 '위에서 보는 각도'는 지문에 없고, 경로 따라 걷기와 무관해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농담의 핵심은 놀라움이고, 청중은 협곡을 뛰어넘듯 약간의 수고를 들일 때 더 큰 즐거움을 얻는다는 글이에요.

Surprise is the fundamental joke mechanism^①. Most punch lines rely on an element of surprise for their effect — that's why they're not funny the third time you hear them. The joke-teller's skill lies in **judging exactly how much of a surprise the audience is prepared to take**^②. He must make a series of assumptions about what they will understand, what their reference points are, and how relaxed they appear to be^③. Jerry Seinfeld once compared telling a joke to attempting to leap a metaphorical canyon^④, taking the audience with you. The setup to the joke is the near-side cliff, and the punch line is the far side. If they're too far apart, the listeners don't make it to the other side. And if they are too close together, **the audience just steps across the gap and doesn't experience a thrilling leap** of any kind. The joke-hearers get far more pleasure from the joke _____.

* canyon: 협곡

- ① 첫 문장이 대전제 — ②는 여기서 죽어요
- ② 관건은 놀라움의 양 조절이에요
- ③ ① 유인 — 화자가 가능할 조건일 뿐이에요
- ④ 협곡 비유 — 셋업이 이쪽 절벽이에요

✗ ① if they feel relaxed enough to laugh

↳ 'how relaxed they appear to be'를 재활용했어요. 그건 화자가 가능하는 조건이지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에요.

· ② when it matches their expectations

↳ 첫 문장 'Surprise is the fundamental joke mechanism'과 정반대예요.

· ③ if it is about someone else

↳ 농담의 대상은 지문에 없어요.

✓ ④ if they have to do a little work

↳ 협곡 비유의 결론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그냥 건너서' 스릴이 없다 → 약간의 도약(수고)이 있어야 즐거워요.

✗ ⑤ when they fail to fully understand it

↳ 'too far apart → don't make it'을 과장한 극단형이에요. 못 건너면 즐거움도 없으니 반대예요.

설계 의도 마지막 문장 빈칸의 정답을 'a little work'라는 비유로 바꿔, 협곡 비유(setup=절벽, punch line=건너편)를 해석해야 풀리게 했어요. 세 번째 들으면 안 웃긴 이유와도 이어져요.

합정 포인트 ①이 지문 어휘(relaxed)로, ②가 극단 과장으로 끝어요. 비유의 두 실패(너무 멀다·너무 가깝다) 사이의 적정 지점을 고르는 문제라는 걸 잡아야 해요.

6월→9월 소재가 추상 개념(보존·지각·미술 가치)에서 친숙한 일상(발표 불안·간지럼·소설 묘사·농담)으로 내려왔고, 어수는 655→675어로 비슷해요. 대신 33·34번 정답이 moving body·a little work 같은 비유로 바뀌어 지문 표현과 직접 겹치지 않아요 — '지문은 쉽게, 선지는 어렵게'가 더 뚜렷해졌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31번은 낱말 하나, 32~34번은 4~10어 구·절이라는 틀을 지켰고, 마지막 문장 빈칸이 8문항 중 4개(6월 32·34번, 9월 32·34번)였어요. 출제진이 돌린 손잡이는 셋이에요. ① 정답 표현의 거리 — 6월 34번 predict where art is going, 9월 33번 moving body·34번 a little work처럼 정답을 지문 어휘가 아닌 비유·환언으로 써서 해석을 요구해요. ② 오답 재료 — 6월 33번 differences, 9월 32번 sensitive·33번 detail처럼 지문 어휘를 재활용하되 방향을 뒤집어요. ③ 지문 난도 — 6월은 추상 개념으로 읽기 자체를 무겁게 했지만(강사 집계 오답률 34번 82.4%), 9월은 지문을 친숙하게 내리고 선지만 변별했어요(당일 평가·채점 전 '지문 쉽고 오답 매력도 높음'). 선지 길이는 9월 32번은 가장 짧은 선지, 34번은 가장 긴 선지가 정답이라 신호가 아니었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에서도 31~34번은 빈칸 추론 네 문항 그대로이고, 3점은 33·34번 두 자리에 붙어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2019학년도 이후 26회 모두 같은 자리였고, 33·34번은 3점이 가장 자주 붙은 자리예요. 6월·9월도 33·34번이 3점이었어요.**P2** 31번 정답은 1~2어 낱말이고, 32~34번은 4~10어 구·절이에요 — 10어를 넘는 정답구는 많아야 한 문항이에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 기준 2019학년도 이후 31번 1~2어 88.5%, 32~34번 중앙값 6~8어, 2023학년도 이후 10어 이상 7.1%. 6월·9월 8문항은 1·6·10·7어, 1·4·6·8어였어요.**P3** 34번 빈칸은 마지막 문장에 오고, 정답구는 지문 어휘를 옮기지 않은 비유·환언형이 두 문항 이상이에요 — 근거는 빈칸 옆이 아니라 앞쪽 비유·예시 문장에 있어요.**근거** 2019학년도 이후 34번 빈칸의 46.2%가 마지막 문장이예요(기출 통계 카드·표본 26건 참고). 6월 34번 where art is going·9월 33번 moving body·34번 a little work가 비유였어요.**P4** 매력 오답의 주력은 지문 어휘를 재활용하되 방향을 뒤집은 선지예요 — 단어 겹침으로는 정답과 오답이 갈리지 않아요.**근거** 기출 통계 카드 기준 정답 선지 재사용률 26.9% vs 오답 22.9%로 차이 없음. 6월 33번 differences, 9월 32번 sensitive·33번 detail이 그 계열이었어요.**P5** 소재는 심리·지각 계열과 예술·문학 계열이 각각 한 문항 이상 들어가고, 변별은 지문 난도보다 33·34번 선지 매력도로 만들어요.**근거** 6월(비언어·지각 / 미술 수집)·9월(발표 불안·촉각 / 소설 묘사·농담) 모두 그 조합이었고, 당일 평가(채점 전) 「지문 쉽고 오답 매력도 높음」·33·34번 고난도 지목이 6회 연속이에요.**수험 전략** 선지를 빈칸에 통째로 넣고 앞뒤 문장의 비유·예시와 같은 뜻인지 확인하는 루틴을 고정하세요. 지문 단어가 보이는 선지에 끌리면 방향(긍정·부정, 원인·결과)을 되문고, 선지 길이로는 거르지 마세요 — 9월엔 가장 짧은 선지(32번)와 가장 긴 선지(34번)가 모두 정답이었어요. 난이도는 6월(어려움)→9월(쉬움)로 널뛰어 단정하지 않아요 — 9월 채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0 무관한 문장 35번

Irrelevant Sentence · 1 item

도입 문장이 화제와 논지 축을 고정한 뒤, 번호 붙은 다섯 문장 중 그 축에서 벗어난 하나를 골라내는 문항이에요. 간접쓰기 구간 (35~39번)의 입구에 있는 2점 자리라, 뒤의 순서·삽입에 시간을 넘겨주는 칸이에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무관 문장은 지문의 핵심어(6월 mass, 9월 tourists·experience)를 그대로 품되 인과 설명이 아니라 효용·장점을 말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요. 나머지 넷에는 Because of·As a result·For the same reasons 같은 연결어나 앞 문장의 명사구 반복이 심겨 서로를 받아요.

DNA 02 자리·분량 DNA

- 35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무관한 문장이었어요 — 자리가 흔들린 회차가 없어요 **총론 카드 04**
- 2015학년도 이후 38회 시험의 3점 자리 지도(265문항)에 35번은 한 번도 오르지 않은 2점 자리예요 — 배점이 고정이라 시간을 아껴 36~39번에 돌리는 칸이에요 **총론 카드 02**
- 번호 기록은 2015학년도 이후 2027학년도 9월까지 40건이 검산용으로 쌓여 있고, 카드 스스로 「번호 분포는 검산용 기록」이라 못 박아요 — 풀이는 도입 문장이 고정한 화제 축에서 벗어난 문장을 지시어·병렬 표지로 가려내는 쪽이에요 **총론 기록표**

STATISTICS 숫자로 보는 무관한 문장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구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SLOT MAP **타일 x2**

총론 카드 발췌 · 이 챕터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35번은 **26회 중 26회 무관한문장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35번 0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총론 카드 04 발췌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고정도
35	무관																										100%	

최빈 유형과 같음 다른 유형(표기) 미수집

3점 자리 · 2015학년도~ · 총론 카드 02 발췌

학년도	2015	2016	202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3점 횟수
35	2점													0회

3점 문항

2점(수집 문항)

미상(그 회차 미수집)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26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6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02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무관한 문장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40건 중앙값 139.5어**(가운데 절반 **131.3~149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40 이 유형 지문 40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

❖ 몸집이 클수록 가벼운 사고에도 크게 다친다는 글에 'BMI로 건강을 간편히 점검할 수 있다'는 문장이 끼어 있어요.

The bigger someone is, the more damage they can do to themselves^① through even a relatively innocuous accident. Despite toddlers falling over and bumping themselves regularly, the injuries they sustain are rarely serious. ① Their relatively thick bones in comparison to their mass mean they rarely build up enough energy, even at top speed, to do themselves much damage. ② Because of their increased mass^② (compounded by the fact that they are falling from a greater height and that their reactions may be slower), adults falling over will impact the ground with a much larger force. ③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mass and bone strength means that although their bones are thicker than a toddler's in absolute terms, they may not be relatively thick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larger impact caused by their increased mass. ④ The body mass index (BMI) can serve as a convenient way for non-experts^③ to examine their health conditions in daily lives. ⑤ For the same reasons^④, taller people have been found to suffer more fall-related injuries — like hip breaks — than shorter people.

- ① 첫 문장이 축을 박아요 — 몸집이 클수록 피해가 커요
- ② 아기 → 어른으로 대조가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 ③ mass만 빌린 효용 진술 — 낙상·부상 얘기가 아니에요
- ④ ⑤를 건너뛰고 ③의 논리를 곧장 받아요 — 이음새예요

- ① Their relatively thick bones in comparison to their mass mean they rarely build up enough energy, even at top speed, to do themselves much damage.
↳ 'Their' 가 앞 문장의 toddlers 를 받아 '아기는 왜 덜 다치냐'를 설명해요 — 질량 대비 두꺼운 뼈라는 핵심 변수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 ② Because of their increased mas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they are falling from a greater height and that their reactions may be slower), adults falling over will impact the ground with a much larger force.
↳ 'Because of their increased mass' 로 어른 쪽 대조를 열어요 — 질량·낙하 높이·반응 속도까지 첫 문장의 'bigger → damage' 를 그대로 전개해요.
- × ③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mass and bone strength means that although their bones are thicker than a toddler's in absolute terms, they may not be relatively thick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larger impact caused by their increased mass.
↳ 'nonlinear relationship' 같은 추상어와 although 양보절 때문에 물리학으로 새는 듯 보여요. 하지만 '어른 뼈가 왜 상쇄 못 하나'를 푸는 핵심 설명이에요.
- ✓ ④ The body mass index (BMI) can serve as a convenient way for non-experts to examine their health conditions in daily lives.
↳ 'body mass' 로 mass 를 흉내 내지만 낙상·부상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건강 점검이라는 딴 화제예요. 앞을 받는 표지가 없고 뒤 문장도 이 문장을 받지 않아요.
- × ⑤ For the same reasons, taller people have been found to suffer more fall-related injuries — like hip breaks — than shorter people.
↳ 'taller people' 'hip breaks' 가 새 집단·새 사례처럼 튀어요. 'For the same reasons' 가 질량·빠 강도 논리를 받아 첫 문장의 주장을 닫는 결론이에요.

설계 의도 지문에 네 번 나온 'mass' 를 'body mass index' 로 되받아 단어 일치만 보는 학생을 걸러요. 설명문의 인과 사슬 사이에 효용 진술 하나를 끼워, 표지 없는 문장을 앞뒤 이음새로 잡아내는지 봐요.

합정 포인트 ③의 추상어(nonlinear)와 ⑤의 새 집단(taller people)이 흔들어요. 두 문장 다 앞을 받는 표지(although their bones ... thicker / For the same reasons)를 달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정리돼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

관광객은 소수 문화 자산만 짧고 강하게 쓴다는 글에 '국제 축제가 관광객을 지역사회와 가깝게 한다'는 문장이 끼어 있어요.

Tourists make intense and short-term use of a very limited number of historical assets ^① and cultural attractions, including material and non-material ones. ② The reason is to be found in the fact that tourist experience in cities is measured in days and hours, even in minutes in the case of cultural attractions or seconds in particular sites. ③ In addition, cultural tourists do not often repeat their visit to the same place, and therefore they are continuously looking for new attractions. ④ As a result of this, a process of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takes place ^② since only a few buildings and only a small number of social representations are able to be adapted to the tourist visit. ⑤ International festivals bring tourists closer to the community ^③ by offering a highly interactive and engaging experience. ⑥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④ made for locals and the one made for tourists is that in the second case, only a small choice is made among the largest, most impressive and unique resources.

- ① 축은 '한정된 자산을 짧고 강하게' 예요
- ② 이유 둘을 받아 '선별' 이라는 결과로 가요
- ③ tourists-experience만 겹치는 효용 진술이에요
- ④ ⑤를 건너뛰고 ⑥의 명사구를 그대로 받아요

- ① The reason is to be found in the fact that tourist experience in cities is measured in days and hours, even in minutes in the case of cultural attractions or seconds in particular sites.
↳ 'The reason is to be found' 가 첫 문장의 'short-term use' 이유를 바로 대요 — 며칠·몇 시간·몇 분·몇 초로 줄어드는 시간 단위가 그 근거예요.
- × ② In addition, cultural tourists do not often repeat their visit to the same place, and therefore they are continuously looking for new attractions.
↳ 'looking for new attractions' 가 '한정된 자산' 과 어긋나 보여요. 하지만 'In addition' 으로 ②에 이유를 보태고, 재방문이 없어 선별이 일어난다는 ③의 전제가 돼요.
- ③ As a result of this, a process of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takes place since only a few buildings and only a small number of social representations are able to be adapted to the tourist visit.
↳ 'As a result of this' 로 ④의 이유를 받아 '소수 자산만 선별된다'는 결과를 내요 — 첫 문장의 'very limited number' 가 여기서 설명돼요.
- ✓ ④ International festivals bring tourists closer to the community by offering a highly interactive and engaging experience.
↳ 'tourists-experience' 는 겹치지만 축제가 지역사회와 가깝게 한다는 효용 진술이에요. 선별·한정이라는 논지와 무관하고 앞뒤 어느 문장도 이 문장을 받지 않아요.
- × ⑤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made for locals and the one made for tourists is that in the second case, only a small choice is made among the largest, most impressive and unique resources.
↳ 'locals' 가 새로 나와 화제가 바뀐 듯 보여요. 'the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가 ⑥의 선별 과정을 받아 '가장 크고 인상적인 것만' 으로 첫 문장을 담아요.

설계 의도 'tourist(s)' 가 다섯 번, 'experience' 까지 겹치게 해 어휘 대조를 무력화하고, 이유→결과→차이의 인과 사슬 사이에 홍보문 같은 효용 진술을 끼웠어요. 연결어가 촘촘한 지문에서 표지 없는 문장을 골라내는지 봐요.

함정 포인트 ②의 'new attractions' 와 ⑥의 'locals' 가 흔들어요. ②는 In addition 으로 ①에 붙고, ⑤는 ③의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를 그대로 받으니까 남는 건 표지 없는 ④뿐이에요.

6월→9월 소재가 신체·물리(낙상 부상)에서 도시 관광(문화 자산 선별)으로 옮겨갔고, 원문 길이는 155어→153어로 거의 같아요. 6월 무관 문장은 'mass' 한 단어로 붙었지만 9월은 'tourists-experience' 두 단어가 겹쳐 어휘 대조가 더 무뎠어요 — 대신 The reason-In addition-As a result 연결어가 촘촘해 이음새 판정은 쉬워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인과 사슬이 또렷한 설명문(질량과 뼈 강도, 체류 시간과 자산 선별)을 골라, 지문 핵심어(mass / tourists-experience)를 그대로 품은 효용 진술('convenient way', 'engaging experience')을 끼워 넣었어요. 무관 문장은 앞을 받는 연결어·지시어가 없는 새 주어로 시작하고, 뒤 문장은 'For the same reasons'·'the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로 그 문장을 건너뛰어 앞 논지를 받았어요. 6월→9월로 가며 겹치는 핵심어가 한 단어에서 두 단어로 늘어 어휘 대조의 효과를 더 줄였고, 연결어는 더 촘촘해졌어요 — 출제진은 '단어가 겹치나'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진술인가'와 '앞뒤가 이 문장을 받나'로 판정하게 설계했어요. 무관 문장이 주변 설명 문장보다 짧은 편이었지만(21어·16어), 길이는 부수 단서일 뿐이에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35번도 무관한 문장 유형·2점 자리 그대로예요.

근거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35번은 무관한 문장이었고, 2015학년도 이후 3점 자리 지도에 35번은 없었어요(기출 통계 카드).

P2 무관 문장은 지문 핵심어를 그대로 품되, 인과 설명이 아닌 효용·장점 진술로 결이 바뀌는 「핵심어 재활용형」이에요.

근거 6월 'body mass index ... convenient way', 9월 'festivals ... engaging experience' — 둘 다 핵심어만 빌린 효용 진술이었어요(6월·9월 실물).

P3 판정 근거는 무관 문장의 앞뒤 이음새에 있어요 —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연결어나 명사구 반복으로 그 문장을 건너뛰고 곧장 이어져요.

근거 6월 'For the same reasons', 9월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selection of cultural assets' 가 앞 문장의 논리·명사구를 받았어요(6월·9월 실물).

P4 무관 문장은 앞 문장의 명사구·지시 대상을 실제로 받지 못해요 — 표지 없는 새 주어로 시작하거나, 표지가 있어도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없어요.

근거 6월 'The body mass index (BMI)'·9월 'International festivals' 모두 표지 없는 새 주어였고, 앞 문장의 어떤 명사구도 받지 않았어요(6월·9월 실물).

P5 난이도는 ★2 안팎 평이가 기본 전망이에요 — 간접쓰기 변별은 37·39번 쪽이에요.

근거 6월·9월 고난도 지목(EBS-메가·대상·종로)에 35번은 없고 37번은 모두 들었어요(외부 리서치 · 9월은 당일 평가·채점 전).

수험 전략 핵심어가 들어 있다고 흐름에 맞는 건 아니에요. 문장마다 '무엇에 대한 진술인가'를 한 단어로 적고, 그 문장을 빼도 앞뒤가 연결어·명사구 반복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이음새를 확인하세요. 인과 설명문 사이에 끼어든 효용·장점 문장이 후보예요. 독해 예산(분당 80어)을 생각해 35번은 2분 안에 끊고 36번으로 넘어가요.

11 글의 순서

36~37번

Paragraph Order · 2 items

주어진 글 뒤에 (A)(B)(C) 세 단락을 알맞은 차례로 배열하는 문항이에요. 삽입(38~39번)과 함께 간접쓰기 구간의 변별을 떠맡는 자리라, 연결사 자체가 아니라 지시 대상·기능어 한 개가 전제하는 내용이 어느 블록에 있는지로 경계를 판정하는 힘을 물어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선지는 (A)-(C)-(B)부터 (C)-(B)-(A)까지 다섯 배열로 고정돼요. 첫 자리를 정하면 남은 두 블록의 선후만 남기 때문에, 출제진은 첫 자리보다 둘째·셋째 갈림길에 표층 어휘가 겹치는 두 블록을 놓고, 주어진 글의 낱말을 되받는 블록을 첫 자리 미끼로 써요.

DNA 02 자리·분량 DNA

- 36·37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글의 순서였어요 — 유형이 흔들린 적 없는 자리예요 **총론 카드 04**
- 2020학년도 이후 순서 정답 46건 중 (A)로 시작하는 정답은 2건(4.3%)이에요 — 4.3%는 0%가 아니라서 첫 단락은 주어진 글과의 연결 고리로만 판단해요 **카드 01**
-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에서 37번 28회·36번 3회에 붙었고, 2027학년도 6월·9월 모두 37번이 3점 자리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총론 카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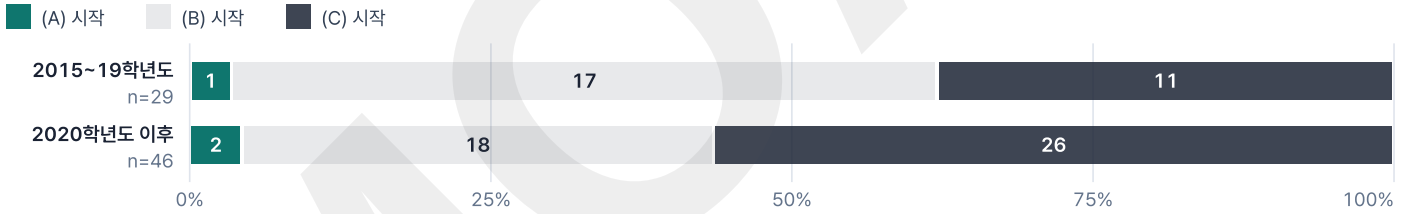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글의 순서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FIRST PARAGRAPH **100% 스택**

첫 단락 · 기간 비교

2020학년도 이후 순서 정답 46건 중 (A)로 시작하는 정답은 2건(4.3%)이에요 — 4.3%는 0%가 아니예요.



→ (A) 시작이 드물다는 건 기록이지 규칙이 아니예요 — 첫 단락은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과 연결 고리로만 판단해요.

n=75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백분율은 문항 기준

02 · SLOT MAP **타일 x2**

총론 카드 발췌 · 이 챕터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36·37번은 26회 중 26회 글의 순서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36번 3회·37번 28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 총론 카드 04 발췌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고정도
36	순서									100%
37	순서									100%

☐ 최빈 유형과 같음 ☒ 다른 유형(표기) ☐ 미수집

3점 자리 · 2015학년도 ~ · 총론 카드 02 발췌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3점 횟수
36	2점													3회
37	2점	3												28회

☒ 3점 문항 ☐ 2점(수집 문항) ☐ 미상(그 외 미수집)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52 n = 번호 2개 × 수집 회차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6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식물의 방어는 독·악소 같은 개체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이웃 경보·포식자 호출로 이어지며, 곤충과의 진화적 대화로 교착을 유지한다는 글이에요.

Plants have evolved defenses almost as diverse as the number of genera. Some load their tissues with harsh compounds^① that either are unpleasant to insects or intoxicate them, encouraging the insects to go bother another plant or at least slowing down their eating.

- (A) The back-and-forth is not a matter of natural balance, but more like a drawn-out evolutionary conversation. New plant defenses unintentionally select for insects with ways to get around them, which in turn help bring about more resilient and resistant plant species. New variations, shading into entire new forms and adaptations, maintain the stalemate.
- (B) Plants can release chemical compounds^② that let their same-species neighbors know that an attack is likely coming, pushing those nearby plants to start building up defensive compounds in their tissues. Some of these cues even attract insect predators, a call for an assist that benefits both the plant and its bug-eating collaborators.
- (C) Structural defenses like thick coats of wax^③ on leaves may prevent some insect species from damaging the plant tissues altogether. Nor are individual plants entirely on their own^④ while under attack.

*genera: genus의 복수, (생물 분류상의) 속(屬)

- ① compounds 반복이 (B)를 첫 자리로 당겨요
 ② (B) 혼자가 아니라는 말의 실체예요
 ③ (C) 화학 방어 다음은 구조 방어로 이어져요
 ④ Nor 한 단어가 (B)를 열어요 — 여기가 갈림길

- ① (A) - (C) - (B)
↳ (A)의 'The back-and-forth'가 받을 주고받음이 주어진 글에 없어요 — 교착을 맺는 결론 블록을 첫 자리에 두면 방어 목록이 결론 뒤로 밀려요.
- ② (B) - (A) - (C)
↳ (B)를 앞세워도 (C)가 마지막이 돼서 'Nor are individual plants entirely on their own'이 뒤에 받을 문장 없이 끝나요.
- ✗ ③ (B) - (C) - (A)
↳ 주어진 글의 compounds를 (B)의 chemical compounds가 되받아 첫 자리로 끌려요. 하지만 이웃 경보는 'Nor ... on their own'(C) 뒤에만 설 수 있어요.
- ✗ ④ (C) - (A) - (B)
↳ (C)까지 맞히고 (A)의 진화 서사를 이어 붙이기 쉬워요. 그러나 (C) 끝 'Nor ... on their own'을 풀어 주는 이웃 경보(B)가 결론 뒤로 밀려요.
- ✓ ⑤ (C) - (B) - (A)
↳ 'Some load ... compounds'→'Structural defenses'로 방어 종류를 잇고, 'Nor ... on their own'이 (B)의 이웃 경보를 열어, (A)가 전체를 진화적 대화로 닫아요.

설계 의도 화학 방어→구조 방어→이웃 경보→진화적 교착의 4단 사다리를 연결사 없이 쌓고, 갈림길을 부정 도치 'Nor' 한 단어에 걸었어요. 기능어 하나의 무게를 읽는지 보는 문항이에요.

함정 포인트 compounds/chemical compounds 표층 반복이 (B)를 첫 자리로 당기고, (A)의 진화 서사가 (B)보다 먼저 오고 싶어해요. 'Nor'가 열어 둔 자리를 (B)가 채워야 한다는 원칙 하나로 끝나요.

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스펙터클은 문화의 틀 안에서 관습을 빌려 만들되, 모방을 넘어 관객을 압도해야 집단 기억이 된다는 글이에요.

Although there may be elements that trigger instinctive response, spectacle works primarily within a cultural frame and is subject to prevailing modes of perception that observers bring to bear.

- (A) By extension, spectacle is produced by working with the grain^① of a particular culture, blending the innovative^② with the established. Thus anyone deploying spectacle may draw on a repertoire of techniques and conventions developed from previous festivals or related activities, but imitation is not enough.
- (B) Spectacle must also be spectacular^③. A spectacle has to amaze spectators, outdoing previous efforts if it is to become part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ose who witnessed and participated in it.
- (C) In saying that, we stress that creation of spectacle^④ is neither a universal nor even an inevitable expression of culture, but is a strategy commonly used by people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to address specific needs. The task of creating spectacle has been likened to creating new works of literature, where writers normally feel bound by the rules and traditions of their genre yet need to show sufficient originality to impress their audiences.

- ① 확장할 문학 비유가 앞(C)에 있어야 해요
 ② cultural frame 되받기 — (A) 첫 자리 미끼예요
 ③ also의 짝은 「부족하다」 — 그래서 (A) 뒤예요
 ④ (C) 시작 — 주어진 글을 그대로 받는 지시예요

✕ ㉠ (A) - (C) - (B)

↳ (A)의 'a particular culture'가 주어진 글의 'cultural frame'을 되받아 첫 자리로 끌려요. 하지만 'By extension'이 확장할 문학 비유가 아직 없어요.

· ㉡ (B) - (A) - (C)

↳ (B)의 'must also be spectacular'는 앞에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진술이 있어야 해요 — 주어진 글 바로 뒤엔 also가 붙을 곳이 없어요.

· ㉢ (B) - (C) - (A)

↳ (B)를 앞세우면 also의 짝이 없고, 'In saying that'(C)이 가리킬 문장이 (B)로 바뀌어 어긋나요. 'imitation is not enough'로 글이 끝나 마무리도 안 돼요.

✓ ㉣ (C) - (A) - (B)

↳ 'In saying that'이 주어진 글을 받고, 'By extension'이 (C)의 문학 비유를 확장하며, (A) 끝 'not enough'를 (B)의 'must also'가 받아요.

✕ ㉤ (C) - (B) - (A)

↳ (C) 끝 'impress their audiences'를 (B)의 'amaze spectators'가 되받아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also의 짝 'not enough'(A)가 뒤로 가면 글이 부정문으로 끝나요.

설계 의도 (C)-(A)-(B)가 모두 「관습+독창성」을 다른 각도로 말해요. 표층은 셋이 다 이어지게 해 놓고, 'By extension'과 'also' 두 기능어의 전제가 어느 블록에 있는지로만 갈리게 설계했어요.

함정 포인트 첫 자리 (C)는 'In saying that'으로 열리고 그다음이 갈림길이에요. impress audiences ↔ amaze spectators 표층 연결이 (B)를 당기지만, also가 받을 'not enough'는 (A)에 있어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말로는 고객 응대가 최우선이라면서 통화 수로 보상하면 신호가 엇갈리니, 무엇을 보상할지가 핵심이라는 글이에요.

Our choices and actions send messages to others about our values. Consider a manager who communicates to her employees in a call center that “customer car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our company.”

- (A) In many cases, performance is multidimensional^①, but compensation is only given to one aspect of performance, typically the one that is easiest to measure. Simple “one-aspect” compensation sends a clear message to the workers^②: concentrate on what we’re paying you for and ignore everything else.
- (B) That’s a signal to others regarding values^③. Now, imagine that the manager sets the incentives such that employees are paid by the number of calls they answer. This incentive sends a very different signal about what the manager is looking for: it’s about being fast, which comes at the expense of quality of care.
- (C) Such mixed signals leave the employees confused^④ about the manager’s values and expectations. This mixed signals problem is channeled into a simple question: what should be rewarded?

- ① (A) 그 질문에 답하는 블록이에요
 ② send messages 되받기 — (A) 첫 자리 미끼예요
 ③ (B) 지시어가 매니저 발언을 바로 받아요
 ④ (C) 신호가 둘 나온 뒤에만 설 수 있어요

- ✕ ① (A)-(C)-(B)
 ↳ 주어진 글의 'send messages'를 (A)의 'sends a clear message'가 되받아 첫 자리로 끌려요. 하지만 'That's a signal'(B)이 받을 발언이 주어진 글 끝에 있어요.
- ✕ ② (B)-(A)-(C)
 ↳ (B)의 통화 수 보상을 (A)의 「한 면만 보상」 일반론이 곧장 받는 듯해요. 그러나 'Such mixed signals'(C)는 두 신호 직후에만 서고, (A)는 (C)의 질문에 답하는 블록이에요.
- ✓ ③ (B)-(C)-(A)
 ↳ 'That's a signal'이 매니저 발언을 받고, 두 신호 뒤에 'Such mixed signals'가 서며, 'what should be rewarded?'에 (A)의 「한 면만 보상」이 답해요.
- ④ (C)-(A)-(B)
 ↳ 'Such mixed signals'는 엇갈린 신호가 둘 이상 나온 뒤에만 쓸 수 있어요 — 주어진 글엔 발언 하나뿐이에요.
- ⑤ (C)-(B)-(A)
 ↳ (C)를 첫 자리에 두면 such가 받을 두 신호가 없고, (B)의 'Now, imagine'이 (C)의 결론 뒤에 새 예시를 여는 역순이 돼요.

설계 의도 발언→반대 신호→엇갈림→일반화의 사슬을 That's-Such-질문-답 세 지시 장치로 잇게 했어요. 지시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풀리는 표지형 문항이에요.

함정 포인트 send messages↔sends a clear message 표층 반복이 (A)를 첫 자리로 당기고, (A)의 일반론이 (B) 예시 뒤에 바로 붙고 싶어해요. Such가 받을 「두 신호」와 (A)가 답하는 질문의 위치가 판정 축이에요.

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마흔 개 강에서 온 연어는 강마다 달랐지만, 교배를 거듭하면 빨리 자라고 다산 덕에 새 가축 개체군이 빠르게 만들어졌다는 글이에요.

The initial selection of farmed Atlantic salmon took place from fish drawn from forty different river systems.

- (A) But whatever the manifestation of difference that occurred in different species of salmon, the first salmon farmers realized that crossing and recrossing the specific families from the original forty rivers^① would result in salmon that grew faster.
- (B) And because salmon, unlike cattle and sheep^②, can produce many thousands of offspring in the course of their lives, once favorable individuals were found^③, just a few strong males and females could form the basis of a whole new race of highly productive fish. A domestic population could be created quickly that would be quite different from the initial wild ancestors.
- (C) Every salmon river has its own unique set of challenges^④ to which fish must adapt. Some rivers are very long, like the Yukon, and require animals that can build up massive fat reserves in order to survive the extended journey. Others are very far north, with only a short season of warmer temperatures, and require a fish that can maximize growth, particularly during its younger phase.

* manifestation: 표현 ** offspring: 자손

- ① forty rivers 되받기 — (A) 첫 자리 최강 미끼예요
 ② (B) And가 (A)의 발견을 다산으로 증폭해요
 ③ favorable individuals는 (A)에서 찾은 가계예요
 ④ (C) But이 양보할 '차이'가 여기 있어요

- ✗ ㉠ (A)-(C)-(B)
 ↳ (A)의 'the original forty rivers'가 주어진 글의 'forty different river systems'를 곧장 되받아 가장 끌려요. 하지만 But이 양보할 차이(C)가 아직 안 나왔어요.
- ㉡ (B)-(A)-(C)
 ↳ (B)의 'once favorable individuals were found'는 (A)의 교배 발견을 전제해요. (C)의 강 설명으로 글이 끝나 마무리도 안 돼요.
- ㉢ (B)-(C)-(A)
 ↳ 'And because'로 시작하는 (B)를 주어진 글에 바로 붙일 근거가 없고, 'salmon that grew faster'(A)로 끝나면 가축 개체군 결론이 사라져요.
- ✓ ㉣ (C)-(A)-(B)
 ↳ 'Every salmon river'가 40개 강을 받고, 'But whatever the ... difference'가 (C)의 차이를 양보하며, 'And because'가 (A)의 교배 결과를 다산으로 증폭해요.
- ✗ ㉤ (C)-(B)-(A)
 ↳ (C)까지 맞힌 뒤 'And'(B)를 먼저 붙이기 쉬워요. 그러나 'favorable individuals'는 (A)에서 찾아낸 가계를 가리키고, (A)로 끝나면 새 개체군 결론이 없어요.

설계 의도 역접 But-순접 And 두 연결사가 다 보이는데도 어렵게 만든 문항이에요. 주어진 글의 낱말을 되받는 (A)를 첫 자리 미끼로 심고, But이 양보할 차이가 어디 있는지로만 판정하게 했어요.

함정 포인트 forty different river systems ↔ the original forty rivers 표층 반복이 (A) 시작을 강하게 당겨요. 되받는 낱말이 아니라 But이 전제하는 차이(C)가 앞에 있어야 해요.

6월→9월 소재가 식물 방어·스펙터클에서 보상 신호·연어 양식으로 옮겨갔고 어수는 36번 179→160어, 37번 179→181어예요. 6월은 EBS·메가·대성이 36·37을 함께 끝냈지만 9월은 EBS와 네 기관 모두 37번만 끝났어요(당일 평가, 채점 전). 36번은 That's-Such 지시어로 평이해졌고, 변별은 But-And가 보이는데도 표층 미끼가 강한 37번에 몰렸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네 문항의 설계가 하나로 모여요. 첫 자리는 주어진 글과의 연결(Nor-In saying that-That's-Every salmon river)로 비교적 열어 두고, 변별은 둘째·셋째 갈림길의 기능어 한 개 — 6월 Nor-also, 9월 Such-But — 에 걸었어요. 오답 배열은 주어진 글의 낱말을 되받는 블록(compounds-cultural frame-send messages-forty rivers)을 첫 자리로 끌어올리는 표층 반복형으로 만들어, 낱말 일치로 푸는 습관을 정확히 저격해요. 6월은 두 문항을 다 무겁게 냈고(강사 집계 오답률 37번 71.5%-36번 64.8%, 기관 미명시), 9월은 36번을 표지형으로 내리고 3점 자리 37번에 변별을 몰았어요. 「객관적 단서를 줄이고 내용 연결을 묻는다」는 기조가 순서 유형에선 「연결사는 남기되 그 전제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로 나타나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에서도 36·37번은 글의 순서 두 문항이고, 3점은 37번 한 자리에 붙어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36·37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순서였고 3점은 38회 중 37번 28회·36번 3회였어요. 평가원은 9월에도 「신유형 없음」을 공언했어요.

P2 36번 ★2~3·37번 ★4 이상으로 갈리고 변별은 37번이 떠말아요 — 두 문항이 다 무거웠던 6월형보다 9월형이 기본이에요.

근거 6월은 EBS·메가·대성이 36·37을 함께 지목했지만 9월은 EBS와 네 기관이 37번만 꼽았고(당일 평가, 채점 전), 37번은 최근 6회 연속 고난도 고집합이에요.

P3 판정 축은 첫 자리가 아니라 둘째·셋째 갈림길의 기능어 한 개(Nor·also·Such·But 류)이고, 연결사 없는 블록 경계가 하나 이상 섞여요.

근거 6월 36번 Nor·37번 also, 9월 36번 Such·37번 But이 갈림길이었고, 강사 총평도 「객관적 단서 사용의 감소로 내용상의 연결 파악이 더욱 중요」를 짚었어요.

P4 매력 오답은 주어진 글의 낱말을 되받는 블록을 첫 자리로 끌어올리는 표층 반복형이에요 — 되받는 낱말이 아니라 전제가 앞에 있는지로 판정해야 해요.

근거 6월 36번 compounds↔chemical compounds, 9월 36번 send messages↔a clear message, 9월 37번 forty rivers↔the original forty rivers가 미끼였어요.

P5 어수는 160~180어대이고, 한 문항은 진화·선발처럼 단계가 쌓이는 자연 소재, 한 문항은 문화·조직 같은 사회 소재로 나뉘어요.

근거 6월 179·179어, 9월 160·181어였고 소재는 식물 방어·스펙터클·보상 신호·연어 양식이었어요. 9월 출제본부는 인문·사회·자연·예술 균형을 명시했어요.

수험 전략 36번은 지시어·기능어(That's·Such·Nor)를 먼저 훑어 2분 안에 끊고, 남은 시간을 37번에 쓰세요. 37번은 주어진 글의 낱말을 되받는 블록을 공장 첫 자리에 놓지 말고, 각 블록의 첫 문장이 전제하는 것(But이 양보할 차이, also가 더할 「부족하다」, once가 가리킬 발견)이 어느 블록에 있는지 찾아 앞뒤를 정하세요. 첫 단락 기록이 드문 배열도 미끼로 살아 있으니 통계로 지우지 말고, 6월처럼 두 문항이 다 무거운 회차도 대비해 빈칸 4·순서 2·삽입 2의 여덟 문항 시간 배분을 미리 정해 두세요.

12 문장 삽입

38~39번

Sentence Insertion · 2 items

지문에서 빠져 있던 문장 하나를 다섯 자리 중 제자리에 되돌려 넣는 문항이에요. 어휘 지식이 아니라 문장 사이의 응집(대명사·지시어·예시·일반 대응·논리 전개)만이 판단 근거예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선지가 자리 표시뿐이라 오답을 말로 꾸밀 수 없어요. 대신 주어진 문장의 핵심 어휘를 여러 자리에 미리 뿌려 어휘 매칭을 무력화하고, 바로 뒤 문장의 지시어·예시·「can help」 같은 전제가 삽입문 없이는 받을 것이 없는 단 한 자리만 정답이 되게 설계해요.

DNA 02 자리·분량 DNA

- 38·39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100%) 문장 삽입이었어요 — 자리가 흔들린 전례가 없어요 **총론 카드 04**
- 삽입문 첫 세 단어에 연결사·지시어·대명사 단서가 없는 비율은 2020학년도 이후 43.5%(20/46)예요 — 이 문장들은 대명사의 지시 대상과 논리 흐름으로만 자리를 찾아야 해요 **카드 01**
-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에서 39번 27건·38번 5건에 붙었어요 — 카드 각주대로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 지표는 아니예요 **총론 카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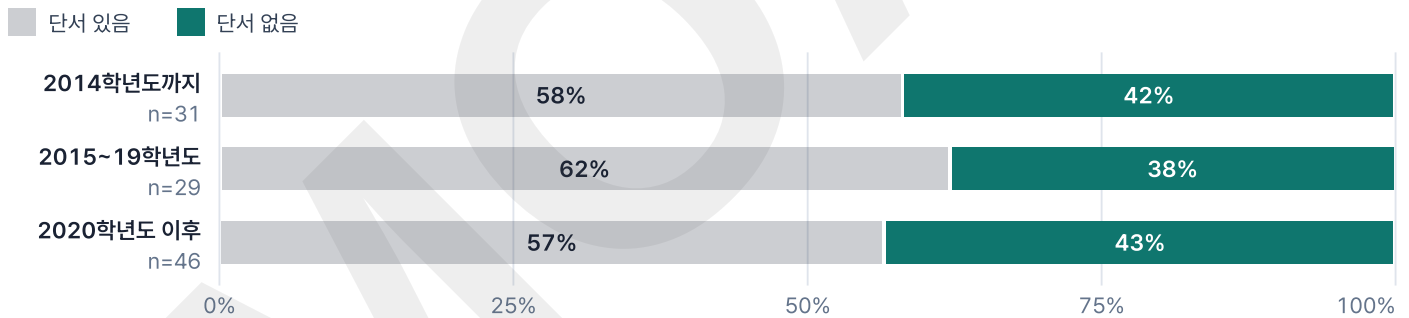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문장 삽입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CUE 100% 스택

구간 비교

삽입문 첫 세 단어에 연결사·지시어·대명사 단서가 없는 비율은 2015~19학년도 37.9%(11/29)와 2020학년도 이후 43.5%(20/46)였어요. 구간 차이($z=0.48$, $p\approx 0.6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표본 29건 — 참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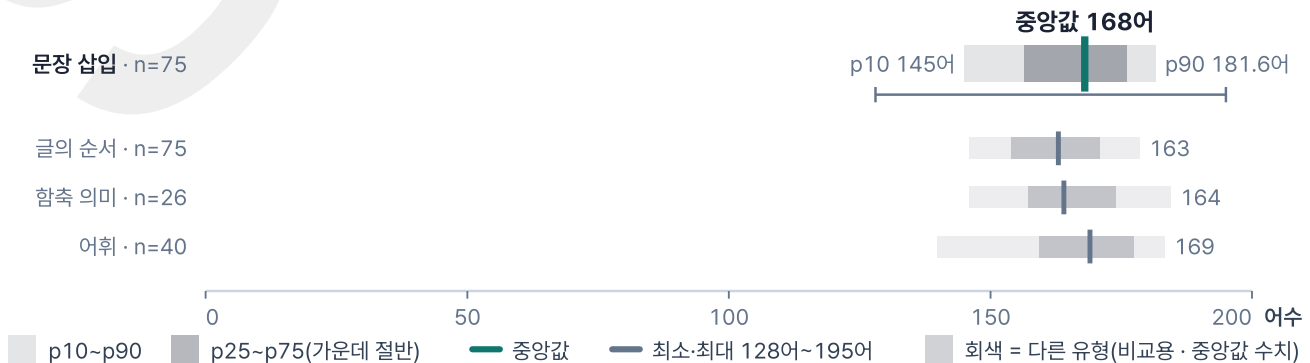
→ 첫 세 단어에 연결사가 없는 삽입문이 적지 않아요 — 대명사의 지시 대상과 논리 흐름으로 자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n=106 2004~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백분율은 문항 기준

02 · PASSAGE LENGTH 백분위 때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문장 삽입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75건 중앙값 168어(가운데 절반 156.5~176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75 이 유형 지문 75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지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

고층 건물의 와류 방출 문제를 설명한 뒤, 설계자가 바람을 교란해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글이에요.

To minimize vortex shedding, skyscraper designers do everything in their powers to confuse the wind.

To minimize building costs and maximize revenues, skyscrapers generally take the shape of squares or rectangles. These are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hapes^①, and this results in a wind phenomenon called “vortex shedding.”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it pushes on the flat face of the building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s, where eventually it separates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 (㉠) The difference in pressures on the front and back faces of the building gives rise to vortices, or spinning currents of wind, that flow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 The vortices pull and push the building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wind at frequencies that can become dangerously self-sustaining^②. (㉢) Orienting the building so that the longer face^③ of the structure is parallel with prevailing winds can help^④. (㉣) Chopping or rounding off corners of a building can likewise make it more aerodynamic. (㉤) Roughing up the corners of the building through the careful placement of balconies or stepped corners can help by disturbing or delaying the formation of strong vortices.

- ① 문제 블록 — 네모난 형상이 와류를 불러요
 ② 문제 서술의 끝이에요 — 삽입문 자리는 바로 이 뒤죠
 ③ 해결 블록 시작 — 대책 셋이 여기서부터예요
 ④ can help — 무엇을 돕는지는 삽입문에만 있어요

- ① The difference in pressures on the front and back faces of the building gives rise to vortices, or spinning currents of wind, that flow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 바람이 건물 면을 치고 갈라지는 서술 한가운데예요. 압력차→소용돌이로 이어지는 원리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 ✗ ② The vortices pull and push the building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wind at frequencies that can become dangerously self-sustaining.
 ↳ 소용돌이가 생겼으니 곧바로 대책이 나올 것 같아 끌려요. 그런데 뒤 문장 'The vortices pull and push'가 위험을 마저 설명해 문제 서술이 끊겨요.
- ✓ ③ Orienting the building so that the longer face of the structure is parallel with prevailing winds can help.
 ↳ 'dangerously self-sustaining'으로 문제 서술이 끝난 직후예요. 뒤 'Orienting ~ can help'의 help는 이 문장의 목표(바람 교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 ✗ ④ Chopping or rounding off corners of a building can likewise make it more aerodynamic.
 ↳ 첫 대책 뒤에 '설계자는 온갖 방법을 쓴다'는 총론을 놓고 싶어져요. 그러면 'likewise'가 총론과 대책을 비교하게 돼 어색해요.
- ⑤ Roughing up the corners of the building through the careful placement of balconies or stepped corners can help by disturbing or delaying the formation of strong vortices.
 ↳ 'likewise'로 묶인 대책 둘 뒤예요. 세 번째 대책 'Roughing up'도 같은 열거라 사이를 가를 수 없어요.

설계 의도 문제(형상→와류→진동) 세 문장과 해결(배치·모서리·발코니) 세 문장을 대칭으로 놓고, 두 블록의 경계 한 곳에만 해결 총론이 들어가게 설계했어요. 연결사 없이 'can help'의 전제로만 자리를 잡게 했어요.

합정 포인트 'vortex shedding'이 도입부에 먼저 나와 어휘 매칭으로 앞자리에 끌려요. 문제가 어디서 끝나는지(dangerously)를 짚고, 뒤 문장의 help가 무엇을 돕는지 물어야 해요.

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3점]

★★★★★

서양에서 빨강이 유일한 '진짜 색'이었고, 색 실험·어휘 분화도 빨강에서 시작됐다는 색채사 글이에요.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ds that they learned early on to diversify the palette and to produce varied tones and shades, as the oldest known color terms demonstrate.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West, red was the only color worthy of that name^①, the only true color. As much on the historical as hierarchical level, it exceeded all others. (㉠) Not that they did not exist, but they had to wait a long time before they were considered colors^② and then played a comparable role in material culture, social codes, and systems of thought. (㉡) It was with red that humans did their first color experiments^③, achieved their first successes, and then constructed a chromatic universe. (㉢) Here the lexicon seems in keeping with^④ pictorial practices and coloring techniques. (㉣) In certain languages, the same word can mean “red” or simply “colored,” depending on the context, such as coloratus in classical Latin or colorado in modern Castilian. (㉤) In other languages, the words meaning “red” and “beautiful” share a common root; for example, that is the case in Russian, in which the terms krasnyy (red) and krasivy (beautiful) belong to the same lexical family.

- ① 빨강만이 색이었다 — 대전제부터 같아요
- ② 다른 색은 한참 기다려서야 색이 됐어요
- ③ It was ~ that 짝이에요 — 삽입문의 also 가 여기를 받아요
- ④ Here 가 가리킬 색채 어휘는 삽입문에만 있어요

- ① Not that they did not exist, but they had to wait a long time before they were considered colors and then played a comparable role in material culture, social codes, and systems of thought.
↳ 'it exceeded all others' 직후라 뒤 'Not that they did not exist'의 they는 다른 색이에요. 삽입문의 they(사람)가 받을 선행사가 아직 없어요.
- × ② It was with red that humans did their first color experiments, achieved their first successes, and then constructed a chromatic universe.
↳ 같은 강조 구문 'It was ~ that'이라 앞에 붙이고 싶어져요. 그런데 'also'는 첫 실험(first experiments) 문장을 받아야 하고, they=humans도 그 문장에서야 나와요.
- ✓ ③ Here the lexicon seems in keeping with pictorial practices and coloring techniques.
↳ 'It was with red that ~ first'에 'It was also ~ that'가 짝으로 붙고, 뒤 'Here the lexicon'은 삽입문의 'color terms'가 있어야 가리킬 것이 생겨요.
- × ④ In certain languages, the same word can mean “red” or simply “colored,” depending on the context, such as coloratus in classical Latin or colorado in modern Castilian.
↳ 'color terms' 뒤에 'In certain languages, the same word'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장 강해요. 그러면 앞 'Here the lexicon'이 가리킬 어휘 목록이 사라져요.
- ⑤ In other languages, the words meaning “red” and “beautiful” share a common root; for example, that is the case in Russian, in which the terms krasnyy (red) and krasivy (beautiful) belong to the same lexical family.
↳ 'In certain languages ~ In other languages'로 짝지어진 사례 열거 사이예요. 총론 성격의 삽입문이 끼면 열거가 두 동강 나요.

설계 의도 연결사 대신 'also'와 강조 구문의 반복(It was with red that ~ / It was also within ~ that)으로 앞 문장을, 'Here the lexicon'의 지시로 뒤 문장을 묶어 앞뒤 양쪽에서 자리를 조이는 설계예요.

함정 포인트 'color terms'와 'languages-word'의 어휘 연쇄가 한 칸 뒤로 끌어요. 'Here the lexicon'이 삽입문 없이는 받을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강사 집계 오답률 62.7%(집계 기관 비공개)였어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

시민 과학과 시민 참여가 인터넷으로 성장했다는 글에서, 정의가 빠진 '시민 참여'를 제자리에 넣는 문항이에요.

Citizen engagement involves people helping governments, rather than scientists, to improve public services and policies in their communities.

The growth and success of citizen science and citizen engagement^①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encouraging and coordinating the efforts of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 Websites, smartphone apps, and social media have been instrumental in expanding the reach and impact of a diversity of citizen science projects across time and geographical zones. (㉡) Citizen science involves local people helping scientists^② carry out a scientific project at scale. (㉢) Currently, thousands of such projects have been set up all over the world, whereby volunteers help out in a number of research areas, including biodiversity, air quality, astronomy,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y do so by participating in scientific activities^③ such as monitoring plants and wildlife, collecting air and water samples, categorizing galaxies, and analyzing DNA sequences. (㉤) Examples include setting up and managing a website^④ that offers local services for community disasters and creating an emergency response team when a disaster occurs.

- ① 두 용어를 나란히 꺼내요 — 정의는 하나만 나와요
- ② 삽입문의 rather than scientists 가 이 정의를 받아요
- ③ volunteers → They 대명사 사슬 — 여긴 못 끊어요
- ④ 이 예시는 과학 활동이 아니에요 — 정의문이 앞에 있어야죠

- ① Websites, smartphone apps, and social media have been instrumental in expanding the reach and impact of a diversity of citizen science projects across time and geographical zones.
↳ 첫 문장의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를 뒤 'Websites, smartphone apps'가 이어받는 자리예요. 정의문이 끼면 기술 서술이 끊겨요.
- ② Citizen science involves local people helping scientists carry out a scientific project at scale.
↳ 'rather than scientists'는 과학자를 돕는 시민 과학 정의가 먼저 나와야 대비가 서요. 그 정의문 앞에 놓으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 × ③ Currently, thousands of such projects have been set up all over the world, whereby volunteers help out in a number of research areas, including biodiversity, air quality, astronomy, and environmental issues.
↳ 정의문 둘(~ science involves / ~ engagement involves)이 나란히 서서 가장 끌려요. 그러면 뒤 'such projects'가 시민 참여를 받는데 예시는 천문학·대기질이라 어긋나요.
- ④ They do so by participating in scientific activities such as monitoring plants and wildlife, collecting air and water samples, categorizing galaxies, and analyzing DNA sequences.
↳ 'volunteers help out' → 'They do so by'로 이어지는 대명사 사슬 한가운데예요. 정의문이 끼면 They가 받을 주어가 멀어져요.
- ✓ ⑤ Examples include setting up and managing a website that offers local services for community disasters and creating an emergency response team when a disaster occurs.
↳ 시민 과학 설명이 끝난 뒤예요. 마지막 'Examples include ~ community disasters'는 과학 활동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사례라 이 정의문 없이는 받을 것이 없어요.

설계 의도 첫 문장에서 두 용어를 나란히 꺼내 놓고, 본문은 시민 과학만 정의·예시한 뒤 마지막 예시만 시민 참여 것으로 바꿔 놓았어요. 연결사 없이 '예시가 어느 정의에 속하나'로만 자리를 잡게 한 설계예요.

합정 포인트 정의문 두 개를 붙여 놓고 싶은 병렬 본능이 함정이에요. 'Examples include'의 재난 대응 사례가 'scientific activities'에 들어가는지 물으면 자리가 갈려요.

3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3점]

★★★★★

음악에서 한 요소에 집중하려면 다른 요소는 줄여야 하지만, 선율만으론 오래 못 가 대비도 필요하다는 작곡 원리 글이에요.

However, melody alone would not normally keep the listener's attention for long because a piece of music needs some variety and contrasting elements from time to time.

Regardless of musical style, an increase of focus on certain parameters^① in a musical passage should be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focus on others. (㉠) The human mind has an attention limit, beyond which music is most likely to be perceived as lacking order or direction. (㉡) For instance, if the intention is to focus on melodic lines^②, then one should avoid making too many contrasting timbre variations while the melodies are unfolding; otherwise, the timbre may distract attention away from the pitch^③. (㉢)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in the practice of composition is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repetition and diversity^④: a well-balanced piece of music should unfold naturally to listeners. (㉣) In most Western musical styles, this unfolding results from a network of relationships between musical attributes that combine in different ways to create situations where contrasts can take place. (㉤) Such contrasts are normally preceded by a preparatory stage, which builds upon the listener's expectations.

* timbre: 음색

- ①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건 줄여라 — 원칙이에요
- ② 예시 — 선율에 집중하면 음색 변화는 자제하래요
- ③ 삽입문 However가 뒤집는 건 바로 이 예시예요
- ④ 집중(반복)과 대비(다양성)를 종합해요 — ㉢ 뒤가 딱이죠

- ① The human mind has an attention limit, beyond which music is most likely to be perceived as lacking order or direction.
↳ 첫 문장은 '집중을 늘리면 다른 건 줄여라'예요. 그 직후 'However ~ 대비가 필요'가 오면 뒤 'attention limit' 문장이 뒤집힌 논지를 다시 뒤집어요.
- × ② For instance, if the intention is to focus on melodic lines, then one should avoid making too many contrasting timbre variations while the melodies are unfolding; otherwise, the timbre may distract attention away from the pitch.
↳ 'attention limit' 뒤에 'attention'이 반복돼 붙어 읽기 쉬워요. 그런데 뒤 'For instance'가 '음색 변화를 피하라'로 이어져 '대비가 필요'라는 삽입문의 예시가 못 돼요.
- ✓ ③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in the practice of composition is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repetition and diversity: a well-balanced piece of music should unfold naturally to listeners.
↳ '선율에 집중, 음색 변화 자제' 예시를 However가 뒤집고, 뒤 'balance between repetition and diversity'가 집중(반복)과 대비(다양성)를 종합해요.
- ④ In most Western musical styles, this unfolding results from a network of relationships between musical attributes that combine in different ways to create situations where contrasts can take place.
↳ 'should unfold naturally' → 'this unfolding'으로 맞물린 지시 사슬이에요. 사이에 끼면 this unfolding이 받을 말이 사라져요.
- × ⑤ Such contrasts are normally preceded by a preparatory stage, which builds upon the listener's expectations.
↳ 'contrasting elements'를 뒤 'Such contrasts'가 받는 듯 보여요. 하지만 앞 문장이 이미 'contrasts can take place'로 끝나 However가 뒤집을 것이 없어요.

설계 의도 삽입문의 However는 바로 앞 예시(선율 집중·음색 자제)를 뒤집을 때만 살아요. attention-contrast를 여러 자리에 뿌려 놓아 연결사가 보여도 어휘로는 자리를 못 잡게 한 설계예요.

합정 포인트 However-For instance가 보여 쉬워 보이지만 '무엇을 뒤집는가'를 세어야 해요. 당일 평가(채점 전)에서 대성은 '단절이 뚜렷하지 않다', 메가는 '판단이 까다롭다'며 39번을 골랐어요.

6월→9월 6월은 강조 구문 짝(it was ~ that)과 'can help'의 전제처럼 앞뒤 양쪽 문장으로 자리를 조였고, 9월은 '예시가 어느 정의에 속하나'(38)·'However가 무엇을 뒤집나'(39)처럼 뒤 문장 하나의 판단으로 자리를 확정하게 했어요. 어수는 185·193어→172·184어로 줄었고, 3점은 두 번 다 39번이었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의 공통 원칙은 「연결사를 정답 열쇠로 주지 않는다」예요. 6월 38번·9월 38번 삽입문은 첫 세 단어에 단서가 없었고, 단서가 있던 6월 39번 'also'와 9월 39번 'However'도 그 낱말만으론 자리를 못 정해요 — 'also'는 앞 강조 구문과 짝을 맞춰야 했고, 'However'는 뒤집을 예시를 세어야 했어요. 결정권은 삽입문 뒤 문장에 있었어요. 'can help'(6월 38)·'Here the lexicon'(6월 39)·'Examples include'(9월 38)·'balance between repetition and diversity'(9월 39)가 삽입문 없이는 받을 것이 없었고, 핵심 어휘(vortex shedding·color terms·contrast)는 정답 밖 자리에도 뿌려져 어휘 매칭을 교란했어요. 9월 당일 평가(채점 전)에서 대성이 짙은 '단절이 뚜렷하지 않다'도 같은 설계예요. 39번은 두 번 다 3점이었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에서도 38·39번은 문장 삽입 두 문항으로 유지되고, 3점은 39번 한 자리에 붙어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38·39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문장 삽입이었고, 3점은 39번 27건·38번 5건이에요. 6월·9월도 39번이 3점이었어요.

P2 두 문항 중 하나 이상은 삽입문 첫 세 단어에 연결사·지시어 단서가 없고, 자리는 삽입문 뒤 문장의 지시어·예시·전제로 확정돼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단서 없음 비율이 2020학년도 이후 43.5%(20/46)이고, 6월·9월 실물 4문항 중 2문항이 단서 없이 시작했으며 넷 다 뒤 문장이 열쇠였어요.

P3 연결사가 있는 삽입문(However·also 류)이 나와도 그 낱말만으론 자리가 안 정해지고, 삽입문의 핵심 어휘는 정답 밖 자리에도 반복돼 어휘 매칭이 막혀요.

근거 9월 39번은 However로 시작했지만 attention·contrast가 여러 자리에 깔렸고, 6월 39번 also는 앞 강조 구문과 짝을 맞춰야 했어요. 당일 평가(채점 전)도 같은 지적이에요.

P4 39번이 세트의 고난도 축(★4 안팎)으로 남고 38번은 ★3 이하예요 — 변별은 39번 한 문항에 실려요.

근거 6월 39번은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62.7%, 9월은 당일 평가(채점 전)에서 메가·대성·종로가 39번을 까다롭다고 지목했어요. 기관 지목에 38번은 두 번 다 없었어요.

P5 삽입문은 두 블록의 경계(문제→해결·예시→반전·정의→사례)에 놓이는 전환문이고, 소재는 자연·예술·사회 원리 설명문이에요.

근거 6월 공공학·색채사, 9월 시민과학·작곡 원리로 넷 다 블록 경계의 전환문이었고, 9월 출제본부는 인문·사회·자연·예술 균형을 공언했어요.

수험 전략 주어진 문장의 지시어·연결사에 동그라미를 치되 그것만 믿지 마세요. 후보 자리마다 넣어 보고 반드시 다음 문장까지 읽어, 뒤 문장의 지시어(Here·this·Such)·예시(Examples include)·전제(can help)가 삽입문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낱말이 겹치는 자리는 오히려 한 번 더 검증하고, 39번은 3점에 어수도 길어 시간이 밀리면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해요.

13 요약문

40번

Summary Completion · 1 item

지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요약문의 빈칸 (A)(B)에 들어갈 어구 짝을 고르는 문항이에요. 대의 파악과 빈칸 추론이 합쳐진 자리라,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동시에 만족하는 짝을 찾는 게 과업이에요 — 6월·9월 모두 2점 자리였어요.

DNA 01 선지 설계 문법

정답 짝은 지문의 핵심어를 동의어·추상어로 바꿔 놓아 지문 단어가 선지에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오답 넷은 (A)나 (B) 한 칸만 정답급으로 맞추고 다른 칸을 방향 반전(방치↔예방)·시기 착오(초기↔이후)로 비틀며, 다섯 선지의 품사는 같은 자리로 맞춰져요.

DNA 02 자리·분량 DNA

- 40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요약문이었어요 — 20·31~45번과 함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고정 자리예요 **총론 카드 04**
- 정답 선지 35건 중 32건(91.4%)은 지문 단어를 하나도 재사용하지 않았고, 평균 재사용률은 정답 4.3%·오답 5%예요 — 지문 낱말이 그대로 보이는 선지는 검토 신호예요 **카드 01**
- 40번에 3점이 붙은 회차는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3회뿐이고, 2027학년도 6월·9월 3점 자리(21·30·33·34·37·39·42번)에도 40번은 없었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총론 카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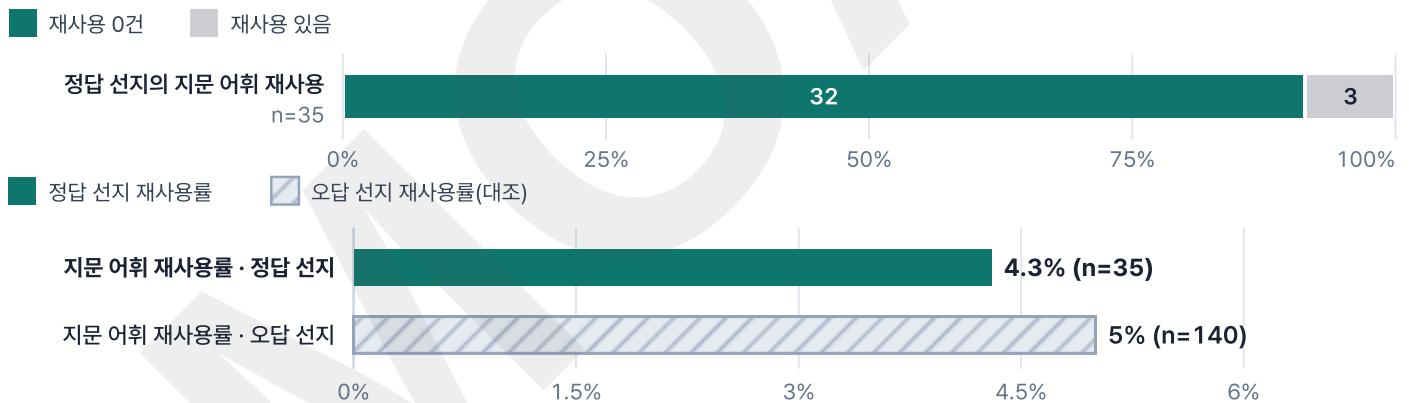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요약문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PARAPHRASE **100% 스택 + 쌍 막대**

정답 선지

요약문 정답 선지 35건 중 32건(91.4%)은 지문 단어를 하나도 재사용하지 않았어요. 평균 재사용률은 정답 4.3%·오답 5%예요.



→ 요약문 정답은 지문 단어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 지문 어휘를 그대로 쓴 선지는 방향을 한 번 더 검토해요.

n=35 2015학년도 6월~2027학년도 9월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백분율은 문항 기준

02 · PASSAGE LENGTH **백분위 띠**

이 유형 · 2015학년도 이후 기출 지문

요약문 지문 어수는 2015학년도 이후 38건 중앙값 160.5어(가운데 절반 153~174.5어)예요 — 길이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 지문 길이는 난이도가 아니예요 — 이 유형의 평소 길이를 알아 두면 시험장에서 분량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요.

n=38 이 유형 지문 38건(다른 번호에 나온 회차 포함) 2015~2027학년도 9월까지 출처 기출 코퍼스 x축 0 기점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I가 신약 개발 비용을 낮춰, 돈 안 되는 병과 소외된 인구로 의학 연구의 관심을 넓힐 수 있다는 글이에요.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lgorithms are being employed to find treatments and drugs for rare diseases that to date haven't received much attention. The hard truth has always been that pharma devotes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ources^① to diseases that affect the rich^②. The definition of rare has too often been associated with poor — that is, even if a disease is quite prevalent in a population that cannot afford to pay for it (for example, people living in the developing world), the disease has been neglected compared to First World illnesses. By lowering the cost of data collection, mining, and analysis in drug development and clinical trials, AI can help offset imbalance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③ that direct attention to diseases that "pay," whether because the disease is more common or because it is prevalent among demographics that can pay more. We see the democratizing power of AI to broaden the attention of the medical and research communities to find cures to traditionally neglected health issues and among traditionally neglected populations^④.

By lowering the cost of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I can help reduce the imbalance in investment that has led to the —(A)— of less profitable diseases, thereby broadening the focus of medical research to include —(B)— populations.

- ① 출발점 — 연구비는 부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쏠려요
 ② ④ wealthy 유인 — 이미 관심 받던 쪽이라 반대예요
 ③ 전환 — AI가 비용을 낮춰 쏠림을 상쇄해요
 ④ 결론 — 방치된 병과 인구로 관심이 넓어져요

× ① prevention.....marginalized

↳ (B) marginalized 는 정답급으로 맞아요. 하지만 (A) prevention(예방)은 '방치'와 정반대 행위라 요약문이 지문을 뒤집어요 — 반쪽 일치 함정이에요.

· ② spreadgeneral

↳ (A) spread(확산)는 불균형이 낳은 결과로 지문에 없고, (B) general 은 '소외된 인구'로 좁히는 방향과 반대예요.

× ③ overlooknative

↳ (A) overlook 은 뜻이 neglect 와 겹쳐 끌려요. 그러나 'the ___ of' 자리에 동사형이 들어가 어색하고, (B) native(토착)는 지문에 근거가 없어요.

· ④ ignorance.....wealthy

↳ (A) ignorance(무지)는 ignore(무시)와 어형만 닮았고, (B) wealthy 는 관심을 '이미 받던' 부유층이라 확장 방향과 반대예요.

✓ ⑤ disregardunderserved

↳ (A)는 지문에 세 번 나오는 neglected 의 명사형 동의어, (B)는 'cannot afford to pay' 인구를 바꿔 부른 말이에요 — 두 칸 다 지문 단어 없이 맞아요.

설계 의도 지문의 반복어 neglected(3회)를 선지에 안 쓰고 disregard·underserved 로 바꿔 부르게 한 패러프레이즈 판정 문항이에요. (B)가 정답급으로 맞는 ①을 두어 한 칸만 보고 고르는 습관을 걸러요.

함정 포인트 ①이 강력해요 — marginalized 로 (B)를 먼저 확정하면 (A) prevention 을 '예방=돌봄'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70.3%였고, 이의신청도 「이상 없음」이었어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무대 조명은 초기 '많이 비추면 좋다'에서 1950~60년대 이후 '필요한 것만 보여 주는' 선택적 가시성으로 옮겨 갔다는 글이에요.

Many designers would argue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lighting is visibility. Some even refer to it as the primary function of lighting. Visibility simply refers to the principle of using light to reveal or illuminate objects. In the early days, the job of the designer was nothing more than to create enough light^① so that the audience or occupants of a space could see. In many ways, **this philosophy of lighting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more was better**, and many believed that the more footcandles or lumens placed on a stage or in a room, the better visibility that you had. Since the 1950s or '60s^②, theatrical designing moved toward a concept that we call selective visibility^③, which simply refers to **revealing to an audience only what needs to be seen**. Hence, a less-revealing image on stage might be more appropriate^④ for the dramatic action than a fully illuminated stage. In selective visibility, areas of low intensity, shadows, silhouettes, and high contrast can become effective elements in a lighting designer's set of tools.

While stage lighting designs in the early days focused on —(A)— visibility, they later shifted to —(B)— illumination to enhance dramatic effect.

* illuminate: 비추다 ** premise: 전제

- ① 초기 — 보일 만큼만 밝히면 됐어요, 이게 (A)예요
- ② 여기서 시기가 갈려요 — 앞이 (A), 뒤가 (B)예요
- ③ 전환 — 필요한 것만 보여 주는 선택적 가시성이예요
- ④ ㉠ reducing 유인 — 초기가 아니라 이후 얘기에요

✓ ① **maximizing strategic**

↳ (A)는 'more was better'·'enough light' 를 한 단어로 압축했고, (B)는 'only what needs to be seen' 의 선택성을 받아요 — 둘 다 지문에 없는 낱말이에요.

✗ ② **increasing uniform**

↳ (A) increasing 은 '더 많이'와 맞아 끌려요. 하지만 (B) uniform(균일)은 '무대 전체를 밝힌' 옛 방식이라 후반 전환과 정반대예요.

· ③ **controlling minimal**

↳ (A) controlling 은 초기가 아니라 이후 방식이고, (B) minimal 은 '덜 드러냄'을 '최소 조명'으로 과장해요 — 그림자도 도구로 쓰는 선택이지 감광이 아니예요.

✗ ④ **reducing targeted**

↳ (B) targeted 는 selective 와 거의 같아 정답급이에요. 그러나 (A) reducing 은 초기가 아니라 이후의 태도라 시기가 뒤바뀌어요 — 반쪽 일치 함정이에요.

· ⑤ **limiting purposeful**

↳ (B) purposeful 은 넓게 보면 통하지만, (A) limiting 은 '더 밝게'였던 초기와 반대라 요약문의 시간 순서가 무너져요.

설계 의도 '초기 vs 이후' 시간 대비를 (A)(B)에 나눠 담아, 한 칸이 맞는 선지를 양쪽에 깔았어요 — ㉠은 (A)만, ㉡은 (B)만 정답급이라 두 칸을 함께 검산해야 풀려요.

합정 포인트 ㉡가 가장 위험해요. targeted 로 (B)를 잡고 (A) reducing 을 '결국 줄인 거 아닌가'로 넘기면 걸려요. 초기는 '더 밝게', 이후는 '골라서'라는 시간표를 요약문 옆에 먼저 적어 두세요.

6월→9월 소재가 AI-제약에서 무대 조명으로 옮겨 갔고, 어수는 172→177어예요. 정답 만들기는 6월 '반복어의 동의어 치환'(neglected→disregard)에서 9월 '시간 대비의 추상화'(more was better→maximizing)로 바뀌었어요. 반쪽 일치 함정은 (B)쪽 하나에서 (A)·(B) 양쪽 둘로 늘었지만, 지문·어휘가 평이해 6월보다 쉬웠어요(당일 평가, 채점 전).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정답 짝은 지문 단어를 한 번도 되풀이하지 않았고, 오답은 (A)나 (B) 한 칸만 정답급으로 맞춘 「반쪽 일치」로 만들었어요 — 요약문을 두 칸 동시 검산 문항으로 운용한다는 뜻이에요. 근거 위치는 달랐어요. 6월은 지문 전체에 흩어진 반복어(neglected 3회)와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근거였고, 9월은 중간지점의 전환 문장(Since the 1950s)이 앞뒤를 '초기/이후'로 갈라 (A)(B)가 각각 한쪽을 받았어요. 난이도는 40번이 조절 다이얼로 쓰인다는 걸 보여 줘요. 지난 수능(2026학년도)은 메가 기준 정답률 37%에 강사 총평이 「요약·장문이 복병」이라 했고, 6월도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70.3%였는데, 9월은 어느 기관의 고난도 지목에도 40번이 없었어요(당일 평가, 채점 전). 지문을 쉽게 두고 선지 매력도로 조절하는 9월 기조(이투스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 난이도를 조절」)가 40번에서는 '한 칸 정답급 오답'으로 나타났어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P1 수능 40번도 요약문 한 문장·빈칸 (A)(B) 형식 그대로이고, 배점은 2점이에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40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요약문이었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회뿐이며 6월·9월 모두 2점이었어요.

P2 정답 (A)(B)는 지문의 핵심어를 동의어·추상어로 바꿔 부른 어구예요 — 지문 낱말을 그대로 옮긴 어구가 정답 짝이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정답 선지 35건 중 32건(91.4%)이 지문 단어 재사용 0건이었고, 6월·9월 실물 정답 녀 자도 전부 지문에 없는 낱말이었어요.

P3 매력 오답은 (A)나 (B) 한 칸만 정답급으로 맞는 「반쪽 일치」 선지예요 — 나머지 한 칸은 방향 반전이나 시기 착오로 비틀려 있어요.

근거 6월 prevention.....marginalized, 9월 increasing.....uniform·reducing.....targeted 가 전부 이 계열이었고, 9월 당일 이투스 「매력적인 오답으로 난이도 조절」이라 평했어요(채점 전).

P4 정답 근거는 지문의 대비 축을 세우는 문장에 있어요 — 반복되는 핵심어나 시간 전환 문장(Since ~)이 (A)(B)의 양끝을 각각 받아요.

근거 6월은 세 번 반복된 neglected 와 마지막 문장 broaden the attention, 9월은 'more was better' 와 'selective visibility' 정의 문장이 근거였어요.

P5 지문은 150~180어 안팎의 사회·예술 설명문이고 난이도는 ★2~3이에요 — 다만 6월처럼 어휘 수준을 올리면 오답률이 튀는 조절 자리예요.

근거 요약문 지문은 2023학년도 6월 이후 143~179어였고, 6월은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70.3%, 9월은 당일 고난도 지목에 40번이 없었어요(채점 전).

수험 전략 요약문을 먼저 읽고 (A)(B)가 지문의 어느 대비 축(방치/확장, 초기/이후)을 받는지 적어 두세요. 한 칸이 맞는 선지를 바로 고르지 말고 다른 칸이 그 축의 방향·시기와 같은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지문에 그대로 있는 낱말이 선지에 보이면 정답의 표지가 아니라 검토 신호예요.

14 장문 독해 I

41~42번

Long Passage I · 2 items

한 지문(240어 안팎)에 제목(41번)과 밑줄 어휘 오류(42번) 두 문항이 붙는 묶음이에요. 41번은 글 전체를 한 줄로 덮는 제목을, 42번은 (a)~(e) 다섯 낱말 중 글의 결론과 어긋난 하나를 찾아요 — 결론 문장을 한 번 못 박으면 두 문항이 같이 회수돼요.

DNA 01 선지 설계 방법

41번 정답은 지문의 핵심 명사에 결론의 방향어(수수께끼·호기심)를 붙인 선지이고, 오답은 지문 첫 문장·예시의 어휘를 빌려 범위를 좁히거나 통념 쪽으로 방향을 되돌려요. 42번은 밑줄 넷을 글의 대비 축 제자리에 두고 결론부 한 낱말만 반대 방향으로 바뀌요 — 낱말 난도가 아니라 방향이 판정 기준이에요.

DNA 02 자리·분량 DNA

- 41·42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장문(41-42)이었어요 — 20·31~45번과 함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고정 자리예요 **총론 카드 04**
- 3점 자리 지도(2015학년도 이후 38회·3점 265문항)에서 42번은 28회로 34번(34회)·33번(32회) 다음이고, 41번은 2026학년도 수능 1회뿐이에요 — 2027학년도 6월·9월 모두 42번이 3점이었어요.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총론 카드 02**
- 장문 41-42 지문은 2023학년도 6월 이후 217~280어 사이였고 최근 평균은 240어예요 — 2027학년도 6월 248어·9월 244어는 그 때 안이에요 (기출 통계)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장문 독해 I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SLOT MAP **타일 x2**

총론 카드 발췌 · 이 챕터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41·42번은 26회 중 26회 장문(41-42)**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41번 1회·42번 28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총론 카드 04 발췌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고정도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41	장문																										100%	
42	장문																										100%	

최빈 유형과 같음다른 유형(표기)미수집

■ 최빈 유형과 같음 ■ 다른 유형(표기) □ 미수집

3점 자리 · 2015학년도 ~ 총론 카드 02 발췌

학년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3점 횟수		
41	2점																								3			1회		
42	2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8회

3점 문항

2점(수집 문항)

미상(그 회차 미수집)

■ 3점 문항 ■ 2점(수집 문항) □ 미상(그 회차 미수집)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52 n = 번호 2개 × 수집 회차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6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출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6월 모평 2027학년도 6월 모평 문항 해부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structure of glass is, frankly, a bit of a mess^①. Clear and perfect as it might appear to our eyes, down at the molecular level, glass looks more like a random ball-pit of atoms. The technical term for this mess depends on who you're asking: for some scientists it is an “amorphous solid,” for others a “supercooled liquid.” In theory it's both liquid and solid, though, given the way it behaves, in practice it's really the latter^②. In fact, at room temperature glass never behaves as a (a) liquid, even an imperceptibly viscous one, even over long periods of time (though it can “sweat” if you don't add enough lime to the mix). Those (b) misshapen sheets of glass you sometimes see in old stained-glass windows^③, thicker at the bottom than the top, are generally not that way because the glass is slowly sinking over time. Unless the church has endured temperatures of more than 400°C, the chances are they are uneven because that's the way they were blown and (c) solidified in the first place. Flat glass was only developed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we had to wait until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truly flat, thin sheets of glass. The (d) paradox is that, despite it being one of the very oldest human-made substances, scientists still struggle to comprehend why glass behaves the way it does^④. Glass seems to (e) obey most molecular laws. As one glassmaker put it, glass is not a material; it's a state.

* molecular: 분자의 ** amorphous: 무정형(無定形)의 *** viscous: 들러붙는

- ① 첫 문장이 결론 방향이에요 — 분자 수준은 난장판이에요
- ② 이론은 둘 다, 실체는 고체 — 여기서 축이 정리돼요
- ③ ㉠ 매력 오답의 근원 — 예시인데 제목처럼 보여요
- ④ 41·42 공통 근거예요 — 바로 뒤 (e)가 정답 자리예요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리는 분자 수준에선 엉망이고 실제로 고체처럼 행동하지만, 왜 그런지는 과학이 아직 못 푼 수수께끼라는 글이에요.

✓ ① Unsolved Mystery Behind the Nature of Glass

↳ 첫 문장 a bit of a mess부터 결론 still struggle to comprehend-not a material; it's a state까지 전부 「미해결 수수께끼」로 모여요.

· ② Solid and Liquid Glass: Their Respective Uses

↳ solid-liquid는 지문 어휘지만 「각각의 용도」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문은 둘 중 무엇이나를 따지지 쓰임을 나누지 않아요.

✗ ③ A Scientific Perspective on Problems with Stained Glass

↳ 스테인드글라스 문단이 길고 400°C 같은 구체 수치가 있어 끌려요. 하지만 통념을 반박하는 예시일 뿐 글의 대상이 아니에요.

✗ ④ Puzzling Glass: Why Solid but Easily Breakable?

↳ Puzzling이 paradox-mystery와 겹쳐 가장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잘 깨진다」는 지문에 한 번도 안 나와요 — 뒷부분이 창작이에요.

· ⑤ Techniques for Producing Truly Flat Glass

↳ 평판 유리 한 문장(19세기·20세기 중반)의 세부예요. 제조 기법은 설명된 적이 없어요.

설계 의도 첫 문장(mess)과 마지막 두 문장(struggle-state)이 같은 방향이라 결론만 잡으면 풀려요. 대신中间的 긴 스테인드글라스 예시가 제목 후보처럼 보이게 배치해 예시 승격형 오답을 걸러요.

합정 포인트 ㉠④가 지문 어휘를 빌린 매력 오답이에요. ㉠은 예시를 주제로 승격했고 ㉡는 앞은 맞고(Puzzling) 뒤는 창작(breakable)이라 선지 후반부까지 읽어야 걸러져요.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결론부 '우리는 분자 법칙을 따르는 듯하다(obeys)'가 글의 방향과 정반대예요 — 과학이 설명 못 한다는 문장 바로 뒤에요.

- ✖ ① (a) liquid — glass never behaves as a liquid
↳ 앞 문장이 '이론상 둘 다'라 해서 흔들려요. 하지만 in practice it's really the latter(고체) 뒤라 '액체로 행동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 ② (b) misshapen — Those misshapen sheets of glass
↳ 바로 뒤 thicker at the bottom than the top이 '일그러진'을 그대로 풀어 써요. 판정 단서가 같은 문장 안이에요.
- ③ (c) solidified — blown and solidified in the first place
↳ '흘러내린 게 아니라 불어서 굳힐 때부터 그랬다'는 반박 문장이라 solidified가 제자리예요.
- ✖ ④ (d) paradox — The paradox is that
↳ 추상어라 눈길을 끌어요. 그러나 '가장 오래된 물질인데 아직 설명 못 함'은 despite가 만드는 역설 그 자체예요.
- ✓ ⑤ (e) obey — Glass seems to obey most molecular laws
↳ 바로 앞 문장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직 설명 못 한다'예요. 법칙을 따른다면 설명이 쉬워야 하니 defy 쪽이 맞아요.

설계 의도 정답을 결론부(뒤에서 둘째 문장)에 두고 판정 단서를 바로 앞 문장(struggle to comprehend)에 깔았어요. 앞쪽 밑줄 넷은 통념 반박 흐름에 정확히 끼워 순서대로 확인만 하면 통과하게 만든 설계예요. 3점 자리예요.

합정 포인트 (a)가 '이론상 둘 다' 문장 직후라 흔들리고, (d)는 추상어라 눈길을 끌어요. 6월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 오답률 56.5%로 상위 10문항 끝자리였어요.

9월 모평 2027학년도 9월 모평 문항 해부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a consumer research classic, Maloney proposed that the disbelief most people experience when encountering exaggerated product claims is often overwhelmed by a natural curiosity^①. When advertising information conflicts with existing beliefs, the resulting disagreement must be somehow resolved. This is often done by (a) yielding to the message and trying out the product in an attempt to readjust personal attitudes toward the brand. In his study, a sample of housewives was exposed to advertisements for food products and then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participants that found the ad claims to be believable and the others that thought they were hard to believe. The latter group was further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b) confidently disbelieved the claims and those who had what Maloney described as a curious nonbelief^②. The latter was tied into beliefs that actual product experience was (c) necessary to fully judge the claims. Few consumers who clearly disbelieved the message were interested in trying the product (18%). However, Maloney's results showed that more consumers who were in the curious nonbelief group were ready to try the product (44%) than in the group that expressed no concerns about (i.e., believed) the advertising claims (34%)^③. The results suggest that advertising that causes consumers not to believe the message claims but makes them^④ (d) indifferent may be the most effective form of new product advertising. Convincing consumers that the claims about a new product are true is not necessary to (e) create interest in product trial.

* overwhelm: 압도하다

- ① 첫 문장이 곧 결론이에요 — 불신을 호기심이 눌러요
- ② '호기심 어린 불신' — 42번 (d) 판정 기준이에요
- ③ $44 > 34 > 18$ — 이 수치가 결론을 못 박아요
- ④ (d) 자리예요 — indifferent 아니라 curious 여야 이어져요

41 읽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과장 광고를 못 믿어도 호기심이 이기면 써 보게 된다 —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만드는 광고가 효과적이라는 글이에요.

- ① Why Do Advertisers Trick Careless People?
↳ 광고주가 「속인다」는 비난 프레임도, careless한 소비자도 지문에 없어요. 지문은 소비자 반응 실험이에요.
- ✕ ② Accurate Claims Matter for Consumer Trust
↳ 상식에 가장 가까워 끌려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진실이라 설득하는 건 불필요」라 정반대 방향이에요.
- ✓ ③ Curiosity over Truth: How to Attract Consumers
↳ 첫 문장 overwhelmed by a natural curiosity와 결론 not necessary to create interest를 한 줄로 묶은 유일한 선지예요.
- ✕ ④ How Can We Deal with Exaggerated Product Claims?
↳ exaggerated product claims가 첫 문장 그대로라 강해요. 그러나 지문은 소비자의 대처법이 아니라 광고 효과 실험이에요.
- ⑤ To Buy or Not to Buy? What Makes Consumers Hesitate
↳ 망설임의 원인은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 집단이 더 써 보려 했다는 반대 결과예요.

설계 의도 첫 문장(호기심이 불신을 압도)과 마지막 문장(설득은 불필요)이 같은 결론을 쥐고 있고, 중간 실험 수치가 그 결론을 받쳐요. 통념 방향 선지와 첫 문장 어휘 재활용 선지로 「읽지 않고 고르는」 습관을 걸러요.

합정 포인트 ②④가 매력 오답이에요. ②는 통념(정확한 주장=신뢰) 쪽으로 방향을 되돌렸고 ④는 첫 문장 어휘를 그대로 가져와 「대처법」으로 범위를 바꿨어요.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결론 문장의 「소비자를 무관심하게(indifferent) 만드는 광고」가 글과 반대예요 — 실험은 「호기심 어린 불신」이 44%로 최고였어요.

- ✕ ① (a)
↳ 「불신을 해소한다」 뒤라 resisting을 기대하기 쉬워요. 하지만 같은 문장의 trying out the product가 「굴복해 써 본다」를 확정해요.
- ② (b)
↳ 바로 뒤 curious nonbelief와 짝을 이루는 대비예요. 「확신에 찬 불신」이라야 18% 집단과 이어져요.
- ✕ ③ (c)
↳ 마지막 문장의 not necessary와 같은 낱말이라 충돌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문장은 「써 봐야 판단된다」는 호기심 집단의 믿음이라 제자리예요.
- ✓ ④ (d)
↳ 결론은 44% 집단(curious nonbelief)을 만드는 광고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무관심이 아니라 curious여야 앞 실험과 이어져요.
- ⑤ (e)
↳ 「믿게 하지 않아도 관심은 생긴다」는 결론 그대로예요. 앞 문장 most effective와 같은 방향이에요.

설계 의도 실험 수치(18·44·34%)를 판정 단서로 깔고 정답을 결론 문장(뒤에서 둘째)에 뒀어요. 「호기심 어린 불신」이라는 낯선 조합을 이해했는지가 기준이고, 같은 낱말(necessary)을 두 번 써 키워드 대조만 하는 풀이를 걸러요. 3점이에요.

합정 포인트 (a)는 「불신」 뒤라 반대말을 기대하게 하고, (c)는 마지막 문장의 not necessary와 표면 충돌해요. 9월 당일 고난도 지목(21·33·34·37·39, 채점 전)에 42번은 없었어요.

6월→9월 소재가 재료과학(유리의 구조)에서 소비자 심리(광고 불신 실험)로 옮겨갔고 어수는 248→244어로 거의 같아요. 42번 정답은 두 회차 모두 뒤에서 둘째 문장이었고, 6월은 앞 문장 한 줄(struggle)이 단서였다면 9월은 실험 수치(18·44·34%)가 단서라 근거가 더 명시적이에요. 41번 오답은 예시 승격형(스테인드글라스)에서 통념 반전형(정확한 주장이 중요)으로 축이 옮겨갔어요.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지문이 통념을 뒤집는 구조예요 — 6월은 「오래된 유리창은 흘러내려 두꺼워졌다」, 9월은 「광고는 믿게 만들어야 팔린다」를 부정해요. 41번 정답은 그 뒤집힌 결론(수수께끼·호기심)을 핵심 명사와 묶은 제목이고, 오답은 예시(스테인드글라스)나 첫 문장 어휘(exaggerated claims)를 빌려 범위를 바꾸거나 통념 쪽으로 방향을 되돌려요. 42번은 밑줄 넷을 통념 반박 흐름의 제자리에 박고 결론부 한 낱말만 반대 방향(obey-indifferent)으로 바꿨어요. 두 회차 모두 42번이 3점이었지만 9월 당일 고난도 지목(채점 전)에 없었고 6월 강사 집계 오답률도 56.5%로 10위였어요 — 출제진은 이 세트를 킬러가 아니라 「지문 한 번 읽고 결론을 못 박았는가」를 확인해 3점을 회수하는 자리로 써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중

- P1** 수능에서도 41·42번은 한 지문에 제목(41)과 밑줄 어휘 오류(42)가 붙는 세트로 유지되고, 3점은 세트 안 한 문항에 붙어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41·42번은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같은 유형이었고, 2025학년도 6월부터 2027학년도 9월까지 2026학년도 9월 한 회만 세트 안에 3점이 없었어요.
- P2** 42번 정답 밑줄은 글이 결론을 못 박는 마지막 두 문장 안에 놓이고, 원래 낱말을 결론과 반대 방향의 한 단어로 바꾼 치환이에요.
근거 6월 obey(뒤에서 둘째 문장, 앞 문장 struggle to comprehend가 단서)·9월 indifferent(뒤에서 둘째 문장, 실험 수치 44%가 단서) 둘 다 이 꼴이었어요.
- P3** 42번 매력 오답은 부정어·양보 표지 바로 뒤에 놓인 낱말이거나 결론 문장의 낱말이 반복된 자리예요 — 표면 충돌만으로 지우면 걸려요.
근거 6월 liquid(「이론상 둘 다」 직후)·paradox(추상어), 9월 yielding(불신 해소 직후)·necessary(마지막 문장 not necessary와 중복)가 그 자리였어요.
- P4** 41번 정답은 지문 핵심 명사에 결론의 방향어를 붙인 선지이고, 매력 오답은 예시·첫 문장 어휘를 빌려 범위를 바꾸거나 통념 쪽으로 방향을 되돌린 선지예요.
근거 6월 정답 Nature of Glass 대 오답 Stained Glass·Flat Glass, 9월 정답 Curiosity over Truth 대 오답 Accurate Claims·Exaggerated Claims가 그 대비였어요.
- P5** 지문은 240어 안팎의 통념 반박형 설명문이고 난이도는 ★3 안팎이에요 — 킬러 지목 밖이지만 3점 회수 자리라 결론 한 줄을 못 잡으면 두 문항이 같이 빠져요.
근거 6월 248어·9월 244어로 최근 평균 240어 언저리였고, 9월 당일 고난도 지목(21·33·34·37·39, 채점 전)에 없었으며 6월 강사 집계 상위 10문항 끝자리(42번 56.5%)였어요.

수험 전략 240어 지문에 두 문항이라 시간 효율이 좋은 자리예요. 마지막 두세 문장에서 결론을 먼저 못 박고, 그 결론과 어긋나는 밑줄 하나를 찾은 뒤 제목을 고르세요. 밑줄 낱말은 어렵고 쉬움이 아니라 글의 방향과 같은지로만 판정하고, 부정어 뒤에 있거나 다른 문장에 같은 낱말이 보인다는 이유로 지우지 마세요. 후보에 반대말을 넣어 앞뒤 문장이 더 매끄러워지는지 감안하세요.

15 장문 독해 II

43~45번

Long Passage II · 3 items

한 편의 3인칭 서사문을 (A)~(D) 네 단락으로 나눠 놓고, 단락 순서(43)·밀줄 대명사의 지칭 대상(44)·내용 불일치(45)를 한 지문에서 묶어 묻는 세트예요. 독해 28문항의 마지막 자리라 남은 시간과 싸우며 풀게 돼요.

DNA 01 선지 설계 방법

43번은 (B)(C)(D)의 순열 다섯 개, 44번은 (a)~(e) 라벨 다섯 개로 선지 형식이 고정이에요. 44번 밑줄엔 서술 속 3인칭뿐 아니라 따옴표 안의 I-you-your가 섞이고, 45번은 한국어 진술문 다섯 개를 (A)~(D) 인쇄 순서로 늘어놓은 뒤 지문 서술을 정반대로 뒤집은 하나가 정답이에요.

DNA 02 자리·분량 DNA

- 43·44·45번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26회 중 26회 장문(43-45)이었어요 — 20·31~45번과 함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자리예요 **총론 카드 04**
- 3점 자리 지도(2015학년도 이후 38회·3점 265문항)의 번호별 집계에 43·44·45번은 없고, 2027학년도 6월·9월의 3점 7자리 (21·30·33·34·37·39·42번)에도 없는 2점 세 자리예요 **총론 카드 02**
- 장문 43-45 세트는 201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 9월까지 38세트가 기록됐고, 44번 지칭·45번 내용 일치 발문은 2015학년도 이후 전 회차 같아요 — 카드 스스로 분포는 「검산용 기록」이라 못 박고, 풀이는 지문을 한 번 읽고 세 문항의 근거를 각각 표시하는 쪽이에요 **총론 기록표**

STATISTICS 숫자로 보는 장문 독해 II

한 차트 = 한 문장 · n과 기간을 함께 읽어요 · 백분율은 문항 기준

01 · SLOT MAP **타일 x2**

총론 카드 발췌 · 이 챕터 번호 행만

자리는 2019학년도 이후 **43·44·45번은 26회 중 26회 장문(43-45)** 자리였고, **3점은 2015학년도 이후 38회 중 43번 0회·44번 0회·45번 0회**였어요 — 배점 자리일 뿐 난이도가 아니예요.

유형 배치 · 2019학년도~ · 총론 카드 04 발췌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고정도
번호	최빈 유형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43	장문																										100%	
44	장문																										100%	
45	장문																										100%	

최빈 유형과 같음

다른 유형(표기)

미수집

■ 최빈 유형과 같음 ■ 다른 유형(표기) □ 미수집

3점 자리 · 2015학년도~ · 총론 카드 02 발췌

학년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3점 횟수
번호	기본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수	6	9							
43	2점																																		0회					
44	2점																																		0회					
45	2점																																		0회					

3점 문항

2점(수집 문항)

미상(그 회차 미수집)

■ 3점 문항 ■ 2점(수집 문항) □ 미상(그 회차 미수집)

→ 자리와 배점은 사실상 고정이에요 — 번호에 유형별 풀이 루틴을 붙여 두고, 3점 표기를 보고 시간을 더 쓰기보다 루틴대로 배분해요.

n=78 n = 번호 3개 × 수집 회차 자리 2019학년도 이후 26회 · 3점 2015학년도 이후 38회 출처 기술 코퍼스 + 문항 원문 DB 셀 = 유형 미수집 ≠ 없음

43·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very day after school, Sally walked home through the park. She liked listening to music in her headphones and looking at the trees on her way home. One day, while she was changing songs, she heard strange, unpolished music. She took off her headphones and followed the music through the park. She saw a kind-looking old woman sitting on a small bench and playing the violin. While (a) her music wasn't perfect, there was something warm and welcoming about it. So, Sally walked closer^①.

- (B) The following day, they met at the same bench. Sally was happy to hear the old woman's music again, but when she sat, the woman stopped playing. "Today is your first full lesson," she said as she handed the violin to Sally. (b) She showed the young woman how to place her fingers on the strings. After an hour, she had learned some basics. Then, the old woman played the same music from the day before. Sally promised to meet her every day and started walking home. As she walked, simple, unpolished music was playing in her mind.
- (C) The old woman asked Sally if she played any instruments^②. Suddenly, Sally remembered learning the recorder from her older sister Beatrice when she was a girl. Beatrice had said, "You just have no musical talent." Sally looked back to the old woman sadly and told (c) her the story. The old woman winked, handed the violin to Sally, and said, "You don't need talent to enjoy playing." Feeling brave, Sally accepted the instrument and tried playing. The sound was rough, and she felt embarrassed. But the old woman just smiled and said, "That's how it begins. (d) I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③."
- (D) "Hello! Are you going to listen to my performance?" the old woman looked up and asked. Sally laughed and replied, "Oh sorry, I was just passing by." (e) She turned to continue walking home, but decided to stop^④ for a bit and listen. After the woman's music finished, Sally asked her when she had started playing the violin. "I just started last year, but I always wanted to learn," the woman answered. Sally was impressed by her response. Even though she loved listening to music, she could not play any instruments well.

- ① (A)는 다가서는 데서 끊겨요 — 다음 단락은 그 인사예요
 ② (D) 끝 '악기를 잘 못 해요'를 되받아요 → 다음은 (C)
 ③ tomorrow 가 (B) 첫머리 The following day 와 맞물려요
 ④ 44번 답 (e) — 대답한 Sally 가 발길을 돌린 거예요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원 벤치의 노부인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는 Sally 이야기를 (A)-(D)-(C)-(B)로 잇는 배열 문항이에요.

- ① (B)-(D)-(C)
↳ (B)는 'The following day'로 시작해요 — (A)에서 막 다가선 첫 만남 직후에 이튿날이 올 수 없어요.
- ② (C)-(B)-(D)
↳ (C)의 'told her the story'는 이미 대화가 오간 뒤예요. (A) 직후엔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이라 이어질 수 없어요.
- ✗ ③ (C)-(D)-(B)
↳ '악기를 연주하느냐'는 물음이 (A) 뒤에 바로 올 것 같지만, 노부인의 인사 'listen to my performance?'가 (A)의 'walked closer'에 대한 첫 반응이에요.
- ✗ ④ (D)-(B)-(C)
↳ (D)를 먼저 놓는 것까진 맞아요. 그런데 (B)의 'first full lesson'과 'the same music from the day before'는 (C)의 첫 시도가 있어야 성립해요.
- ✓ ⑤ (D)-(C)-(B)
↳ 인사→응답(A→D), 'play any instruments'의 되받기(D→C), 'tomorrow'→'The following day'(C→B) 세 이음새로 잠겨요.

설계 의도 단락 첫 문장이 앞 단락의 끝을 되받게 짰어요 — 대사에 대한 응답, 같은 화제(악기)의 이어짐, 시간 표지. 세 이음새 중 하나만 잡아도 배열이 절반은 결정되는 평이한 설계예요.

합정 포인트 ⑤⑤는 (C)(D) 자리를 맞바꾼 배열이에요. (B)의 'first full lesson', 'the day before'가 (C)의 첫 시도를 전제한다는 점, (D)의 인사가 첫 접근의 응답이라는 점이 같아요.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 Sally와 노부인, 두 여성 사이에서 her·She·her·I·She 다섯 밑줄의 주인을 가리는 지칭 문항이에요.

- ① (a)
↳ 'While her music wasn't perfect,' — 바로 앞 문장에서 벤치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은 노부인이에요.
- ✕ ② (b)
↳ 'She showed the young woman ...' — 앞 문장 'she said as she handed the violin to Sally'의 주어가 이어져요. 가르치는 쪽은 노부인이에요.
- ③ (c)
↳ 'Sally looked back to the old woman sadly and told her the story,' — 주어 Sally가 이야기를 들려준 상대, 노부인이에요.
- ✕ ④ (d)
↳ 'I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는 'the old woman just smiled and said' 뒤의 따옴표 안이에요. I는 말하는 사람인 노부인이에요.
- ✓ ⑤ (e)
↳ 'Sally laughed and replied ... She turned to continue walking home,' — 대답한 Sally가 발길을 돌린 거예요. 다섯 중 유일하게 Sally를 받아요.

설계 의도 두 인물을 모두 여성으로 맞춰 she/her만으로는 못 가르게 하고, 따옴표 안 I를 하나 섞어 화자 확인을 요구했어요. 정답은 화자가 노부인에서 Sally로 바뀐 직후 문장의 주어예요.

함정 포인트 (b)가 가장 끌려요 — 'the young woman'이 Sally라는 걸 놓치면 She를 Sally로 읽어요. 6월 이의신청 12문항에 44번이 들었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어요.

45 밑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언니 Beatrice의 '재능 없다'는 말을 '칭찬했다'로 뒤집어 놓은 내용 불일치 문항이에요.

- ① Sally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 'She liked listening to music in her headphones,'(A) 축자 일치예요.
- ✕ ② 노부인의 연주를 다시 듣게 되어 Sally는 행복했다.
↳ 'happy to hear the old woman's music again, but ... stopped playing,'(B) — 뒤의 but에 흔들리지만 '다시 듣게 되어 행복했다'는 참이에요.
- ③ Sally는 노부인을 매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 'Sally promised to meet her every day,'(B) 축자 일치예요.
- ✓ ④ Beatrice는 Sally의 음악적 재능을 칭찬했다.
↳ Beatrice의 말은 'You just have no musical talent,'(C)예요. 재능이 없다는 말을 칭찬으로 뒤집었어요.
- ✕ ⑤ 노부인은 항상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다.
↳ 'I just started last year, but I always wanted to learn,'(D) — '작년에 시작'에 눈이 가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다'도 지문 그대로예요.

설계 의도 선지를 인쇄된 (A)~(D) 순서로 늘어놓아 43번을 못 풀어도 대조되게 했고, 뒤집기는 인물의 평가(재능 없음↔칭찬)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넷은 지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함정 포인트 ②⑤는 참인 진술 뒤에 but이 붙은 문장에서 나왔어요. 선지가 다루는 절이 but 앞인지 뒤인지만 확인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REVIEW NOTE 해부 노트 — 45번 선지 판정 되짚기

6월 모평 · 다시 풀 때 5초 점검

- ① 소거 — 'She liked listening to music in her headphones,'(A) 축자 일치예요.
- ✕ ② 매력 오답 — 'happy to hear the old woman's music again, but ... stopped playing,'(B) — 뒤의 but에 흔들리지만 '다시 듣게 되어 행복했다'는 참이에요.
- ③ 소거 — 'Sally promised to meet her every day,'(B) 축자 일치예요.
- ✓ ④ 정답 — Beatrice의 말은 'You just have no musical talent,'(C)예요.
- ✕ ⑤ 매력 오답 — 'I just started last year, but I always wanted to learn,'(D) — '작년에 시작'에 눈이 가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다'도 지문 그대로예요.

내 메모 — 내가 풀린 오답과 그 이유

43·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im adopted a dog a few months ago. When he met his dog for the first time, he named him after his favorite character, Mickey. Mickey was a healthy dog, but he soon seemed to lack energy. Tim thought that taking care of a dog was much harder than he had expected. So, he decided to sign up for a dog training course. At the training center, he met an instructor named Jack. He emphasized to Tim, “Be sure to walk (a) your dog daily. Dogs need regular exercise to be happy and healthy.”

- (B) When Tim and Mickey arrived at the park Jack had recommended ^①, dozens of dogs were already jumping and playing. Mickey looked nervous ^② in the unfamiliar surroundings. Tim said, “Don’t worry, Mickey. It’ll be fun.” Just then, Tim saw a boy about (b) his age standing with a small dog. Gathering his courage, Tim walked over to him. “Hi, I’m Tim. Can I introduce my dog to yours?” The boy replied, “Sure. I’m Daniel. Oh, it looks like they like each other already!”
- (C) Having something in common as dog owners, Tim and Daniel enjoyed talking to each other. They spent the next two hours pleasantly chatting and decided to walk their dogs together regularly. “See you soon,” said Tim as (c) he and Mickey left the park. Over the next few weeks, the boys and their dogs became great friends. After returning from a walk one day, Tim said to Mickey, “Walking you felt like a burden at first ^③, but now I see doing things for (d) you can be great for me, too!”
- (D) Being sure to follow Jack’s advice ^④, Tim took Mickey for a walk every day. However, this extra responsibility soon seemed like a burden, and Tim felt exhausted. One day, Tim got a call from Jack. “Hello, Tim. How’s everything going with Mickey?” Tim replied, “Actually, it’s pretty hard walking him every day. We’ve been taking the same route, and it has become a little boring.” Jack offered (e) him a new idea. “How about going to Happy Dog Park?” Tim said, “That’s a great idea!”

- ① 추천받은 공원이 다시 나와요 → (D) 다음은 (B)
 ② 45번 답 ㉠ — 뛰는 건 다른 개들, Mickey 는 긴장했어요
 ③ 44번 답 (d) — 듣는 쪽이 사람이 아니라 개 Mickey 예요
 ④ (A)의 조언을 실행하는 자리 — (A) 다음은 (D)예요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입양한 개 Mickey와의 산책이 부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Tim의 이야기를 (A)-(D)-(B)-(C)로 잇는 배열 문항이에요.

- ✕ ㉠ (B)-(D)-(C)
 ↳ (A)의 Jack 조언을 「공원 추천」으로 읽으면 (B)의 「the park Jack had recommended」가 바로 붙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원 제안은 (D)의 전화에서 나와요.
- ㉡ (C)-(B)-(D)
 ↳ (C)는 「Tim and Daniel」로 시작해요 — Daniel은 (B)에서 처음 등장하니 (C)가 먼저 올 수 없어요.
- ㉢ (C)-(D)-(B)
 ↳ ㉡와 같은 이유로 (C)가 첫 자리에 올 수 없고, (D)의 「부담」이 (C)의 「burden at first」보다 뒤에 오는 것도 어긋나요.
- ✓ ㉤ (D)-(B)-(C)
 ↳ 조언→「follow Jack’s advice」(A→D), 「Happy Dog Park」→「the park Jack had recommended」(D→B), Daniel→「Tim and Daniel」(B→C)예요.
- ✕ ㉥ (D)-(C)-(B)
 ↳ (D) 다음이 공원 장면인 건 맞지만, (C)의 첫 문장 「Tim and Daniel」은 (B)에서 Daniel을 만난 뒤에야 가능해요.

설계 의도 6월처럼 단락 첫 문장이 앞 단락 끝을 되받아요 — 조언의 실행, 추천받은 공원의 재등장, 새 인물 이름의 재등장. 마지막 대사 「burden at first」가 (D)의 부담을 회수하며 닫는 원형 구조예요.

합정 포인트 ㉠㉡가 각각 (B)와 (C)를 앞당긴 배열이에요. 「Jack had recommended」가 가리키는 게 산책 조언이 아니라 공원 제안이라는 점, Daniel의 첫 등장 위치가 달라요.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Tim·강사 Jack·또래 Daniel, 그리고 개 Mickey까지 모두 he로 받는 구도에서 your·his·he·you·him의 주인을 가리는 문항이에요.

- ✗ ㉠ (a)
↳ 「Be sure to walk your dog daily」는 Jack이 Tim에게 한 말이에요. 따옴표 안 2인칭이라 (d)와 같은 꼴이지만 듣는 사람이 Tim이에요.
- ✗ ㉡ (b)
↳ 「a boy about his age」 — 바로 앞의 a boy에 끌리지만, 주어 Tim이 자기 또래의 소년을 본 거라 his는 Tim이에요.
- ㉢ (c)
↳ 「said Tim as he and Mickey left the park」 — 주어 Tim이 그대로 이어져요.
- ✓ ㉣ (d)
↳ 「Tim said to Mickey」 뒤 따옴표 안의 you예요 — 말을 듣는 쪽은 개 Mickey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Tim을 받아요.
- ㉤ (e)
↳ 「Tim replied ... Jack offered him a new idea」 — Jack이 제안을 건넨 상대는 방금 대답한 Tim이에요.

설계 의도 사람 셋과 개 한 마리를 전부 he/him으로 받게 해 성별 단서를 지우고, 따옴표 안 2인칭을 둘(your·you) 넣어 듣는 이가 사람인지 개인지까지 확인하게 했어요.

함정 포인트 (a)와 (d)가 같은 2인칭 꼴이에요. 「누가 말하나」만 보면 둘 다 사람이 화자라 못 갈라요 — 「누구에게 말하나」까지 적어야 (d)만 개를 받는 게 드러나요.

45 밑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낮선 환경에 긴장한」 Mickey를 「즐겁게 뛰어다녔다」로 뒤집어 놓은 내용 불일치 문항이에요.

- ㉠ Mickey는 Tim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름이었다.
↳ 「named him after his favorite character, Mickey」(A) 축자 일치예요.
- ✓ ㉡ Mickey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즐겁게 뛰어다녔다.
↳ 「Mickey looked nervous in the unfamiliar surroundings」(B) — 뒤흔던 건 다른 개들(dozens of dogs)이고 Mickey는 긴장했어요.
- ㉢ Tim은 Mickey를 다른 개에게 소개하려 했다.
↳ 「Can I introduce my dog to yours?」(B) — Daniel의 개에게 소개하려 했어요.
- ㉣ Tim과 Daniel은 자신의 개를 함께 산책시키기로 했다.
↳ 「decided to walk their dogs together regularly」(C) 축자 일치예요.
- ✗ ㉤ Tim은 Jack과의 통화에서 고민을 이야기했다.
↳ 전화를 건 쪽은 Jack이지만, 「it's pretty hard walking him every day ... a little boring」(D)이라고 고민을 말한 건 Tim이에요. 참인 진술이에요.

설계 의도 뒤집기 재료를 같은 문장이 아니라 옆 문장(다른 개들의 행동)에서 빌려 와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6월의 「평가 뒤집기」에서 「옆 문장 차용」으로 한 단계 정교해졌어요.

함정 포인트 ㉡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까지 지문 순서와 맞아 끝까지 읽어야 걸러져요. 주어가 dogs인지 Mickey인지 확인하는 게 전부예요.

6월→9월 어수 373→347어, 인물이 여성 둘(+언니 회상)에서 남성 셋+개 한 마리로 바뀌었어요. 44번은 6월엔 서술문 주어 She(화자 교체 직후)였는데 9월엔 따옴표 안 you(듣는 이가 개)라 화자 확인에서 청자 확인으로 과업이 옮겨갔고, 45번 뒤집기도 인물 평가(재능)에서 옆 문장 차용(다른 개들)으로 정교해졌어요. 9월 43~45번은 EBS 연계 문항으로 발표됐어요(당일 발표).

출제 설계 읽기

두 시험 모두 43~45번을 변별 구간으로 쓰지 않았어요 — 6월·9월 고난도 지목과 6월 강사 집계 오답률 상위 10문항 어디에도 없었고, 3점도 붙지 않았어요. 대신 세트 설계는 일관돼요. ㉠ 서사는 「처음 배우거나 돌보는 일」이 부끄러움·부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감정 곡선이고, 43번은 단락 첫 문장이 앞 단락 끝을 되받는 장치(대사 응답·같은 화제·추천받은 장소·새 인물 이름·시간 표지)로 잠겨요. ㉡ 44번은 등장인물(개까지)을 같은 성별 대명사로 묶어 he/she로는 못 가르게 하고, 따옴표 안 1·2인칭을 섞어 「누가 누구에게」를 적게 해요. ㉢ 45번은 선지를 인쇄된 (A)~(D) 순서로 늘어놓고 뒤집기 하나를 심되, 9월엔 옆 문장의 사실을 빌려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세 문항이 서로를 봉인하지 않게 짤, 시간을 돌려주는 자리예요.

2027학년도 수능 예측

9월 모평(2026.9.2) 기준 예측

확신도 상

P1 수능 43~45번도 한 서사 지문에 순서(43)·지칭(44)·내용 불일치(45)를 묶는 장문 세트 그대로이고, 세 문항 모두 2점이에요.

근거 기출 통계 카드에서 43~45번은 26회 중 26회 같은 유형이고 3점 자리 지도 265문항에 없어요. 6월·9월 모두 「신유형 없음」이었어요.

P2 지문은 320~380어의 3인칭 일상 서사로, 이름 있는 인물 둘 이상이 「처음 배우거나 돌보는 일」을 겪으며 부담·부끄러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근거 6월 373어(첫 바이올린 레슨)·9월 347어(입양한 개 산책)가 이 곡선이었고, 기출 통계 2023학년도 6월 이후 세트는 321~381어예요.

P3 43번은 각 단락 첫 문장이 앞 단락 끝을 되받는 장치(대사에 대한 응답·앞서 소개된 장소나 인물의 재등장·시간 표지)로 잡겨요.

근거 6월은 인사→응답·tomorrow→The following day, 9월은 Happy Dog Park→the park Jack had recommended·Daniel→Tim and Daniel이었어요.

P4 44번은 인물(동물 포함)을 같은 성별 대명사로 묶어 he/she로는 못 가르게 하고, 다섯 밑줄에 따옴표 안 1·2인칭을 최소 하나 섞어요.

근거 6월은 Sally·노부인·언니가 전부 she, 밑줄에 I 하나. 9월은 Tim·Jack·Daniel·개 Mickey가 전부 he, 밑줄에 your·you 둘이었어요.

P5 45번 선지는 인쇄된 (A)~(D) 순서로 늘어놓고, 정답은 인물의 평가·감정 진술 하나를 정반대로 뒤집은 선지예요 — 나머지 넷은 축자 일치예요.

근거 6월·9월 모두 선지가 (A)·(B)·(B)·(C)·(D) 순이었고, 뒤집기는 'no musical talent'→칭찬, 'looked nervous'→즐겁게 뛰어다님이었어요.

수험 전략 세 문항이 한 지문이라 남은 시간이 곧 점수예요. (A)를 읽으며 인물 이름 옆에 he/she를 적고, 단락 첫 문장이 앞 단락의 어느 말을 되받는지(응답·재등장·시간 표지)만 찾아 43번을 확정하세요. 44번은 밑줄이 따옴표 안이면 「누가 누구에게」를 둘 다 적고 — 듣는 이가 동물일 수도 있어요 — 서술문이면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니라 그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45번은 선지가 인쇄 순서라 43번을 못 풀어도 손대되, but 앞뒤 절과 주어(다른 개들인지 Mickey인지)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부록 — 데이터 출처와 한계 Sources & Caveats

기출 데이터

기출 통계(유형 배치·어수·정답 분포·3점 자리)는 수능·모평 코퍼스 70회분(2004~2027학년도 24개 학년도, 마지막 회차 2027학년도 9월 — 지문·유형·정답·어수)과 문항 원문 DB(2023~2027학년도 발문·선지·정답키, 배제 표시는 2015학년도 이후 회차)에서 결정론 스크립트로 추출했어요. 본문 차트는 이 데이터에서 코드가 직접 그려요 — 수치에 사람 손이나 AI 기억이 개입하지 않고, 표본 30건 미만 카드는 「참고용」 배치를 달아요. 문항 해부의 정답 번호는 전 카드가 원본 정답키와 기계 대조를 통과했어요. 문항 원형은 시험지 PDF에서 추출했고, 빈칸·삽입·순서·무관·어법 밀줄의 재구성은 2027학년도 6월·9월 전 문항(40항목)이 결정론 원문 대조 게이트(원형 대조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통계 카드

총론과 각 챕터 오프너의 통계 카드는 코드가 기출 코퍼스에서 직접 계산한 통계 카드 값을 그대로 그린 것이예요. 헤드라인 문장은 코드 템플릿이 수치를 넣어 만든 것이고, 「→」 행동 한 줄은 수치를 담지 않아요. 정답 번호 분포는 유형 챕터에 실지 않고 총론 끝 「검산용 정답 번호 기록표」에만 모았어요 — 검산용 기록이지 정답을 고르는 근거가 아니예요.

한계 고지

① 예측 박스는 2026.9.2(2027학년도 9월 모평 시행 당일, 채점 전) 시점 정보로 작성했어요 — 9월 1등급 비율·문항별 오답률은 성적 통지(9.29) 전이라 존재하지 않고, 9월 당일 평가는 전부 「당일 평가·검증 안 됨」으로 읽어야 해요. ② 코퍼스는 18·19·25·27·28번이 미수집인 회차가 있어요(수집 규칙) — 「없음」이 아니라 「미수집」이에요. ③ 문항별 오답률은 EBS·메가스터디·대성·강사 집계 등 기관별로 수치와 1위 문항이 달라 본문에 기준을 병기했고, 올해 6월 오답률은 강사 집계(집계 기관 비공개)뿐이에요. ④ 예측은 확률적 진술이에요 — 지난 시즌 수능의 대형 예측 실패(당일 「9월과 비슷, 5~6%」 vs 실채점 3.11%)가 보여주듯 널뛰기 국면에선 어떤 방법론도 확신을 팔면 안 되고, 이 리포트의 리허설 실질 적중률도 28.6%예요. ⑤ 문항 원형(발문·지문·밀줄·마커·선지)은 실제 시험지 PDF의 텍스트 레이어·밀줄 벡터에서 기계 추출해 코퍼스 복원본과 축자 대조로 검증했어요 — 6월 36번은 각주가 본문에 섞여 들어온 오염을, 9월 34번 빈칸과 세트 문항 발문은 반입 시 수리한 뒤 대조를 통과했어요(2027학년도 6월·9월 40항목 전 항목 통과). ⑥ 리허설 채점은 예측을 만든 제작진이 직접 했어요(외부·독립 채점 아님) — 관대할 수 있어요.

외부 출처 (본문 인용 수치의 원출처)

- [R1] 2027학년도 9월 모평 영어 출제 방향 — 신유형 없음·연계 25문항 55.6%·EBS 변별 21·33·34·37 (베리타스알파) —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52>
- [R2] 2027학년도 9월 EBS 현장교사단 「작년 수능·올해 6월보다 쉽게」·「적정 난도」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22966645576184>
- [R3] 2027학년도 9월 대성 「지문 쉽고 짧아도 빈칸 오답 매력도 높게」·33·34·37·39 (베리타스알파) —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53>
- [R4] 2027학년도 9월 메가 「33·34 은유·비유로 간접 제시」·수능 「작년 수능·6월 수준 유지 가능성」 (베리타스알파) —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63>
- [R5] 2027학년도 9월 종로 「6월·작년 수능보다 상당히 쉽게」·「상위권 변별력 문제 가능성」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1110>
- [R6] 2027학년도 9월 당일 「평가원 공식 목표 비율 없음, 입시업계 7~8%」·1등급 수치 전망 부재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policy/2026/09/02/2026090214054395966>
- [R7] 2027학년도 9월 「9월모평 성적이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단정 금지」 (베리타스알파) —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492>
- [R8] 2027학년도 9월 모평 일정 — 정답 확정 9.15·성적 통지 9.29 (베리타스알파) —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632>
- [R9] 2027학년도 6월 모평 영어 1등급 4.13%·국어 5.38%·수학 4.83%·평가원 「6·9월 결과 종합 검토」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policy/2026/06/30/202606301132019539>
- [R10] 2026학년도 9월 모평 채점 — 6월 19.1%→9월 4.5% (한국대학신문)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530>
- [R11]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3.11%·역대 4.71%·6.22%·종로 「예측 어려워졌다」 (뉴스) — https://www.news1.com/view/NISX20251204_0003428393
- [R12] 2026학년도 수능 당일 전망 「9월과 비슷, 1등급 5~6%」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11318335644046>
- [R13] 절대평가 수능 영어 1등급 역대 시계열 2018~2026학년도 (뉴스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08000506>
- [R14] 2025학년도 9월 모평 10.94%·6월 1.47%·「본수능은 9월보다 어려워질 것」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11200051>
- [R15] 2026학년도 수능 EBS 지목 변별 문항 32·34·37·39 (유캔두뉴스) —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8>

1등급 비율 카드의 회차별 출처

- 2024학년도 수능 4.71% — https://www.news1.com/view/NISX20251204_0003428393
- 2025학년도 수능 6.22% — https://www.news1.com/view/NISX20251204_0003428393
- 2026학년도 6월 19.1%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301558001>
- 2026학년도 9월 4.5% — <https://v.daum.net/v/20250929120147676>
- 2026학년도 수능 3.11% — https://www.news1.com/view/NISX20251204_0003428393
- 2027학년도 6월 4.13% — <https://www.mt.co.kr/policy/2026/06/30/202606301132019539>